

FINAL 7

읽을 때는 관계를 잡고,
풀 때는 근거를 확인한다.

화법과 작문 선택

10개년 수능·2027학년도 모의평가 비교

15가지 독해 기술 · 12가지 실전 TIP

선생님 풀이 시범 · 독립 창작 45문항

제이든양 선생님

수능 직전, 한 문제의 판단을 바꾸는 실전 학습

본 수험서는 화려한 디자인보다 학습 내용의 충실함에 집중했습니다.

기출 원문을 재수록하지 않은 독립 창작 연습 자료

START / 읽는 방법

들어가기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읽는 것보다, 실제 문제에서 쓸 행동을 하나씩 익히는 게 중요해.

시험장에서 기억할 한 문장

읽을 때는 관계, 풀 때는 근거

긴 글이 나오면 문장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외우려 하지 마. 누가 / 무엇을 / 어떤 조건에서 말하는지 먼저 잡아. 답을 고를 때는 선택지 표현이 지문 어디에서 확인되는지 되돌아가.

이 책을 사용하는 순서

단계	할 일
01 · 내 수준 알아보기	틀리는 이유를 다섯 가지 상황에서 찾아보고, 내 약점을 골라 봐.
02 · 이 책은 이렇게 만들었어	기출과 모평에서 반복된 판단 요구를 확인해.
03 · 독해 기술과 실전 TIP	15가지 기술을 이해하고, 12가지 TIP을 시험장 행동으로 바꿔.
04 · 선생님 풀이와 창작 수업	생각의 순서를 따라 한 뒤 새로운 지문에서 혼자 다시 풀어.
05 · 45문항 80분 연습	정답 개수보다 틀린 원인과 시간 기록으로 마무리해.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해설을 펼치기 전에 발문에서 무엇을 묻는지 표시하고, 지문에서 딱 한 문장만이라도 근거를 찾아봐. 그게 안 되면 별표를 치고 넘어갔다가 돌아오면 돼.

이 교재의 모든 예시는 학습을 위한 창작 자료야. 실제 평가원 지문·문항을 복제하지 않아.

SELF CHECK / 진단

내 수준 알아보기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을게. 점수가 같아도 막히는 지점은 서로 다르니까.

최근에 틀린 국어 문제 세 개를 떠올려 봐

내가 겪는 상황	체크	먼저 연습할 행동
긴 글을 다 읽지 못하고 끝냈어.	☐	문단마다 주제어 하나만 남기기
읽었는데 앞 문단이 기억나지 않아.	☐	주장 → 근거 → 예외 연결하기
두 개까지 좁혔다가 마지막에 틀려.	☐	두 선택지의 다른 말만 표시하기
아는 문제를 시간 때문에 놓쳤어.	☐	별표 후 복귀, 문항별 결정 시간 기록
〈보기〉가 붙으면 어디서 시작할지 몰라.	☐	지문 규칙과 새 상황을 하나씩 대입하기

체크 개수보다 중요한 질문 하나

정답을 보자마자 “아, 맞다”로 끝났어? 그렇다면 왜 그 선택지를 골랐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 봐. 틀린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다음에 다른 소재가 나와도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오늘부터 바꿀 행동 한 가지

내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 _____

다음 문제에서 먼저 확인할 것: _____

이건 점수나 등급을 측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학습 출발점을 찾는 자기점검이야. 한 사람이 여러 항목에 해당해도 괜찮아.

SELF CHECK / 실전 확인

내가 마지막에 헛갈리는 이유

“둘 다 맞아 보이는데?” 하는 순간, 지문 전체를 다시 읽기보다 두 선택지의 차이를 찾아보자.

창작 미니 지문 · 정책의 효과를 바라보는 두 기준

지문

가상 도시의 야간 독서실은 운영 시간을 늘린 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20명에서 145명으로 증가했어. 담당자 A는 “전체 이용자가 늘어난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어. 반면 담당자 B는 “시험 기간의 영향도 있고 대기 시간은 실제로 조사하지 않았으니, 이용자 증가를 운영 시간 확대의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록에는 평일 평균과 주말 평균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어.

〈보기〉를 적용하면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같은 기간 출입 기록에서 오후 10시 이후의 이용자는 40명에서 62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이용자의 실제 대기 시간은 조사하지 않았어.

선택지	판단
① A와 B 모두 이용자 증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A는 전체 증가를, B는 다른 조건과 대기 시간을 함께 확인하려 한다.	☐
③ 야간 이용자가 늘었으므로 평균 대기 시간은 반드시 감소했다.	☐
④ 시험 기간의 영향은 자료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
⑤ 오후 10시 이후 이용자가 증가했으니 주말 이용자도 늘었다.	☐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해 · 정답 ②

① 두 사람 모두 증가 자체는 인정해. ②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설명이 맞아. ③ 대기 시간을 조사하지 않았어. ④ 시험 기간 효과는 분리되지 않았어. ⑤ 늦은 밤과 주말은 다른 기준이야. 다른 말에 동그라미 → 지문 근거 확인의 순서로 풀어.

RESEARCH / 제작의 근거

이 책은 이렇게 만들었어

10개년 수능과 2027학년도 6·9월 모평을 비교해, 시험장에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판단을 수업으로 옮겼어.

이 책은 “올해 무슨 소재가 나올까”를 맞히려는 책이 아니야. 소재가 바뀌어도 계속 나오는 판단을 먼저 익히도록 만들었어. 법 지문에서는 조건과 예외, 인문에서는 관점 비교, 과학·기술에서는 변수와 적용 범위가 특히 중요할 수 있어.

우리가 참고한 시험의 범위

분석 범위	문항 기록	이 책에 활용한 내용
2017~2021 수능	매년 공통 45문항	분야별 사례·발문 기능·선택지 판단
2022~2026 수능	공통 34 + 선택 각각 11	독서·문학 공통 판단과 화작·언매 특징
2027 6월·9월 모평	각 회차 공통 34 + 두 선택 각각 11	최근의 적용·비교·문학·매체 판단 사례

두 선택과목을 모두 포함한 자료 기록은 수능 505문항, 모평 112문항이야. 실제 한 수험생이 한 시험에서 푸는 문항은 45개야.

분석 결과를 학생용 수업으로 바꾼 방법

기출의 질문과 선택지에서 반복되는 행동을 찾고 → 학생이 흔히 놓칠 조건을 적고 → 15가지 독해 기술로 이해하는 힘을 만들고 → 12가지 TIP으로 실전 행동을 정리하고 → 완전히 새로운 문항에서 스스로 시험해 보게 했어.

핵심 목표

한 문제를 우연히 맞히는 게 아니라, 왜 정답인지 지문 속 근거를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점수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어도 공부할 순서를 명확히 할 수는 있어.

RESEARCH / 문제 유형

어떤 문제를 집중해서 볼까?

유형은 하나씩 따로 나오지 않아. 한 문제에서 <보기> 적용·조건 비교·추론이 함께 필요할 수 있어.

10개년 기록에서 확인한 주요 판단 기능

기존 문항 기능의 1차 분류	관련 문항 기록
<보기>·새 사례에 규칙 적용	112
A와 B의 비교·관점 판단	79
표현·서술·발화 방식 판단	60
어휘·문법 규칙 적용	44
내용·개념 확인	41
글 수정·자료 반영·활용	36

이 숫자는 10개년 505문항의 기존 유형명을 재분류한 참고 집계야. 71문항은 미분류였고, 복합 문제도 대표 기능 하나로 기록했으므로 최종 출제 빈도 순위로 해석하지 않아.

발문을 직접 대조한 2023·2024학년도는?

두 시험의 공통·선택과목 포함 발문	확인 개수
<보기>가 직접 등장한 문항	27 / 112
“적절하지 않은” 등 부정형 판단	56 / 112
2023학년도 복합 판단 두 가지 이상 표시	31 / 56

오늘부터 먼저 할 일: “아닌 것”에 표시 → <보기>의 조건을 지문과 연결 → 두 선택지에 서로 다른 단어를 표시. 세 행동을 순서대로 써 봐.

RESEARCH / 지문 분야

어떤 지문들이 나왔을까?

분야를 외우기보다, 각 분야에서 반복해서 요구하는 읽기 행동을 익히자.

학년도	대표 분석 사례	시험장에서 확인할 관계
2017	독서·문학 자료 연결	지문과 다른 자료의 대상·관점
2018	경제: 환율 오버슈팅	장기 / 단기 조건
2019	인문: 가능세계 논리	가능 / 필연의 범위
2020	경제: BIS 비율	계산 분모 / 적용 기준
2021	법: 계약·채권·예약	권리 발생 시점
2022	경제: 국제통화 체제	비율 / 전제 조건
2023	과학: 지수·로그	그래프 / 변수 관계
2024	통계: 결측치·이상치	평균 / 적용 조건
2025	기술: AI 확산 모델	처리 방향 / 순서
2026	법·과학·인문 관련 사례	조건 / 주장 구분

대표 사례를 한 건씩 제시한 표야. 해당 연도의 전체 지문 분야별 횟수나 출제 비율을 나타내지는 않아.

분야가 바뀌면 이 질문부터

법: 언제 권리가 생기지? / 경제: 분모와 비교 기준이 같아? / 과학: 통제된 조건은 뭐지? / 인문·사회: 두 관점은 어디서 갈리지? / 문학: 누가 말했고 실제 사건은 뭐지?

RESEARCH / 고난도 문항

어떤 문제가 어려웠을까?

높은 오답률을 외우는 대신, 그 문제에 필요한 판단을 연습하면 돼.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실제 사례

문항	당시 응답자 오답률	훈련할 판단
독서 13번	85.0%	기술 원리의 <보기> 적용
독서 7번	73.8%	관점 비교와 근거 범위 검산
문학 23번	69.8%	작품과 선택지의 근거 대조

EBSi 자가 채점에 참여한 언매 선택 응답자 자료야. 전국 전체 응시자나 특정 등급 학생의 공식 오답률이 아니야.

왜 어려웠는지를 훈련으로 바꾸면

- ① <보기> 적용: 지문에서 규칙을 한 줄로 만든 뒤, 새로운 상황의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 선택지의 모든 조건을 확인해야 해.
- ② 두 관점 비교: “둘 다 같은 말을 한다”로 뭉뚱그리지 말고, 공통점 한 줄 / 다른 점 한 줄을 적어.
- ③ 문학 판단: 화자·인물의 말과 서술자의 설명을 구별하고, “그렇게 느껴진다”와 “작품에 실제로 있다”를 나눠.

30초 복습 질문

‘가능하다’와 ‘반드시 가능하다’는 같은 말일까?

아니야. 가능성만 제시된 자료에서 반드시라고 바꾸면 근거보다 더 강한 주장일 수 있어. 바뀐 말 하나를 잡는 연습부터 하자.

출처: EBSi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분석·자가 채점 자료(언매 선택 응답 집계). 실전 연습문항은 모두 별도 창작했어.

RESEARCH / 최근 모평

2027학년도 6월·9월 모평에서 배울 것

두 시험은 소재가 달랐지만, 처음 보는 사례를 읽어 적용하는 기본 동작은 이어졌어.

영역	6월에 확인한 연습 과제	9월에 확인한 연습 과제
독서	개념·조건·자료의 인과 구별	두 관점 비교 · 기술 원리 적용
문학	화자·상황·실현된 사실 구분	작품 간 관점·감상 근거 대조
화작	발표 계획과 실제 자료 사용	대화·수정·최신 정보 반영
언매	음운·문법 규칙의 사례 적용	화면에 실제 있는 기능과 추정 분리

이 책의 집중 순서

첫째, 발문 방향·조건·예외를 놓치지 않는다. 둘째, 〈보기〉와 두 관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한다. 셋째, 수치·문학·선택과목에서 근거 없는 결론을 제거한다.

시험장에서 바로 쓰는 4단계

질문 끝 표시 → 지문 규칙 한 줄 → 선택지에서 바뀐 단어 → 마지막 두 개 근거 비교

문제를 먼저 볼 때와 글부터 읽을 때

“어느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는가”처럼 찾을 대상이 분명하면 질문을 먼저 훑어도 좋아. 반대로 작품 전체의 정서나 두 관점의 큰 흐름을 물으면 글을 먼저 읽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 한 방법만 고집하지 마.

2027학년도 국어 출제 안내에 따르면 공통 출제 범위는 독서·문학, 선택은 화작·언매야. 출제 목표는 사실·추론·비판·창의적 판단을 함께 포함해.

STUDY PLAN / 7일

7일 동안 이렇게 써먹자

모든 기술을 배우되, 가장 자주 틀리는 행동에 복습 시간을 더 주는 방식이야.

날짜	오늘 해야 할 일	끝나면 남길 기록
DAY 1	내 수준 알아보기 + 기출·모평 분석	제일 자주 틀리는 이유 2개
DAY 2	15가지 독해 기술 전부 학습	문단·조건·비교·추론 약점
DAY 3	12가지 실전 TIP + 시간관리	내가 실제로 쓸 TIP 3개
DAY 4	선생님의 풀이 시범 + 실전 1~3강	선택지를 잘못 읽은 이유
DAY 5	실전 4~6강 + 문학·선택 심화	새 소재에서 적용한 근거
DAY 6	45문항을 80분 안에 풀기	시간·정답·근거 없이 고른 수
DAY 7	오답 3개를 새 종이에 다시 풀기	다음에 바꿀 행동 1개

시간을 줄이는 순서도 중요해

처음에는 정확한 근거를 찾는 게 먼저야. 그다음 시간을 재고, 오래 막히는 문제는 별표를 남긴 뒤 넘어가. 지문을 읽은 시간과 문제를 판단한 시간을 따로 기록하면 무엇이 느린지 알 수 있어.

7일 뒤에도 기억해야 할 것

정답 번호가 아니라 발문 → 지문 → 선택지 → 근거 → 검산의 순서야. 지금부터 15가지 독해 기술과 12가지 TIP에서 이 행동을 반복해서 연습하자.

CONTENTS / 차례

차례

필요한 단원부터 펼쳐도 좋아. 틀린 문제와 연결된 기술을 찾아 다시 연습해 봐.

읽을 차례	쪽
들어가기	2
내 수준 알아보기	3 - 4
이 책은 이렇게 만들었어 · 10개년·모평 분석	5 - 9
7일 학습 계획	10
제1부 · 15가지 독해 기술	12
제2부 · 12가지 실전 TIP	28
제3부 · 시간관리와 훈련기록	37
긴 지문 적용·선생님 풀이 시범	41
제4부 · 도서관 창작 지문	48
제5부 · 과학 창작 지문	57
제6부 · 정책·문학 복합 실전	66
제7부 · 문학·선택과목 심화	75
실전 1~6강 · 새로운 지문으로 적용	91
제8부 · 학습 답안과 오답 기록	117
실전 45문항 · 80분	119
45문항 답안 기록표	144
실전 45문항 정답·해설	145

처음에는 2쪽부터. 다시 볼 때는 틀린 이유에 맞춰 해당 기술과 실전 TIP으로 돌아가.

제1부. 독해에서 실전까지 15개의 학습 기술

짧은 예시를 단순히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야. 매 단원에서 “왜 틀리는지 →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 네가 해 볼 일”을 순서대로 확인할 거야. 하나의 기술이 다른 기술과 겹쳐도 괜찮아. 실전에서는 여러 기술을 같이 쓰게 되니까.

학습 기술 01 | 긴 문장도 한 번에 다 이해하려 하지 마

너도 이런 적 있지? 긴 문장을 끝까지 읽었는데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안 남는다면?

[짧은 예문] 학교는 예산이 승인되었더라도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않은 시설의 개방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먼저 주인공을 찾아. 누가 결정하지? 학교야. 다음으로 실제 행동을 찾아. 개방을 보류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언제 보류하나’를 붙여. 예산 승인은 받았어도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야. 이렇게 ① 주체 ② 행동 ③ 조건 순서로 읽으면 긴 문장이 짧아져.

[이것만은 조심!] “예산이 승인됐으므로 시설은 개방된다”라고 말하면 조건을 빠뜨린 거야. ‘-더라도’, ‘-않은’ 같은 작은 표현이 앞의 내용을 뒤집기도 해.

[이제 네 차례] “기술 심사를 통과한 업체라도 계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이 확정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 선정되지 않는 업체의 조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 써 봐.

[스스로 확인] 주체·행동·조건을 빠짐없이 가리킬 수 있다면 통과. 단지 문장을 빠르게 읽었다고 통과가 아니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02 |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와도 글을 멈추지 마

너도 이런 적 있지? 경제·과학 글의 첫 문장부터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겁이 날 수 있어.

[짧은 예문] “완충 장치란 외부 충격이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영향을 줄이는 장치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이용자가 늘어도 대기열이 한 번에 폭증하지 않게 한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모르는 용어에 X표를 하고 곧바로 다음 문장으로 가. ‘란’ 뒤의 뜻과 ‘예를 들어’ 뒤의 사례를 먼저 봐. 완충 장치는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하면 충격을 줄이는 역할이야. 이제 필요한 만큼만 뜻을 잡으면 돼.

[이것만은 조심!] 모르는 말이 있다고 모든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려 하면 글의 연결을 놓치기 쉬워. 반대로 그 단어가 질문의 핵심이라면 대충 넘기지 말고 정의 문장으로 돌아와.

[이제 네 차례] “정규화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측정한 값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일이다.” 정규화를 한 문장으로 바꿔 설명해 봐.

[스스로 확인] 용어의 정의와 글 속 역할을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03 | 문단마다 한 단어만 남겨도 길을 잃지 않아

너도 이런 적 있지? 세 번째 문단을 읽을 때 첫 문단이 기억나지 않는 학생에게 필요해.

[짧은 예문] 1문단: 새로운 앱 출시 계획. 2문단: 개인정보 보호 심사. 3문단: 심사 지연으로 출시 연기. 4문단: 다음 달 재심사 예정.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각 문단의 문장을 전부 외우지 말고 ‘계획 → 심사 → 지연 → 재심사’라고 적어. 질문이 ‘왜 늦어졌나?’라면 세 번째 문단으로 돌아오면 돼. 표시하는 목적은 암기가 아니라 다시 찾을 위치를 만드는 거야.

[이것만은 조심!] 각 문단 옆에 긴 요약문을 적다가 읽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한 단어 또는 아주 짧은 말로 충분해.

[이제 네 차례] 글이 ① 문제 제기 ② 기존 방법의 한계 ③ 새 방법 ④ 예상되는 예외 순으로 이어진다면, 답의 한계를 찾는 질문은 어디를 다시 읽어야 할까?

[스스로 확인] 문단의 역할과 재방문할 위치를 설명하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04 | 다 읽은 뒤 남겨야 할 건 핵심 관계야

너도 이런 적 있지? 글의 단어는 기억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짧은 예문] 이용자는 늘었다. 그러나 관리자 수는 그대로였다. 그래서 평균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이후 예약제가 도입되자 대기 시간은 줄었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이 글을 네 단어로 만들면 ‘이용 증가 → 인력 그대로 → 대기 증가 → 예약제 도입’이야. 핵심은 각각의 단어보다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기억하는 거야. 질문이 원인을 묻는다면中间的 ‘인력 그대로’를 놓치면 안 돼.

[이것만은 조심!] ‘예약제가 도입됐다’라는 마지막 문장만 남기면 무엇 때문에 도입됐는지 설명할 수 없어. 원인과 결과를 묶어 기억해.

[이제 네 차례] “비용 상승 → 가격 인상 → 구매 감소 → 대체 상품 탐색”을 보고, 구매 감소가 왜 나타났는지 한 문장으로 말해 봐.

[스스로 확인] 한 문장 요약할 때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05 | A와 B가 나오면 먼저 서로 다른 점을 찾아

너도 이런 적 있지? 두 학자나 두 정책이 나오면 설명이 뒤섞일 때 쓰는 기술이야.

[짧은 예문] A안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다. B안은 새 인력을 뽑는다. 두 안 모두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왼쪽에 A, 오른쪽에 B를 적고 한 줄씩 비교해. 목표는 같아. 인력 확보 방법만 달라. 그럼 ‘두 안은 목적이 다르다’는 선택지는 바로 걸러낼 수 있지. 다음에 비용이나 승인 절차가 나온다면 그 항목도 나란히 표시해.

[이것만은 조심!] 비교 문제를 풀 때 A의 설명을 B에게 옮겨 붙이는 실수가 많아.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

[이제 네 차례] “P는 오차를 줄이려 같은 조건을 유지한다. Q는 여러 조건을 함께 바꿔 복합적인 변화를 살핀다.” 두 방식의 공통 목적과 다른 방법을 적어 봐.

[스스로 확인] A/B를 주체·목적·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06 | 조건 한 줄이 정답을 뒤집을 수 있어

너도 이런 적 있지? ‘신청하면 승인’과 ‘승인하려면 신청’은 같은 말일까?

[짧은 예문] “회원은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예약한 뒤 결제를 완료해야 입장이 확정된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예약할 수 있다는 자격과 입장이 확정되는 조건은 달라. 회원이 됐다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결제 완료가 더 필요하거든. 조건을 읽을 때는 ‘A가 맞아도 B가 자동으로 되는가?’를 물어봐.

[이것만은 조심!] ‘A를 하려면 B가 필요하다’는 말은 B만 하면 A가 반드시 된다는 뜻이 아니야. 필요한 조건과 그것만으로 충분한 조건을 구별해야 해.

[이제 네 차례] “지원하려면 온라인 접수가 필요하며, 접수 후 별도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지급된다.” 접수만 한 사람에게 지급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확인] 조건을 빼거나 뒤집은 선택지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07 | 두 일이 함께 일어나도 원인은 따로 확인해

너도 이런 적 있지? 수능 경제·사회·과학 지문에서 특히 자주 필요한 사고 동작이야.

[짧은 예문] 우산 판매량과 교통 체증이 같은 날 늘었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우산을 많이 팔아서 차가 막혔다고 결론 내리면 이상하지? 비가 많이 온 날이라는 제3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 확인된 사실은 두 현상이 함께 늘었다는 것이고, 원인을 말하려면 다른 설명도 살펴봐야 해.

[이것만은 조심!]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서 ‘A 때문에 B가 생겼다’로 건너뛰는 선택지를 조심해. 반대로 다른 원인이 있다고 A의 영향이 0이라고 단정해도 안 돼.

[이제 네 차례] 어느 도시에 공원이 개장한 뒤 카페 매출이 늘었어. 같은 달 축제가 있었다면 ‘공원만의 효과’를 바로 확정할 수 있을까?

[스스로 확인] 관찰된 값과 원인에 대한 주장을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08 | 누가, 언제, 어느 단계인지 구분해

너도 이런 적 있지? 정책·법·경제 지문은 단계가 많아 이름만 비슷해도 헷갈려.

[짧은 예문] 신청 1,000건 → 심사 통과 820건 → 계약 700건 → 서비스 개시 650건.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이 순서를 먼저 화살표로 그려 봐. “심사 통과 건수”를 물으면 820이고, “실제로 시작한 건수”를 물으면 650이야. 앞 단계가 끝나도 다음 단계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지. 또 누가 승인했는지와 누가 실행했는지도 다를 수 있어.

[이것만은 조심!] ‘예정’, ‘승인’, ‘시행’, ‘완료’는 하나로 뭉뚱그리면 안 돼. 과거 자료와 앞으로의 계획도 다르게 읽어야 해.

[이제 네 차례] “위원회가 법안을 의결했고, 시행령이 마련된 뒤 내년에 집행할 예정이다.” 지금 완료된 것과 아직 예정인 것을 나눠 봐.

[스스로 확인] 절차마다 숫자·시점을 다시 설명할 수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09 | 숫자는 계산보다 질문의 기준을 먼저 봐

너도 이런 적 있지? 큰 숫자가 눈에 띄면 정답처럼 느껴질 수 있어.

[짧은 예문] A반 20명 중 16명 참가, B반 100명 중 50명 참가.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참가자 수는 B반 50명이 많지만, 참가율은 A반 $16 \div 20 = 80\%$ 가 더 높아. 질문이 ‘사람 수’를 묻는지 ‘비율’을 묻는지부터 확인하자. 백분율의 차이를 말할 때 %와 %포인트도 나눠 생각해.

[이것만은 조심!] 서로 다른 집단·기간·단위의 숫자는 그대로 비교하지 마. 평균도 모두의 실제 값을 뜻하지 않아.

[이제 네 차례] 작년 만족률 40%, 올해 50%. 몇 %포인트 올랐고, 원래 비율에 비해 몇 % 늘어난 걸까?

[스스로 확인] 분모·분자·기간·단위를 말할 수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10 | 글에 있는 말과 내가 추측한 말을 나눠

너도 이런 적 있지? 추론은 상상력이 아니라 근거를 연결하는 일이야.

[짧은 예문] “야간 운영이 시작된 곳은 8곳이고, 시작하지 못한 곳은 안전 점검이 남아 있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8곳의 운영 시작과 나머지 시설의 점검 미완료야. 다른 시설이 언제 시작할지는 알 수 없지. “곧 모두 시작할 것이다”는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글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것만은 조심!] ‘가능성’, ‘추정’, ‘확정’, ‘증명’처럼 말의 세기를 구별해. 근거가 없는 선택지는 그럴듯해도 정답이 될 수 없어.

[이제 네 차례] “응답자 100명 중 70명이 동의했다.” 이 자료만 보고 ‘전체 이용자의 70%가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확인] 근거가 허용하는 범위와 넘어서면 안 되는 범위를 구별하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11 | 〈보기〉는 새로운 글이 아니라 적용 문제야

너도 이런 적 있지? 〈보기〉가 나오면 갑자기 지문을 다시 처음부터 읽게 되니?

[짧은 예문] 규칙: “결제를 마쳐야 입장이 확정된다.” 상황: “민지는 예약을 했지만 결제하지 않았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① 지문에서 규칙을 한 줄로 정리해. ② 〈보기〉에서 관련 조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해. ③ 각 선택지가 그 조건을 맞게 썼는지 비교해. 민지는 예약만 했으므로 입장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어.

[이것만은 조심!] 〈보기〉의 새로운 소재에 흔들리지 마. 무엇을 넣어야 하는 규칙인지 찾아야 해. 복합 문제는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이제 네 차례] 규칙: 두 가지 승인 A와 B를 모두 받아야 입고할 수 있다. 〈보기〉: A만 승인받은 창고는 입고 가능한가?

[스스로 확인] 지문 규칙과 〈보기〉 사실을 따로 적고 연결할 수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12 | 두 개가 남으면 둘의 차이부터 비교해

너도 이런 적 있지? 마지막 두 선택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쓰는 학생에게 특히 필요해.

[짧은 예문] ① “일부 시설은 점검을 마쳤다.” ② “모든 시설은 점검을 마쳤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비슷한 문장을 통째로 다시 읽는 대신 ‘일부/모든’만 동그라미 쳐. 이제 원문에서 점검 완료 수를 확인해. 10곳 중 8곳이라면 ①은 맞고 ②는 틀려. 반대로 10곳 모두 완료했다면 ②도 참일 수 있지.

[이것만은 조심!] ‘모든’, ‘반드시’가 보인다고 자동으로 오답 처리하지 마. 단어를 먼저 찾고 근거로 판정하는 것이 요령이야.

[이제 네 차례] “증가할 수 있다”와 “반드시 증가한다” 중 어느 표현이 지문 근거와 가까운지 확인할 문장은 무엇일까?

[스스로 확인] 두 선택지의 결정적인 차이와 근거 문단을 함께 지목하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13 | 현대시와 소설은 누가 느끼는지부터 구분해

너도 이런 적 있지? 슬픈 표현이 나오면 인물 모두 슬프다고 해석해도 될까?

[짧은 예문] “나는 창가의 불을 오래 바라보았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커튼을 닫았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나’가 느끼는 것과 동생이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눠 읽어. 커튼을 닫았다는 행동에서 여러 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작품에 근거가 부족하다면 ‘분노했다’처럼 한 가지 감정을 확정하면 안 돼. 현대시는 화자와 이미지, 현대소설은 사건과 인물 관계를 같이 보자.

[이것만은 조심!] 말한 사람·보는 사람·서술하는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어. 작품 속 객관적인 행동과 해석을 구별해야 해.

[이제 네 차례] 창작 문장: “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이유를 단정하지 않고 두 가지 가능성으로 적어 봐.

[스스로 확인] 정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실제 표현을 가리킬 수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14 | 고전은 어려운 옛말보다 상황을 먼저 잡아

너도 이런 적 있지? 모르는 고어 하나 때문에 작품 전체가 막막할 때의 방법이야.

[짧은 예문] “먼 길을 떠나는 벗을 바라보니, 마음은 붙잡고 싶으나 발길은 보내야 한다.” (수업용 창작 문장)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옛말을 전부 현대어로 바꾸기 전에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말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 떠나는 벗을 바라보는 상황, 붙잡고 싶은 마음, 보내야 하는 행동이 보이지? 고전시가는 화자·상대·정서를, 고전소설은 사건·신분 관계·서술자의 평가를 먼저 살펴봐.

[이것만은 조심!] 옛날 작품이라고 모두 같은 정서가 있는 건 아니야. ‘충절’, ‘효’, ‘풍자’처럼 익숙한 단어를 근거 없이 끼워 넣으면 위험해.

[이제 네 차례] 창작 문장: “빈 창고를 보는 관리는 장부에는 풍년이라 쓰고, 마을 사람은 내일의 끼니를 걱정했다.” 무엇이 겉말과 실제 형편 사이의 차이인지 적어 봐.

[스스로 확인] 시대와 갈래를 참고하면서도 작품 속 표현으로 판단하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학습 기술 15 | 화작·언매는 보이는 규칙을 실제 상황에 써 보는 과목이야

너도 이런 적 있지? 선택과목이 쉬운 문제만 모인 곳이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자.

[짧은 예문] 화작: 발표문에서 “설문 결과를 소개한 뒤 해결책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언매: 예시 자료에 제시된 음운·문장 규칙을 새로운 단어 또는 문장에 적용한다.

[제이든양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 화작은 실제로 말한 내용·대상의 요구·고친 결과를 서로 대조해. 언매는 용어를 외우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제시된 규칙을 새 사례에 적용해. 두 과목 모두 질문의 요구와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같아.

[이것만은 조심!] 화작은 자료에 없는 내용을 발표자가 실제로 말한 것처럼 바꾸는 오류를 조심해. 언매는 모르는 현상을 외운 규칙으로 억지 설명하지 말고 제시된 형태와 조건부터 확인해.

[이제 네 차례] 화작: “청중의 질문을 반영했다”가 맞으려면 무엇을 확인할까? 언매: 규칙의 적용 조건이 둘일 때 한 조건만 확인하면 충분할까?

[스스로 확인] 자료·규칙·적용 사례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면 통과.

[적용 연결] 질문이 요구한 판단을 확인하고, 지문에서 근거 위치를 찾은 다음, 선택지의 단어가 바뀌었는지 점검해. 자세한 종합 적용은 제4·5부에서 보여 줄게.

제2부. 시험장에서 바로 쓰는 12가지 실전 TIP

국어 공부를 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중심 내용을 찾아라.” “근거를 확인해라.” “선택지의 함정을 피해라.”

그런데 누군가 그 방법을 실제로 보여 주지 않으면, 알고도 못 써먹는 말이 돼. 이 책은 어려운 말을 하나씩 쉬운 말로 풀고, 선생님이 먼저 보여 준 뒤 네가 따라 하도록 만들었어.

[오늘의 약속] 문제 하나를 맞혀도 “왜 맞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해. 틀려도 괜찮아. 다만 어디서 헛갈렸는지를 알아내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어. 모든 글을 같은 순서로 읽을 필요는 없어. 문제에 따라 읽는 방법을 바꿔도 돼.

공부 순서

- ① 짧은 글에서 연습하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배운다.
- ② 선생님 풀이 따라가기: 어디서 멈추고 무엇을 표시하는지 본다.
- ③ 긴 글 혼자 풀기: 처음 보는 지문으로 실험한다.
- ④ 틀린 이유 기록하기: 다음에 바꿀 행동을 하나 고른다.

시작하기

어려운 말을 먼저 쉬운 말로 바꿔 보자

발문이라고 하면 어렵지? 그냥 **문제에서 묻는 문장**을 말해. 예를 들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 발문이야.

근거는 내가 고른 답이 맞다는 **글 속의 증거**야. “왠지 3번 같아”가 아니라 “2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3번이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문단은 줄을 바꾸어 구분해 놓은 글의 덩어리야.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앞뒤로 연결돼 있어.

추론은 글에 그대로 적힌 말만 찾는 게 아니야. 글이 알려 준 사실을 연결해서 **말하지 않은 결론을 조심스럽게 알아내는 것**이야.

〈보기〉는 문제를 풀 때 추가로 주는 상황이나 자료야. 지문에서 배운 규칙을 새로운 상황에 써 보라는 뜻일 수 있어.

[기억하면 좋은 한 문장] 모르는 말이 나오면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에서 멈추지 말고 ‘이 문제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이지?’로 바꿔 봐.

제1수업 · 나의 막힘 찾기

읽기 전 1분, 지금 내 상태는?

긴 글을 읽을 때 모두 같은 이유로 틀리는 건 아니야. 먼저 네가 어디서 막히는지 살펴보자.

[A. 읽다가 멈춘다] 앞부분을 세 번쯤 읽고도 다음 문단으로 못 넘어간다면, 한 문장을 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핵심 인물과 사건만 잡는 훈련이 필요해.

[B. 다 읽었는데 남는 게 없다] 문단마다 대충 무슨 이야기였는지 한 단어씩만 적어 봐. 예: “계획 → 심사 → 실행 → 결과”. 이 네 단어는 글의 지도가 돼.

[C. 이해했는데 선택지가 헷갈린다] 정답처럼 보이는 두 문장을 비교해. ‘가능하다’와 ‘반드시’, ‘일부’와 ‘모두’처럼 서로 다른 표현을 찾아 지문으로 돌아가.

[D. 풀 수는 있지만 시간이 모자란다] 문제 하나에서 멈춘 시간을 기록해. 다시 돌아올 문단을 표시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어.

한 사람에게 A~D가 모두 나타날 수도 있어. 처음 진단 하나로 네 실력을 단정하지는 않을 거야.

제2수업 · 제이든양 선생님의 첫 번째 비법

문제부터 읽어도 된다고?

선생님이 예전에 아이들에게 알려 준 방법부터 시작해 보자.

“긴 글이 나오면 먼저 질문부터 훑어봐. 무엇을 찾는지 알고 읽으면, 글을 읽는 목적이 생겨.”

같은 글, 다른 읽기

[질문 A] “사업을 실제 시작한 도서관은 몇 곳인가?” → **숫자 하나**를 찾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질문을 먼저 보면 관련 문장을 빨리 찾을 수 있어.

[질문 B] “이 정책의 효과를 왜 바로 확정할 수 없는가?” → **여러 사실을 연결**해야 해. 한 문장에서 숫자만 찾는 것으로는 부족해.

같은 지문이라도 A는 필요한 정보를 찾는 일이 먼저고, B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일이 먼저일 수 있어.

문제를 먼저 볼 때, 딱 세 가지만

- 질문을 읽고 “무엇을 묻지?”라고 스스로 말해 본다.
- 숫자·인물·특정 단계처럼 찾을 대상이 있으면 기억한다.
- 지문을 읽으면서 찾았더라도 **앞뒤 문장**을 더 읽고 확인한다.

제2수업 · 문제 먼저 보기, 이어서

정답처럼 보이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

문제를 먼저 보는 것과 선택지 다섯 개를 먼저 읽고 답을 짐작하는 것은 달라.

선택지를 먼저 읽으면 그 말이 머리에 남아 지문을 읽을 때도 똑같은 단어만 찾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선택지에는 틀린 표현이 섞여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선생님의 실제 판단] “나는 먼저 질문만 빠르게 볼 거야. 찾아야 할 게 ‘운영을 시작한 곳의 수’네.” “이제 지문에서 실제 운영이 시작됐다는 부분을 찾자. 앞의 ‘예산 승인’ 부분과 헷갈리지 말아야지.” “숫자를 찾았어도 바로 찍지 말고, 질문이 ‘승인된 수’인지 ‘시작한 수’인지 다시 볼 거야.”

이럴 때는 글부터 읽어

- 글쓴이의 중심 주장이나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경우.
- 두 이론을 비교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야 하는 경우.
- 인물의 감정이 앞뒤 사건에 따라 바뀌는 문학 지문.

문제를 먼저 읽으면 언제나 빠르다는 규칙은 없어. 네가 어떤 문제에서 더 정확한지 직접 비교해 볼 거야.

제3수업 · 질문에 있는 작은 함정

“옳지 않은 것”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

다섯 선택지를 모두 제대로 판단했는데 정답을 틀리는 경우가 있어. 질문을 끝까지 읽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시: 같은 선택지, 다른 질문] 질문 ① “다음 중 옳은 것은?” → 맞는 내용을 골라야 해. 질문 ②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틀린 내용을 골라야 해. 내용을 똑같이 알고 있어도 질문 끝의 ‘옳은’을 놓치면 답이 뒤집혀.

선생님은 이렇게 읽어

① 무엇에 대한 질문인지 표시해. ② 맞는 것을 찾는지 틀린 것을 찾는지 표시해. ③ 지문 전체인지, 한 인물의 관점인지 확인해.

예를 들어 “A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면 네 생각을 묻는 게 아니야. A라면 어떻게 판단할까? 를 먼저 생각해야 해.

[한 줄 정리] 질문에 표시할 것은 세 가지: 누구의 이야기인지 / 무엇을 판단할지 / 맞는지 틀린지.

제4수업 · 문단마다 이정표 세우기

글을 다 읽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면

모든 문장을 외우려 하면 너무 힘들어. 대신 문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기억해 봐.

[아주 짧은 글] ① 학교가 급식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②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③ 예산 승인이 늦어져 시행일이 미뤄졌다.

이걸 모두 외우지 않아도 돼. 종이에 **계획 → 인력 → 시행 지연**이라고만 적어 봐.

나중에 “왜 시작이 늦어졌어?”라는 질문이 나오면 세 번째 문장을 다시 읽으면 되겠지. 이게 문단 위치를 기억한다는 뜻이야.

[선생님의 표시법] 문단 옆에는 아주 짧게 적어: 계획 / 절차 / 결과 / 다른 원인. 한 문단을 다 해석하려 애쓰기 보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알아내.

제5수업 · 마지막 두 선택지에서 멈출 때

“일부”가 “모두”로 바뀌면? 단어 하나가 답을 바꿔

마지막에 두 선택지가 남으면 정말 답답하지? 분명히 둘 다 읽은 내용 같은데, 자세히 보면 **딱 한두 낱말**이 다른 경우가 있어. 그 차이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어.

[먼저 연습] ① 일부 도서관은 준비를 마쳤다. ② 모든 도서관은 준비를 마쳤다.

지문에 “10곳 중 8곳이 준비를 마쳤다”고 적혀 있다면 ①은 맞는 설명이고 ②는 틀려. 하지만 ‘모든’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틀린 표현이 아니야**. 10곳 모두 준비했다면 ②가 맞을 수 있거든.

[제이든양 선생님의 한 문장] 두 선택지가 비슷하면 다른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그 단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의 앞뒤 문장으로 돌아가. 단어의 느낌이 아니라 **그 글의 사실**로 결정해.

시험장에서 자주 구별해야 할 표현 ① | 몇 명, 몇 번, 어느 범위?

- 일부 ↔ 모두·전부: “일부가 통과”했다고 했는데 “전원이 통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 한 곳 ↔ 여러 곳: “한 학교에서 관찰”했다고 했는데 “모든 학교에서 관찰”한 것처럼 넓혔는지 살펴봐.
- 적어도 ↔ 정확히: “적어도 3명”은 3명 이상이라는 뜻이야. 정확히 3명만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어.
- 많아야 ↔ 적어도: “많아야 5회”는 5회를 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적어도 5회”는 5회 이상이라는 뜻이야.
- 주로 ↔ 오직: “주로 아침에 이용”은 다른 시간 이용을 막지 않아. “오직 아침에만 이용”은 범위를 훨씬 좁혀.
- 대부분 ↔ 전부: “대부분 동의”는 반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전원 동의”와 달라.

시험장에서 자주 구별해야 할 표현 ② | 얼마나 확실한 말이지?

- 가능하다 ↔ 반드시 일어난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매번 영향을 준다”와 달라.

- **경향이 있다 ↔ 항상 그렇다**: 여러 번 자주 나타났다고 모든 경우에 똑같지는 않아.
- **추정했다 ↔ 확인했다**: “그럴 것으로 짐작했다”는 실제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야.
- **관련이 있다 ↔ 원인이다**: 함께 변하는 모습이 있다고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어.
- **보고되었다 ↔ 입증되었다**: 연구자가 주장이나 관찰 결과를 보고한 것과 다른 가능성까지 검토해 결론을 입증한 것은 달라.
- **예상했다 ↔ 완료했다**: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 “이미 시행했다”로 바뀌면 시점이 달라.

시험장에서 자주 구별해야 할 표현 ③ | 조건과 순서가 바뀌었나?

- **A이면 B ↔ B이면 A**: “회원이면 입장 가능”이라고 해서 “입장 가능한 사람은 전부 회원”이라는 뜻은 아니야. 문장에 다른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
- **A일 때만 B ↔ A이면 언제나 B**: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은 동의만 받으면 무조건 승인된다는 뜻이 아니야. 다른 심사가 필요할 수 있지.
- **그리고 ↔ 또는**: “학생증과 신청서가 모두 필요”와 “둘 중 하나만 필요”는 서로 다른 조건이야.
- **이전 ↔ 이후**: “승인 전에 검사”를 “승인 후 검사”라고 바꾸면 순서가 뒤집혀.
- **신청 ↔ 승인 ↔ 지급 완료**: 서류를 냈다고 승인된 것이 아니고, 승인됐다고 돈이 입금된 것도 아니야.
- **예외가 있다 ↔ 언제나 같다**: 지문에 예외 조건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무조건’이라는 선택지를 다시 확인해.

시험장에서 자주 구별해야 할 표현 ④ | 문학과 자료 해석에도 있어

- **인물이 말했다 ↔ 글쓴이가 인정했다**: 인물이나 연구자의 발언을 글 전체의 결론으로 바꾸지 마.
- **슬픔을 드러냈다 ↔ 절망을 확정했다**: 작품에서 정서가 나타나더라도 그 정도와 변화는 작품 속 표현으로 확인해.
- **개별 사례 ↔ 일반 원칙**: 한 사람의 행동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법칙처럼 바꾸지 마.
- **증가했다 ↔ 증가율이 높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 쪽이 비율도 더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닐 수 있어.

[한눈에 확인하는 연습] 지문: “20명 중 16명이 응답했고, 응답자 중 12명이 만족했다.”

- ① “응답자의 대부분이 만족했다.” → 12/16이니 맞는 설명이야.
- ② “조사 대상 20명 모두가 만족했다.” → 실제 확인한 만족자는 12명뿐이야.
- ③ “응답하지 않은 4명은 불만족했다.” → 그 네 사람의 생각은 조사로 확인되지 않았어.

학생이 외울 건 단어 목록 자체가 아니야. 어떤 단어가 달라졌는지 알아채고, 그 차이가 지문에 의해 확인되는지 판단하는 행동이 중요해.

제6수업 · 숫자 문제를 쉽게 보는 법

숫자는 커 보이는 것보다 기준이 중요해

제이든양 선생님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몇이야?”가 아니라 “**전체가 얼마인데 그중 몇이야?**”야.

먼저 말뜻부터 알아두자. **분모**는 전체를 몇으로 잡았는지이고, **분자**는 그 전체 중 우리가 세려는 대상이 몇인지야. ‘100명 중 30명’이라면 전체 100명이 분모, 해당하는 30명이 분자야. $30 \div 100 = 30\%$ 지.

예시 1. 사람 수와 비율은 다른 질문이야

A학교는 전체 100명 중 80명이 급식을 먹었어. B학교는 전체 1,000명 중 200명이 급식을 먹었어.

- “급식을 먹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 → B학교. 200명이 80명보다 많아.
- “전체 학생 중 급식을 먹은 **비율**이 높은 학교?” → A학교. A는 80%, B는 20%야.

[제이든양 선생님의 질문] 지금 문제에서 비교하는 게 **사람 수**야, 아니면 **전체 중 차지하는 비율**이야? 이걸 먼저 확인하면 숫자가 커 보여도 흔들리지 않아.

예시 2. ‘누구 중 몇 명’인지 단계가 달라지면 답도 달라져

신청자 800명 중 600명이 승인됐고, 승인된 600명 중 420명이 실제 혜택을 받았어.

- 승인율 = 승인 600명 ÷ 신청 800명 = 75%.
- 승인자 중 지급 완료 비율 = 지급 420명 ÷ 승인 600명 = 70%.
- 전체 신청자 중 지급 완료 비율 = 지급 420명 ÷ 신청 800명 = 52.5%.

분자는 비슷해 보여도 ‘전체를 누구로 잡았는지’가 바뀌면 계산도 달라져. 질문에 “신청자 중”인지, “승인자 중”인지 표시해.

예시 3. 20%에서 30%가 됐다는 건 10% 증가일까?

작년 만족도가 20%, 올해 30%였어.

- 차이는 $30\% - 20\% = 10\%$ 포인트(%p)야.
- 작년에 비해 만족도 비율 자체가 늘어난 정도는 $10 \div 20 = 50\%$ 증가야.

[왜 헷갈렸을까?] 20%에서 30%로 바뀐 걸 “10% 증가”라고만 쓰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지 모호해.

10%p 상승과 기존 20%에 비해 50% 상승은 다른 계산이야.

예시 4. 한 달 비용과 세 달 비용을 그대로 비교할 수 있을까?

A시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지출했어. B시설은 세 달 동안 210만 원을 지출했어. 지출 총액은 B가 더 크지만, 한 달 평균은 A가 100만 원, B가 70만 원이야.

단, 두 시설의 규모나 지출 항목이 다르면 한 달 평균만 맞췄다고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 기간을 맞춘 다음에도 '같은 내용을 비교하는지' 확인해야 해.

예시 5. 평균이 10이라고 모두 10인 건 아니야

네 명의 점수가 8점, 8점, 8점, 16점이면 평균은 10점이야. 하지만 실제로 10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평균 키가 12cm”라는 실험 결과도 식물 30개가 전부 12cm라는 뜻은 아니야. **평균값과 각 대상의 값을 구분**해야 해.

예시 6. 조사에 답한 사람과 전체 사람은 달라

이용자 1,000명 중 100명에게 설문을 받았고, 응답자 100명 중 90명이 만족했어. **응답자 만족 비율은 90%**야. 그렇다고 전체 이용자 1,000명 중 900명이 만족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어. 답하지 않은 900명의 생각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선생님의 세 가지 손가락 표시] ① 누구를 전체로 놓았지? ② 몇 명 또는 몇 개가 해당하지? ③ 단위·기간·집단이 같나? 이 세 가지만 확인하고 계산에 들어가.

[따라 해 봐] 300명 중 120명이 참여했다면 참여율은? **40%**. 참여자 120명 중 90명이 완료했다면 완료자 비율은? **75%**. 처음 300명 중 완료한 사람의 비율은? **30%**. 같은 90명이라도 어떤 전체와 비교하는지가 달라졌지.

제7수업 · 원인과 결과

함께 늘었다고 원인까지 알 수 있을까?

시험이 끝난 날 아이스크림 가게 매출이 올랐어. 학교 앞 영화관도 같은 날 손님이 늘었지.

두 일이 같은 날 일어났다는 건 알 수 있어. 하지만 **아이스크림 매출이 영화관 손님을 늘렸다고 결론 내려도 될까?** 그렇게 말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수능 지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새 도서관이 문을 연 뒤 주변 상점 매출이 늘었다.” → **관찰한 사실**. “주변 상점 매출은 전부 도서관 때문에 늘었다.” → **원인을 확정한 주장**. 같은 기간에 축제가 열렸다면 도서관의 영향만 따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따라서 “함께 일어났다”와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다르게 읽어야 해.

[기억할 말] 먼저 확인된 사실을 찾고, 원인이라고 말하려면 다른 이유도 살펴봐.

제8수업 · 규칙을 새 상황에 써 보기

〈보기〉가 나왔다고 새 내용을 외울 필요는 없어

어떤 가게는 물건을 산 사람에게 쿠폰을 주되, **결제까지 마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게 했어.

이제 〈보기〉에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아직 결제하지 않은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먼저 규칙을 찾으려면 돼. **결제 완료**가 조건이었지. 장바구니에 담는 것만으로는 아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야.

[선생님의 세 단계] ① 지문에서 규칙 찾기: “결제까지 해야 사용 가능.” ② 〈보기〉의 상황 확인: “장바구니만 담음.” ③ 하나씩 대조하기: 결제를 하지 않았으니 사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어려운 〈보기〉 문제도 기본 동작은 같아. 다만 여러 조건이 함께 있으면 하나씩 확인해야 하고, 필요할 때는 지문 전체로 돌아가야 해.

제9수업 · 문학의 기본

문학은 ‘누가 말했는지’부터

소설에서 민수가 “괜찮아.”라고 말했어.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에 “민수는 손을 떨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해 보자.

민수가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았을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이지?

이때 **등장인물이 한 말, 실제로 한 행동, 글을 들려주는 사람이 설명한 내용**을 구분해서 읽어야 해.

[선생님의 읽는 순서] ①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②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인지 비교한다. ③ 감정을 추측하더라도 글에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확정하지 않는다.

고전문학도 마찬가지야. 단어를 전부 현대어로 바꾸지 못해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처지에서 말하는지를 먼저 잡아 보자.

한눈에 다시 보기 · 외울 목록이 아니라 행동 목록

선생님이 실제로 쓰는 12가지 요령

01. 질문을 먼저 훑을 때: 무엇을 찾는지 정한 다음 앞뒤 문장까지 확인하기

02. 맞는지 틀린지: 질문 끝의 “않은” 표시하기

03. 문단 위치: 계획·이유·결과처럼 한 단어만 기억하기

04. 모르는 단어: 잠깐 넘기고 뒤의 설명·예시 확인하기

- 05. A/B 비교: 서로 다른 점 하나씩 옆에 적기
- 06. 숫자 문제: 전체가 누구인지, 기간이 같은지 확인하기
- 07. 선택지 바뀐 말: 일부/모두, 가능/반드시를 지문과 비교하기
- 08. 마지막 두 선택지: 서로 다른 낱말을 찾고 근거로 돌아가기
- 09. <보기>: 지문의 규칙과 새로운 상황의 조건 짝짓기
- 10. 문학: 말·행동·서술자의 설명 나누기
- 11. 막히는 문제: 돌아올 위치 표시하고 다음 문제 풀기
- 12. 정답을 골랐다면: 질문이 요구한 판단과 맞는지 마지막 확인하기

이 12가지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 바로 뒤에서 긴 글을 풀면서 몇 개씩 써 볼 거야.

제3부. 한 문제에 몇 분? 시간을 다루는 법

[제이든양 선생님의 첫마디] “시험에선 정확하게 읽는 것만큼, 언제 넘어갈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문제 하나는 무조건 1분!’이라는 규칙을 외우지는 마. 긴 지문을 먼저 읽는 시간과 질문을 판단하는 시간은 다르거든.”

80분과 45문항: 평균 1분 47초의 함정

2027학년도 수능 국어는 80분에 45문항을 풀어야 해. 80분은 4,800초니까 한 문제당 평균 약 107초(1분 47초)야. 그런데 이건 단순 평균일 뿐이야. 지문을 읽는 시간, 선택지를 확인하는 시간, 답안지를 마킹하는 시간까지 모두 합쳐서 나눈 숫자지.

학교에서 책을 읽은 다음 질문 네 개를 푸는 상황을 떠올려 봐. 처음 읽는 데 4분이 걸리고 질문 네 개를 각 1분씩 풀었다면 모두 8분이지? 질문 하나만 1분이 걸렸다고 해서 전체 세트가 4분에 끝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은 문제 하나보다 ‘지문 한 세트’로 관리하는 게 좋아.

[학생에게 남기는 한 문장] 한 문제당 목표 시간은 참고값, 지문을 포함한 세트 시간은 실제 약속! 둘을 섞어서 계산하지 마.

선생님이 제안하는 세 가지 80분 계획

[시간 배분 계획 A · 균형형] 독서 33분 / 문학 26분 / 선택과목 16분 / 마킹·확인 여유 5분 = 80분.

[시간 배분 계획 B · 독서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독서 38분 / 문학 24분 / 선택과목 14분 / 여유 4분 = 80분.

[시간 배분 계획 C · 문학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독서 31분 / 문학 31분 / 선택과목 14분 / 여유 4분 = 80분.

이 세 계획은 평가원이 제시한 권장 시간표가 아니라 **교재에서 연습할 가상의 출발점**이야. 개인의 강점과 시험지의 실제 난도에 따라 바뀔 수 있어. 또 문제를 푸는 순서가 다르면 분배 방식도 달라져. 하나를 외우게 하지 않고 모의 연습에서 정확도와 시간을 함께 재 본 뒤 골라야 해.

[제이든양 선생님의 질문] “선택과목은 빠르는데 독서에서 매번 시간이 부족해? 그럼 독서 시간을 늘리는 계획 B를 실험해 봐. 그런데 선택과목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면 맞는 계획이 아니겠지. 시간을 줄이기만해서는 점수가 오르지 않아.”

한 지문을 푸는 시간표: 4문항 세트 예시

실전형 장문 지문 하나에 질문 네 개가 붙었다고 가정해 보자. 총 10~12분을 첫 연습 목표로 잡을 수 있어. 지문 훑고 읽기 4~5분, 질문 네 개 판단 5~6분, 근거·마킹 확인 1분이야. 짧은 지문이나 쉬운 문항은 더 짧을 수 있고, 어려운 <보기>나 문학 복합 지문은 더 걸릴 수 있어.

[실제로 기록할 것] 이번 지문을 읽은 시간 ____분 ____초 / 네 문제 풀이 시간 ____분 ____초 / 확인 시간 ____초 / 총 ____분 ____초 / 맞힌 문제 ____개.

[주의] ‘4문항 세트는 반드시 10분’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문 길이와 난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시간은 목표의 출발점일 뿐, 정확도와 근거를 잃고 빨라진 건 실력 향상이 아니야.

천천히 배우는 시간과 시험 시간은 다르다

처음 배우는 날에는 풀이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느라 4문항에 10~12분을 쓸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속도를 그대로 45문항에 적용하면 80분을 넘을 수 있어. 그러니 이 숫자는 처음 익히는 훈련 목표야. 다음에는 새 지문으로 8~10분처럼 조금 더 짧게 시도할 수 있지만, 처음보다 빨라지기 위해 근거 확인을 생략해서는 안 돼. 마지막 실전 속도는 45문항 전체를 80분 안에서 풀어 본 결과로 판단하자.

[선생님의 순서] 1단계 정확하게 풀기 → 2단계 처음 보는 새 지문에서 시간 줄여 보기 → 3단계 45문항 전체 80분 리허설. 빨라졌는데 오답이 늘었다면 2단계로 다시 돌아가면 돼.

질문마다 시간이 다르게 걸리는 건 정상일까?

선생님이 시범으로 잡아 보는 개별 문항 판단 시간은 이 정도야. 지문의 정보 한 곳을 확인하는 질문은 약 50~90초, 두 개념을 비교하거나 기준을 계산하는 질문은 약 70~110초, 복잡한 <보기>를 적용하거나 근거가 여러 문단에 흩어진 질문은 약 90~150초를 첫 연습 범위로 잡아 볼 수 있어. 이 숫자는 지문을 읽는 시간을 뺀 문항 판단 시간이고, 학생마다 달라질 수 있는 연습 목표야.

그러니까 ‘1분 30초가 넘었으니 무조건 찍어’가 아니야. 질문이 요구한 작업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보고 시간을 다르게 쓰는 연습이 필요해. 정확하게 풀고 근거를 찾은 시간을 먼저 기록해야 다음에는 무엇을 고칠지 알 수 있어.

[문항별 체크] 질문 번호 ____ / 유형(내용확인·비교·수치·<보기>·추론) ____ / 판단 시간 ____초 / 근거를 확인했나? 예·아니오 / 다시 풀 때 줄일 행동 ____.

8문항 연습 세트는 왜 더 시간이 필요할까?

이 교재의 가상 도서관 A와 식물 실험 B는 각각 8문항이 달린 교육용 종합 훈련이야. 실제 수능에서 이와 똑같은 8문항 세트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야. 두 지문은 많은 기술을 한꺼번에 써 보기 위해 특별히 만든 수업이니까 처음에는 17~20분, 다음 시도에는 15~18분을 실험 목표로 삼자. 단, 처음 보는 지문으로 해야 효과를 비교할 수 있어. 이미 답을 기억한 상태의 재풀이는 빨라져도 평가로 보지 마.

[학생용 시간 기록] 도서관 A: 목표 ____분 / 실제 ____분 / 정답 ____/8 / 근거를 못 찾은 문항 ____ / 멈춘 이유 ____.

[학생용 시간 기록] 과학 B: 목표 ____분 / 실제 ____분 / 정답 ____/8 / 근거를 못 찾은 문항 ____ / 멈춘 이유 ____.

30초만 더 볼까? 아니면 넘어갈까?

틀린 답을 급하게 고르라는 뜻이 아니야. 이미 두 번 읽었는데도 새로운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똑같이 읽는 데 시간을 더 쓰지 말라는 뜻이야. 막힌 문항에 별표를 해 두고 다른 문제를 풀었다가 돌아오는 방법을 연습해.

[선생님의 실전 시범] “문제를 1분쯤 봤는데 두 개가 남았네. 둘의 차이를 찾아서 근거 문단으로 한 번 돌아가 볼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30초 정도 더 쓰기 전에, 뒤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시해 둘 거야.”

이 ‘1분+30초’는 무조건 지켜야 할 공식 시간이 아니라 **훈련용 신호**야. 처음 읽은 <보기>가 길거나 새 계산이 필요하면 충분히 더 쓸 수 있어. 핵심은 ‘지금 새롭게 확인 중인가,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바라보고만 있는가’를 구별하는 거야.

시간을 다 썼는데 빈칸이 남았다면?

연습할 때는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간을 반드시 남겨. 실제 시험에서는 응시 안내의 마킹·종료 지시를 따라야 해. 별표를 한 문항도 마지막에는 답안지에 어떤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 **마지막 순간에 모든 빈칸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처음부터 답안 표시 방식을 안정적으로 연습하자.

[제이든양 선생님의 한마디] “한 문항 때문에 3분을 잃은 날이 있다면, 그 문제를 틀렸다는 사실보다 ‘언제 멈춰야 했을까’를 복습해 봐. 네 다음 시험을 바꿔 줄 정보는 거기 있어.”

내 시간 약점 찾기: 정답률과 함께 보기

연습이 끝나면 세 가지만 기록하자. ① 총 시간 ② 맞힌 개수 ③ 근거 없이 찍은 개수. 시간을 줄였는데 근거 없이 찍은 문제가 늘었다면 좋은 변화라고 보기 어려워.

[연습 기록 1] 날짜 _____ / 소재 _____ / 목표 _____분 / 실제 _____분 / 정답 ____/____ / 근거 없이 고른 문제 ____개 / 다음에 바꿀 행동 _____.

[연습 기록 2] 날짜 _____ / 소재 _____ / 목표 _____분 / 실제 _____분 / 정답 ____/____ / 근거 없이 고른 문제 ____개 / 다음에 바꿀 행동 _____.

[연습 기록 3] 날짜 _____ / 소재 _____ / 목표 _____분 / 실제 _____분 / 정답 ____/____ / 근거 없이 고른 문제 ____개 / 다음에 바꿀 행동 _____.

[시간 훈련 안내] 여기 적힌 시간은 연습을 시작할 때 참고하는 목표야.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 난도와 네 풀이 습관에 맞춰 조절해. 중요한 것은 시간을 줄이면서도 정답의 근거를 놓치지 않는 거야.

새로운 긴 지문으로 옮겨 쓰는 연습

앞에서 배운 방법이 진짜로 쓸 만한지 확인할 차례야. 다음 두 지문은 **기출 원문과 다른 독립 창작 사례**야. 일부 문항에서는 두세 가지 요령을 한꺼번에 써야 해. 답을 확인하기 전에는 근거가 있는 문단 번호를 표시해 보자.

실전 확장 A — 지원금이 승인됐는데도 왜 전부 지급되지 않을까?

사회·경제·법적 절차 / 복합 판단 | 첫 학습 12~15분(지문 포함). 정확한 근거가 먼저, 속도는 다음 연습에서 조절.

[1] 가상의 도시 은솔시는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오른 가구를 돕기 위해 한시적인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그중 2억 원은 신청 심사와 안내 시스템 운영에 쓸 계획이다. 가구에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은 나머지 10억 원이다. 지원 단가는 승인 가구당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 사업의 절차는 신청 접수, 자격 심사, 승인, 지급 완료의 네 단계로 나뉜다. 시의회가 사업비를 의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신청자의 지급 자격이 생기거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2] 첫 달에 1만 1천 가구가 신청했다. 그중 8천 가구의 자격이 승인됐고, 3천 가구는 소득 자료의 확인이 끝나지 않아 심사 중이었다. 승인 가구 가운데 실제로 송금까지 끝난 가구는 7천 2백 가구였다. 승인된 8천 가구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려면 8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지급을 마친 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은 7억 2천만 원이다. 승인과 송금의 차이는 심사 절차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된 지원금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3] 지급 예산 10억 원 중 승인 8천 가구에 필요한 돈 8억 원을 제외하면 2억 원이 남는다. 심사 중인 3천 가구가 모두 승인된다면 추가로 3억 원이 필요하다. 단가는 승인 전후에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지급 자격을 이미 승인한 가구를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남은 심사 가구를 모두 지원하려면 별도의 재원이나 사업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심사 중인 3천 가구가 실제로 모두 승인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4] 일부 시민은 예산 발표와 동시에 지역 상점의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금의 일부가 지역에서 소비된다면 매출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온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같은 시기에 지역 할인 행사와 학교 방학이 겹칠 수 있다. 매출의 변화만 보고 원인을 한 가지로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지원금 지급액과 지역 상점에서 실제로 소비된 금액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5] 시가 발표 전후의 거래 자료를 모으자 지원 지역의 월 거래액은 10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증가했고, 비지원 비교 지역의 거래액은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다. 지원 지역의 증가액은 30억 원, 비교 지역은 20억 원이었다. 증가율은 각각 30%와 25%로 두 지역의 차이는 5퍼센트포인트이다. 그러나 두 지역의 인구 구성, 계절적 행사, 온라인 구매 비율이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증가율의 차이만으로 지원 정책의 순수한 효과가 5퍼센트포인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지원 정책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확정하는 것도 근거를 넘어서다.

[6] 시의 평가 담당자는 정책의 효과를 살피기 위해 다음 분기에는 신청·승인·지급 완료 단계별 가구 수와 소비 지역을 구분해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기간에 지원받지 않은 비교 지역의 거래 동향도 함께 살펴보고, 인구 구성과 다른 행사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그는 “관찰한 숫자는 중요하지만, 그 숫자로 어디까지 결론 낼 수 있는지를 따지는 일이 그다음”이라고 말했다.

독립 풀이 — 정답은 맨 뒤 해설에서

1. 다음 중 지원 사업의 단계와 금액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의회가 12억 원을 의결했으므로 신청한 1만 1천 가구에 대한 송금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
- ② 승인된 8천 가구의 약정 지원금은 8억 원이며, 현재 완료된 송금액 7억 2천만 원과는 구별해야 한다.
- ③ 심사 중인 3천 가구는 승인 가구이므로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이미 발생했다.
- ④ 심사비 2억 원이 있으므로 승인 가구 8천 가구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도 12억 원이다.
- ⑤ 승인 8천 가구 중 지급하지 않은 8백 가구는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가구에 해당한다.

내 답: _____ 근거 문단: _____ 확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2. 심사 중인 가구의 승인 여부와 예산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사 중인 3 천 가구가 모두 승인되면 추가 지원금 3 억 원이 필요하다.
- ② 승인 8 천 가구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한 뒤 지급 예산에는 2 억 원이 남는다.
- ③ 아직 심사 중인 3 천 가구가 실제로 모두 승인되었는지는 확정할 수 없다.
- ④ 현재 남은 2 억 원만으로 심사 중인 3 천 가구 모두에게 동일 단가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남은 심사 가구를 전부 지원하려면 별도의 재원 또는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내 답: ____ 근거 문단: ____ 확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3. 두 지역의 거래액 변화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원 지역의 증가액 30 억 원은 정책이 단독으로 만들어 낸 매출 증가액이라고 확정된다.
- ② 비지원 지역의 거래액도 늘었으므로 지원 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결론 낼 수 있다.
- ③ 거래액 증가율은 지원 지역 30%, 비교 지역 25%이지만, 조건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 격차를 정책 효과로 확정할 수는 없다.
- ④ 비교 지역의 증가액 20 억 원이 더 작으므로 그 지역의 소비자 수 역시 더 적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 ⑤ 지원 지역의 증가율이 5 퍼센트포인트 더 높으므로 주민 한 사람의 거래액도 모두 5% 증가했다.

내 답: ____ 근거 문단: ____ 확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4. <보기>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필요한 조건을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지원금을 받은 가구의 지역 소비가 늘었다면, 지원 지역의 상점 거래액 증가 전체가 지원금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 ① 지원받은 가구가 지역 소비를 늘린 사실만 확인하면 다른 정책이나 계절 요인은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 ② 지원 지역의 전체 거래액이 증가했으므로 해당 가구가 온라인에서 구입한 금액도 지역 상점 매출에 포함된다.
- ③ 지역의 거래액 변화가 관찰된 기간에 다른 행사·인구 구성·소비 경로가 어떠했는지 살펴야 정책의 순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④ 비지원 지역의 거래액이 증가했다면 지원 지역의 거래액 기록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
- ⑤ 지원받은 가구와 지원받지 않은 가구의 거래액이 같다면 정책의 결과가 자동으로 입증된다.

내 답: ____ 근거 문단: ____ 확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5. 다음 분기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승인 가구 수만 공개하고 지급 완료 및 실제 소비 지역은 조사하지 않는다.
- ② 지원 지역의 거래액만 관찰하여 이전보다 증가했다면 정책 효과를 확정한다.
- ③ 비교 지역과 지원 지역의 인구 구성 차이는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 ④ 지역 상점의 매출 증가를 지원금 총액과 항상 같은 금액으로 기록한다.
- ⑤ 신청·승인·지급 완료를 구분하고 비교 지역과 다른 행사 정보를 함께 확인한다.

내 답: ____ 근거 문단: ____ 확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실전 확장 B — 센서가 기록하지 않은 시간에 수위는 0이었을까?

과학·기술 / 측정과 비교 | 첫 학습 11~14 분(지문 포함). 자료의 측정 시점과 해석 가능 범위를 함께 확인.

[1] 가상의 강 하류에 설치된 수위 관측소는 홍수 경보를 위해 두 종류의 센서를 함께 사용한다. 센서 A는 1 분마다 측정 한 수위의 순간값을 저장하고, 센서 B는 10 분 동안 관측한 값의 평균을 하나씩 저장한다. A와 B는 같은 강에 설치되어 있지만 자료의 의미가 서로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B의 10 분 평균이 80cm 였다고 해서 그 10 분 동안 수위가 매 순간 80cm 였다는 뜻은 아니다. 순간적으로 100cm 까지 올랐다가 내려왔더라도 평균이 80cm 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측소는 각 센서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준자를 이용한 보정 작업을 한다. 평상시의 온도에서는 A의 측정값이 기준자보다 2cm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돼, A의 원시값에서 2cm를 빼는 보정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높은 온도에서 센서 부품의 길이가 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 관측소는 기온이 크게 오른 날에도 같은 보정식이 맞는지 별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평상시에 확인한 보정값을 모든 환경에서 아무 확인 없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어느 날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센서 A의 데이터가 통신 장애로 저장되지 않았다. 이 시간의 기록이 비어 있다고 하여 실제 강의 수위가 0cm 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관측소는 이 기간의 값을 결측으로 표시하고 다른 관측 지점의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지점의 값으로 비어 있는 시간을 추정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장소를 직접 측정한 값과 구별해서 보관해야 한다.

[4] 다음 날 관측소는 일부 기간의 수위를 비교해 센서 A의 보정된 값이 오전 10시 70cm, 10시 10분 90cm, 10시 20분 80cm 였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로 10분 사이의 수위 변화량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10시 5분에 최고 수위가 얼마였는지,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수위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올랐는지는 알 수 없다. 두 시점 사이에 물이 빠르게 올랐다 내려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5] 환경 담당자는 관측소 상류에 새 둑을 만들면 하류 최고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둑 공사 기간에 비가 적게 내리거나 강바닥 퇴적물이 제거되었다면, 공사 뒤의 하류 수위 감소를 오직 둑 공사만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담당자는 비가 온 양과 상류 유입량, 공사 전후의 지형 변화, 인근의 다른 관측 지점 자료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 둑의 영향이 강 하류 모든 구간에서 같은 정도로 나타날지는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6] 이처럼 수위 자료를 해석할 때는 측정한 대상과 시점, 측정 방법, 보정 조건, 빠진 자료의 처리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평균값은 그 구간의 모든 순간을 보여 주지 못하고, 한 환경에서 확인한 보정식이 모든 환경에서 그대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관측소의 결론은 센서가 실제로 관찰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독립 풀이 — 정답은 맨 뒤 해설에서

1. 센서 A와 B의 자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B의 평균값이 80cm이면 그 구간 동안 순간 수위도 항상 80cm이다.
- ② A가 1 분마다 기록하므로 통신이 끊긴 동안에도 그 장소의 수위는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 ③ A는 순간값을, B는 10 분 평균을 기록하므로 같은 시각의 자료라도 그대로 동일한 의미로 비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④ B의 10 분 평균으로 그 구간의 최고 수위를 언제나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 ⑤ A의 순간값과 B의 평균값은 단위가 같으므로 기록 주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내 답: ____ 근거 문단: ____ 확신 정도: ☐ 높음 ☐ 보통 ☐ 낮음

2. 센서 A의 보정식에 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상시에는 A의 원시값에서 2cm를 빼는 보정식이 사용된다.
- ② 높은 온도에서도 같은 보정식이 맞는지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③ 평상시에 확인한 오차가 모든 환경에서 반드시 똑같이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A의 원시값이 평상시 102cm라면 보정 후 수위는 100cm이다.
- ⑤ 평상시 2cm 오차를 확인했으므로 높은 온도에서도 검사 없이 같은 보정식이 정확하다고 확정할 수 있다.

내 답: ____ 근거 문단: ____ 확신 정도: ☐ 높음 ☐ 보통 ☐ 낮음

3. 오전 9시~9시 30분 기록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센서가 기록하지 않은 시간의 수위를 0cm로 입력하면 실제 수위가 0임을 확인한 셈이다.
- ② 다른 관측 지점의 자료로 추정한 값을 같은 위치에서 직접 측정한 값과 구분해야 한다.
- ③ 저장하지 못한 시간의 값은 실제 수위 변화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통신 장애가 있었으므로 9시 이전과 9시 30분 이후의 측정값까지 모두 무효 처리해야 한다.
- ⑤ 누락 기간에는 수위가 없었다고 간주하면 보정식을 적용할 필요도 없어진다.

내 답: ____ 근거 문단: ____ 확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4. 10시~10시 20분 자료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0시 10분에 90cm였으므로 10시~10시 10분 동안 매 순간 2cm씩 일정하게 상승했다.
- ② 10시 5분의 실제 수위는 70cm와 90cm의 산술평균인 80cm로 확정된다.
- ③ 10시~10시 10분 사이의 수위 변화량은 20cm이나, 사이 구간에서 최고 수위가 얼마였는지는 이 세 값만으로 알 수 없다.
- ④ 10시 10분의 수위가 90cm였으므로 10시 20분에도 90cm였다.
- ⑤ 10시 20분의 수위가 80cm이므로 처음부터 수위가 감소하기만 했음을 알 수 있다.

내 답: ____ 근거 문단: ____ 확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5. <보기>를 활용한 독 공사 효과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공사 후 하류 관측소의 평균 수위가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비가 적게 내렸으며 강바닥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도 진행되었다.

- ① 수위가 낮아졌으므로 그 감소 전부가 독 공사 때문이라고 결론 낼 수 있다.
- ② 비가 적게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면 강바닥 퇴적물 제거는 원인 검토에서 제외해도 된다.
- ③ 관측된 수위 감소 자체를 부정하고 공사 전 수위 기록도 폐기해야 한다.
- ④ 독 공사·강수량·퇴적물 제거의 영향을 구분하기 위한 비교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⑤ 평균 수위가 낮아졌으므로 강 하류의 모든 지점에서 최고 수위도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

내 답: ____ 근거 문단: ____ 확신 정도: ☐높음 ☐보통 ☐낮음

새 장문 — 선생님의 풀이 시범과 선택지 점검

실전 확장 A — 지원금이 승인됐는데도 왜 전부 지급되지 않을까?

1 번 정답: ②

근거가 되는 판단: 2 문단: 승인 8 천 가구와 지급 완료 7 천 2 백 가구를 구별한다. $8,000 \times 10 \text{ 만} = 8 \text{ 억}$, $7,200 \times 10 \text{ 만} = 7.2 \text{ 억}$. TIP02·06·08.

- ① 오답 — 의결된 사업비와 개별 송금 완료는 다르다.
- ② 정답 — 승인 금액 8 억과 송금액 7.2 억을 정확히 분리한다.
- ③ 오답 — 심사 중인 신청자는 아직 승인 가구가 아니다.
- ④ 오답 — 운영비 2 억은 가구 지급 예산에서 제외된다.
- ⑤ 오답 — 승인되었지만 지급 완료 전인 800 가구를 탈락 가구로 볼 수 없다.

2 번 정답: ④

근거가 되는 판단: 지급 예산 10 억-승인 필요액 8 억=2 억. 심사 중 전원 승인 시 3 억 필요. TIP 02·06·07.

- ① 오답 — 3 천 가구가 전원 승인될 경우의 조건부 계산이다.
- ② 오답 — 지급예산 10 억에서 승인 8 천 가구의 8 억을 먼저 뺀다.
- ③ 오답 — 심사 중이라는 상태와 승인됐다는 상태를 구분했다.
- ④ 정답 — 남은 2 억은 전원 승인 시 필요한 3 억보다 적다.
- ⑤ 오답 — 현재 설계의 단가를 유지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3 번 정답: ③

근거가 되는 판단: 5 문단: 증가율의 차이(5%p)는 관찰값, 정책 순수효과는 원인 판단. 둘을 같게 볼 수 없다. TIP 06·07·10.

- ① 오답 — 거래액 증가액 전체를 정책의 순수 효과라고 확정할 수 없다.
- ② 오답 — 비교 지역도 증가했으나 그것만으로 정책 효과가 0 이라고 증명되지 않는다.
- ③ 정답 — 30%와 25%는 관찰된 증가율이고 인과관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④ 오답 — 거래액 증가액 차이만으로 거주자 수의 차이를 알 수 없다.
- ⑤ 오답 — 지역 전체 증가율의 5%p 차이를 모든 주민의 동일한 증가율로 바꾸었다.

4 번 정답: ③

근거가 되는 판단: 4~6 문단: 상관관계나 동시 변화만으로 원인 단정 불가. TIP 09·10·12.

- ① 오답 — 정책 외에 소비에 영향을 준 조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오답 — 다른 지역 온라인 소비가 지역 상점 매출과 같은 것은 아니다.
- ③ 정답 — 사업 외 원인과 집단 차이를 확인하는 비교 자료가 필요하다.
- ④ 오답 — 원인을 확정하지 못해도 거래액이 변한 관찰 자체는 유지된다.
- ⑤ 오답 — 수혜·비수혜 가구의 거래액 비교 한 가지만으로 모든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

5 번 정답: ⑤

근거가 되는 판단: 6 문단: 단계 구분과 비교 가능한 대조 자료 확보. TIP 01·03·05·12.

- ① 오답 — 승인과 지급, 소비 지역의 차이가 사라진다.
- ② 오답 — 시계열에서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전후 비교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오답 — 인구 구성 차이는 비교 결과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④ 오답 — 지원금 지급액이 전부 지역 상점에서 소비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정답 — 지급 단계·비교 집단·다른 행사 정보를 함께 본다는 제안과 일치한다.

소요 시간: ____ 분 / 놓친 조건: ____ / 다음 행동: ____

실전 확장 B — 센서가 기록하지 않은 시간에 수위는 0이었을까?

1 번 정답: ③

근거가 되는 판단: 1 문단: 순간값과 구간 평균은 서로 다른 관찰 지표. TIP 02·05·06.

- ① 오답 — 구간 평균을 매 순간의 값으로 잘못 바꾸었다.
- ② 오답 — 통신 장애 구간의 값은 관찰되지 않았다.
- ③ 정답 — 1 분 순간값과 10 분 평균은 의미가 달라 비교 전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 ④ 오답 — 평균만으로 구간 최대값을 알 수 없다.
- ⑤ 오답 — 단위가 같더라도 측정 간격과 집계 방식이 다르다.

2 번 정답: ⑤

근거가 되는 판단: 2 문단: 보정 조건의 한계. TIP 03·07·10.

- ① 오답 — 원시값보다 2cm 높게 측정되므로 평상시에는 2cm 를 뺀다.
- ② 오답 — 기온이 높을 때의 보정 정확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③ 오답 — 한 환경에서의 보정 결과를 무조건 다른 환경에 확장할 수 없다.
- ④ 오답 — 102cm 에서 2cm 를 빼면 100cm 다.
- ⑤ 정답 — 높은 온도에도 무검증 적용해도 된다는 확정은 2 문단과 충돌한다.

3 번 정답: ②

근거가 되는 판단: 3 문단: 결측값과 실제 0, 추정값과 직접 측정값을 구분. TIP 07·10.

- ① 오답 — 빈 기록은 실제 수위가 0cm 라는 관찰이 아니다.
- ② 정답 — 다른 위치의 추정값과 같은 위치의 실제 측정값을 구별한다.
- ③ 오답 — 기록 공백은 수위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 ④ 오답 — 장애 구간 이외의 직접 측정값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오답 — 결측값을 실제 0 으로 바꾸면 자료에 없는 사실을 만든다.

4 번 정답: ③

근거가 되는 판단: 4 문단: 두 시점 변화량은 알 수 있지만 과정의 모든 순간은 모른다. TIP 03·06·10.

- ① 오답 — 두 시점 사이 상승량이 20cm 라도 변화 속도가 일정했다고 볼 수 없다.
- ② 오답 — 중간 시점의 값을 두 끝값의 평균으로 확정할 수 없다.
- ③ 정답 — 10 분 변화량 20cm 는 계산 가능하지만 구간 최고값은 자료만으로 미상이다.
- ④ 오답 — 10 시 20 분 측정치는 80cm 다.
- ⑤ 오답 — 10 시에서 10 시 10 분에는 수위가 증가했다.

5 번 정답: ④

근거가 되는 판단: 5 문단: 다른 원인의 동시 변화 확인 필요, 평균과 최고 및 일부·전체 범위 구별. TIP 05·10·12.

- ① 오답 — 독 외에 같은 기간 변한 조건이 있다.
- ② 오답 — 강수량과 퇴적물 제거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 같이 검토한다.
- ③ 오답 — 원인이 불명확하더라도 수위 감소라는 관찰은 사라지지 않는다.
- ④ 정답 — 복수의 동시 원인을 나눠 보기 위한 비교가 필요하다.
- ⑤ 오답 — 일부 관측소 평균 변화로 모든 하류 지점의 최고 수위 변화를 확정할 수 없다.

소요 시간: ____ 분 / 놓친 조건: _____ / 다음 행동: _____

제4부. 가상 도서관에서 12가지 실전 요령을 적용해 보기

가상 도서관과 식물 실험, 서로 다른 소재에서 같은 행동을 사용할 거야. 도서관에는 정책 단계·표본·비용·발언의 문제가, 과학에는 실험 설계·수치·평균·원인의 문제가 들어 있어. 한 문제에 TIP을 12개 모두 붙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야. 한 세트의 전체 풀이에서 필요한 요령을 자연스럽게 골라 쓰는 게 목표야.

주의: 다음 문제는 예측 적중을 위한 예상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익히기 위한 교육용 창작 문제야.

[시간 훈련 표시] 도서관 A · 8문항. 첫 연습 목표 17~20분(8문항 묶음 교육용 지문) / 실제 ____분 / 근거 확인 ____개.

제10수업 · 12가지 요령을 한꺼번에 써 보는 첫 실전

첫 번째 도전 | 가상 도서관, 다시 읽어도 달라질까?

앞에서 배운 12개 요령을 이제 도서관 한 지문에서 모두 사용해 볼 거야. **한 문제에 요령 하나만 쓰는 건 아니야.** 질문을 먼저 확인하고, 숫자를 볼 때 기준을 맞추고, 마지막에 고른 답이 질문과 맞는지 확인하는 동작을 함께 쓰는 거지.

지문을 읽기 전, 문제의 질문만 가볍게 훑어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용자의 범위, 설문 비율, 비용 비교, 담당자 발언, <보기> 적용이 나오네. **정답 선택지 다섯 개를 먼저 외우라는 뜻은 아니야.**

[혼자 풀기 약속] ① 각 문단에 한 단어 메모. ② 막히면 문항 번호에 별표하고 다음 문항으로. ③ 답 옆에 근거 문단 숫자 쓰기. ④ 풀이 뒤 '12가지 요령 지도'를 보며 내가 실제로 쓴 것을 확인하기.

창작 독서 지문 A | 다운시 야간 도서관 사업 (1~4문단)

[1문단] 가상의 도시 다운시는 평일 오후 6시에 문을 닫던 공공도서관을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사업을 검토했다. 시청은 두 가지 운영 방식을 비교했다. A방식은 기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고, B방식은 별도의 야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었다. 두 방식의 목표는 같지만 인건비 계산과 인사 승인 절차가 같지는 않았다. 시청은 어느 방식이 언제나 더 낫다고 정하지 않고 각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2문단] 시의회는 사업 예산 12억 원을 승인했고, 시청은 대상 도서관 10곳을 선정했다. 하지만 예산 승인, 대상 선정, 인력 배치, 안전 점검, 야간 운영 시작은 서로 다른 단계였다. 첫 달에는 10곳 가운데 8곳만 밤 9시까지 문을 열었다. 나머지 2곳은 인력 배치 또는 안전 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작이 늦어졌다. 따라서 '계획된 도서관 10곳'을 '이미 운영 중인 도서관 10곳'으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3문단] 실제 운영한 8곳을 합쳐 첫 달 야간 이용자는 4,000명이었다. 그중 2,500명은 낮에도 다운시 도서관을 이용하던 사람들이었다. 시는 나머지 1,500명을 신규 수요의 후보라고 불렀다. 여기서 신규 수요란 사업 이전에는 없던 이용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1,500명 중에는 원래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다가 다운시로 옮겨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 관찰한 야간 이용자'와 '사업 때문에 새로 생긴 이용자'는 같다고 확정할 수 없었다.

[4문단] 이용자 만족도도 조사했다. 첫 달 야간 이용자 4,000명 중 설문에 답한 사람은 200명이었고, 응답자 중 160명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응답자 가운데 80%가 만족했다'고 발표했다. 조사에 답하지 않은 이용자가 왜 답하지 않았는지, 그들의 생각이 응답자와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명을 대상으로 얻은 만족도 비율을 전체 4,000명의 만족도라고 곧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었다.

창작 독서 지문 A | 다운시 야간 도서관 사업 (5~7문단)

[5문단] 첫 달 추가 지출은 실제 운영한 8곳에서 발생한 인건비 6천만 원과 시설관리비 2천만 원을 합친 8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예산 12억 원은 계획된 10곳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전체 예산이다. 이 두 금액만 보고 '8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으니 예산을 크게 절약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먼저 비교 대상 도서관 수, 기간, 비용에 포함한 항목을 맞춰야 한다. 인건비만 비교했는지 시설비까지 넣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6문단] 야간 운영 도서관 주변 상점의 월 거래액이 늘자 한 시의원은 “도서관 연장이 동네 매출을 높였다는 사실은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 담당자는 “증가한 것은 확인했지만 같은 기간에 지역 축제와 학교 시험 기간도 겹쳤다”고 설명했다. 이 글은 두 사람의 발언을 소개할 뿐, 시의원의 결론을 글 전체의 확정된 판단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여기서 **인과관계**란 한 일이 다른 일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관계를 말한다. 두 일이 함께 나타났다는 사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7문단] 시는 다음 달에 운영 시간을 연장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도서관과 이용 실적을 비교하기로 했다. 또 처음 두 달 동안은 시작이 늦어진 도서관을 '운영 완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표시하기로 했다. 새로운 자료를 모으는 이유는 야간 운영의 효과를 무조건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지와 그 이유를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지문 지도 적기] 1문단 () / 2문단 () / 3문단 () / 4문단 () / 5문단 () / 6문단 () / 7문단 ()

도서관 문제 1~4 | 먼저 혼자 풀어 보자

문제 A1. 다운시의 사업 진행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의 목표는 도서관 야간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다.
- ② 시의회는 사업 예산 총액을 승인했다.
- ③ 시청은 야간 운영 대상 도서관 10곳을 선정했다.
- ④ 선정된 도서관은 예산 승인 즉시 모두 야간 운영을 시작했다.
- ⑤ 첫 달 실제 야간 운영을 시작한 도서관은 8곳이었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A2. 3문단의 '신규 수요의 후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야간 방문자 4,000명 모두가 이 사업으로 새로 생긴 이용자임을 뜻한다.
- ② 1,500명 전부가 이 사업으로 처음 도서관을 이용했다고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 ③ 낮에 이용했던 2,500명이 야간에 더는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 ④ 다른 지역에서 옮겨 온 사람은 1,500명에 포함될 수 없다는 뜻이다.
- ⑤ 1,500명 가운데 만족도 조사에 응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A3. 4문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전체 야간 이용자의 80%가 만족했다고 조사로 확인됐다.
- ② 전체 4,000명 중 160명만 만족했다고 확정됐다.
- ③ 설문 응답자 200명 중 160명이 만족했으므로 응답자 만족 비율은 80%다.
- ④ 설문에 답하지 않은 3,800명은 모두 불만족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응답자 가운데 만족한 사람의 비율은 4%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A4. A방식과 B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방식 모두 야간 운영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비용과 승인 절차가 다를 수 있다.
- ② A방식은 반드시 B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확인됐다.
- ③ B방식은 기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 ④ 두 방식의 승인 절차가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비용이 든다.
- ⑤ 시청은 모든 도서관에 B방식만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도서관 문제 5~8 | 이번에는 여러 요령이 함께 필요해

문제 A5. 비용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가 지출이 8천만 원이므로 사업 전체 예산에서 11억 2천만 원이 절약됐다고 확정할 수 있다.
- ② 실제 운영을 시작한 8곳의 첫 달 지출과 계획된 10곳의 전체 사업 예산은 아무 조건도 맞추지 않고 비교할 수 있다.
- ③ 비교 대상을 8곳으로 맞추더라도 기간과 포함 비용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④ 인건비 6천만 원은 시설관리비 2천만 원보다 크므로 A방식이 항상 더 낫다.
- ⑤ 대상 도서관 수와 기간, 비용 항목을 맞추어야 의미 있는 비용 비교가 가능하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A6. 6문단에 소개된 발언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당자는 거래액이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 ② 시의원은 도서관 연장 효과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지만, 글은 그 주장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았다.
- ③ 글쓴이는 시의원의 주장을 자신의 결론으로 승인했다.
- ④ 지역 축제와 시험 기간은 거래액 증가와 관계없다고 입증됐다.
- ⑤ 시의원과 담당자는 거래액 증가의 원인이 하나라는 데 동의했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A7. 주변 상점의 거래액 변화에 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거래액 증가가 확인됐으므로 원인은 모두 도서관 연장으로 입증됐다.
- ② 축제와 시험 기간이 있었다면 도서관은 거래액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 ③ 거래액 증가가 관찰됐어도 도서관 운영 연장의 순수한 영향을 알려면 다른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 ④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도서관 연장의 효과를 반드시 증명할 수 있다.
- ⑤ 거래액이 늘었다는 자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보기〉 다운시가 실제 야간 운영을 시작한 도서관으로 기록하려면, 예산 승인과 대상 선정뿐 아니라 인력 배치와 안전 점검까지 마쳐야 한다.

도서관 X와 Y는 예산 승인을 받았고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X는 인력 배치는 끝났지만 안전 점검이 남아 있고, Y는 인력 배치와 안전 점검을 모두 끝냈다.

문제 A8. <보기>를 적용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X와 Y는 예산 승인을 받았으므로 모두 시작한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 ② X는 인력 배치가 끝났으므로 점검이 남아 있어도 시작한 것으로 기록해야 한다.
- ③ Y도 안전 점검만 완료됐으므로 아직 시작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 ④ 제시된 조건에 따르면 Y만 실제 시작 요건을 충족한다.
- ⑤ 두 도서관은 선정됐으므로 인력 배치와 안전 점검 여부를 볼 필요가 없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정답을 보기 전 30초] 무엇을 묻는지 놓친 문항은? () / 끝까지 고민한 두 선택지가 있었나? () /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는 별표했나? ()

제이든양 선생님의 도서관 풀이 | 먼저 판단 과정을 보자

문제 A1 | 정답 ④ | 사용한 요령: 01·02·03·07·12

“질문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려. 그러니까 틀린 설명 한 개를 고르는 거야.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는 어디였지? 2문단이야. 거기에 예산 승인과 실제 시작이 다르다고 나와. 선택지 ④에는 **즉시·모두**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 10곳 가운데 실제 시작한 곳은 8곳이었지. ④가 틀렸어.”

나머지 선택지도 살펴보자. ①은 1문단 목표, ②·③은 2문단의 승인과 선정, ⑤는 2문단의 8곳이라는 사실과 맞아. 마지막으로 “나는 틀린 것을 골랐나?”를 다시 확인하면 끝이야.

문제 A2 | 정답 ② | 사용한 요령: 01·04·07·08·12

“'신규 수요'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네. 이 뜻은 같은 3문단에 설명돼 있어. 사업이 없었다면 없었을 이용이 새로 생기는 거라고 했지. 나머지 1,500명 중 다른 지역에서 옮겨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②처럼 **아직 전 부 새 수요로 확정할 수 없다고** 해야 맞아.”

①은 4,000명 모두를 새 수요라고 넓혔고, ③은 낮 이용자의 이후 행동을 지어냈고, ④는 다른 지역 이용자 가능성을 지웠고, ⑤는 조사에 응했는지 알 수 없는 내용을 단정했어. 다른 선택지의 강한 말이 정말 지문에 있는지 확인하면 돼.

문제 A3 | 정답 ③ | 사용한 요령: 01·03·06·07·12

“문제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묻네. 4문단으로 바로 가자. **전체 야간 이용자 4,000명과 응답한 200명**을 구분해야 해. 만족한 160명은 응답자 200명 중 몇 명이지? $160 \div 200 = 80\%$. 따라서 ③이 정답.”

①은 응답자 결과를 전체에게 넓혔고, ②는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을 확정했고, ④도 마찬가지로. ⑤의 4%는 $160 \div 4,000$ 을 계산한 값일 뿐, 이 문제에서 확인할 '응답자 중 만족 비율'은 아니야.

문제 A4 | 정답 ① | 사용한 요령: 03·05·07·08·12

“두 운영 방식의 차이를 보자. A는 기존 직원 근무 조정, B는 야간 직원 별도 채용이야. 목표는 같지만 인건비 항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①.”

②는 비용 우열을 확정한 적 없고, ③은 A와 B를 바꿔 썼고, ④는 비용이 언제나 같다고 과장했고, ⑤는 B만 사용하도록 결정했다고 지어냈어. 가장 헛갈리는 ①·④를 비교하면 **다를 수 있다/언제나 같다가** 갈림길이야.

문제 A5 | 정답 ⑤ | 사용한 요령: 03·05·06·07·08·12

“12억 원과 8천만 원 중 8천만 원이 작네? 그런데 문제는 절약액을 묻는 게 아니야. **계획된 10곳의 사업 전체 예산과 운영한 8곳의 첫 달 지출**을 바로 비교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야. 비교 조건부터 맞추자는 ⑤가 정답.”

①은 남은 금액을 그대로 절약액으로 바꿨고, ②·③은 기간·대상·항목을 무시했고, ④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비교해 A방식의 우열을 만들어 냈어. 서로 비교할 대상이 같은 종류인지 먼저 보자.

문제 A6 | 정답 ② | 사용한 요령: 02·03·07·10·12

“이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묻는 문제야. 시의원은 이미 증명됐다고 했고, 담당자는 다른 이유도 있다고 했어. 글 자체도 시의원의 말을 결론으로 확정하지 않았지. 따라서 ②야.”

①은 담당자의 말을 뒤집었고, ③은 인물의 발언을 글쓴이의 결론으로 바꿨고, ④는 축제 영향을 부정했으며, ⑤는 두 사람이 같은 뜻이라고 만들었어. 문학에서 '누가 말했나'를 확인하는 요령이 독서에도 쓰이지?

문제 A7 | 정답 ③ | 사용한 요령: 01·03·07·08·11·12

“매출이 늘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어. 하지만 축제도 있었고 시험 기간도 겹쳤어. 관찰한 변화와 그 원인을 나누어야 해. 다른 조건을 살피자는 ③이 타당하지.”

①은 원인을 전부 도서관이라고 확정했고, ②는 반대로 도서관의 가능성을 0으로 단정했고, ④는 비교만 하면 반드시 증명된다고 했어. ⑤는 실제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했지. 이 문제를 오래 고민했다면 6문단에 표시하고 다음 문제를 먼저 풀어도 돼.

문제 A8 | 정답 ④ | 사용한 요령: 01·03·07·08·09·12

“〈보기〉에서 운영 시작 조건부터 찾자. 예산 승인과 선정만으로는 부족해. 인력 배치와 안전 점검을 모두 마쳐야 하네. X는 점검이 남았고 Y는 둘 다 마쳤으니 ④야.”

①·⑤는 승인만으로 시작을 인정했고, ②는 안전 점검을 생략했고, ③은 Y가 갖춘 조건을 잘못 판단했어. 마지막으로 질문이 '시작 요건 충족'을 묻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선생님의 자신 있는 한마디] “어때? 문제마다 요령 하나만 쓴 게 아니지? 질문을 보고, 필요한 문단으로 돌아가고, 단어를 비교하고, 다시 질문을 확인했어. 이게 수능 문제를 실제로 푸는 순서야.”

도서관 한 지문에서 12가지 요령, 전부 어디에 썼을까?

TIP 01 문제 먼저 보기 — A1은 과정, A3은 만족도처럼 무엇을 찾을지 미리 정했어.

TIP 02 질문의 방향 확인 — A1의 '적절하지 않은 것'에서 틀린 설명을 찾았어.

TIP 03 문단 위치 기억 — 1운영 방식 / 2진행 단계 / 3이용자 / 4설문 / 5비용 / 6발언과 원인 / 7후속 비교.

TIP 04 어려운 말 문맥으로 읽기 — A2에서 '신규 수요'를 다음 설명으로 이해했어.

TIP 05 A와 B 비교 — A4에서 기존 직원 조정과 새 직원 채용의 차이를 봤어.

TIP 06 숫자의 전체 확인 — A3의 $160 \div 200$, A5의 8곳 한 달 지출과 10곳 전체 예산을 구별했어.

TIP 07 바뀐 말 찾아내기 — A1의 '즉시·모두', A2의 '전부 새 이용자'가 지문과 맞는지 살폈어.

TIP 08 마지막 두 선택지 대결 — A4에서 '다를 수 있다'와 '언제나 같다'를 비교했어.

TIP 09 <보기> 적용 — A8에서 X·Y가 인력 배치와 안전 점검을 모두 마쳤는지 확인했어.

TIP 10 말한 사람 구별 — A6에서 시의원 주장과 담당자 설명, 글의 판단을 나눴어. 원래 문학에서 배우는 방법이지만 설명문에도 적용돼.

TIP 11 막히면 표시하고 복귀 — A7처럼 다른 원인들을 비교하느라 오래 걸리면 '6문단'만 표시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어.

TIP 12 질문에 맞게 골랐는지 점검 — A1은 틀린 것, A8은 시작 요건 충족을 찾았는지 마지막에 확인했어.

[학생 기록] 나도 실제로 사용한 TIP 번호를 동그라미 치자: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꼭 알아둘 점] 12개를 한 문항에 전부 쓰는 것은 아니야. 각각의 문제에 필요한 요령을 골라 쓰는 것이 실전 실력이야.

제5부. 새로운 과학 지문에서도 써먹는 실전 요령

[시간 훈련 표시] 식물 B · 8문항. 첫 연습 목표 17~20분(교육용 지문) / 실제 ____분 / 근거 확인 ____개.

제11수업 · 두 번째 실전 | 소재가 달라도 똑같이 해 봐

새로운 과학 지문에서도 12가지 요령이 통할까?

이번에는 가상의 식물 성장 실험이야. 실제로 시행된 연구가 아니라 수업을 위해 창작한 사례야. 도서관 지문처럼 질문을 먼저 살펴보고, 문단에 한 단어를 남기면서 읽어 봐.

창작 독서 지문 B | 파란빛과 흰빛의 식물 실험 (1~4문단)

[1문단] 가상 연구팀은 식물에 비추는 빛의 색이 성장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다. 같은 종의 어린 식물 60개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A집단 30개에는 파란빛을, B집단 30개에는 흰빛을 비추었다. 실험을 시작할 때 두 집단의 평균 키는 모두 5cm였다. 물의 양과 기르는 기간은 같게 맞추려 했지만 첫 주에 A집단의 실내 온도는 평균 23도, B집단은 평균 21.5도로 조금 달랐다.

[2문단] 여기서 통제란 비교하려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을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는 일을 뜻한다. 빛의 색이 결과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려면 물이나 온도 같은 조건을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연구팀은 두 집단의 온도 차이가 실험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록했다. 온도 차이를 발견했다고 실험이 무가치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을 단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3문단] 4주 뒤 A집단의 평균 키는 12cm, B집단은 10cm였다. 처음 두 집단 평균이 5cm였으므로 평균 키의 증가는 A가 7cm, B가 5cm였다. 다만 '평균이 12cm'라는 말은 A집단 식물 30개가 전부 12cm였다는 뜻은 아니다. 더구나 평균 키 차이만으로 빛의 색이 성장 차이를 모두 만들어 냈다고 확정할 수도 없었다.

[4문단] 관찰 기간에 새 잎이 나온 식물의 비율도 살펴보았다. A집단에서는 30개 중 27개, B집단에서는 30개 중 24개에서 새 잎이 나왔다. 이 실험에서 관찰된 새 잎이 나온 비율은 각각 90%와 80%였다. 두 비율의 차이는 10%포인트다. 그러나 새 잎이 나온 비율과 식물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는 같은 측정값이 아니다. 새 잎이 나온 비율과 평균 키를 서로 같은 종류의 숫자처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창작 독서 지문 B | 파란빛과 흰빛의 식물 실험 (5~7문단)

[5문단] 연구팀은 다음 실험 방식을 두 가지로 논의했다. 방식 P는 온도와 물의 양을 같게 유지하고 화분 위치도 주기적으로 바꾸어, 빛의 색 외 다른 조건의 차이를 줄이려는 방법이다. 방식 Q는 빛의 색뿐 아니라 비료의 종류와 물의 양도 함께 바꾸어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피려는 방법이다. P와 Q는 모두 연구할 만한 방법이지만 질문이 다르다. **빛의 색 하나의 영향을 더 분명히 구별하려는 목적에는 P가 더 직접적으로 맞는다.**

[6문단] 한 연구원은 “A집단 평균이 더 컸으므로 파란빛이 성장 차이의 원인임이 완전히 증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구 보고서는 “첫 주 온도 차이 등 다른 조건도 있었으므로 그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찰된 숫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조심하자는 입장이었다. 연구원 한 사람의 발언과 보고서의 최종 판단은 같지 않았다.

[7문단] 연구팀은 후속 실험을 진행하되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기로 했다. 온도 차이를 없앤 뒤에도 A집단 평균 키가 더 클 수도, 차이가 줄거나 사라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조건을 잘 통제하면 처음 결과가 반드시 재현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얻어 다시 검토해야 한다.

[문단 지도 적기] 1설계 / 2() / 3() / 4() / 5() / 6() / 7()

과학 문제 1~4 | 혼자 풀어 보자

문제 B1.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집단에는 같은 종의 식물이 사용됐다.
- ② 첫 주에 두 집단의 온도는 완전히 같았다.
- ③ 처음 두 집단의 평균 키는 모두 5cm였다.
- ④ 두 집단에 비춘 빛의 색은 서로 달랐다.
- ⑤ 연구팀은 물의 양을 같게 맞추려 했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B2. 집단별 평균 키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집단은 4주 동안 평균 12cm가 자랐다.
- ② B집단은 4주 동안 평균 10cm가 자랐다.
- ③ A집단의 평균 키 증가량은 7cm이고, B집단은 5cm다.
- ④ A집단의 식물 30개는 모두 정확히 12cm가 되었다.
- ⑤ B집단의 식물은 처음부터 A집단보다 평균 2cm가 작았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B3. 새 잎이 나온 비율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집단은 27%, B집단은 24%가 새 잎이 나왔다.
- ② 두 집단의 새 잎이 나온 비율 차이는 3%포인트다.
- ③ B집단이 A집단보다 10%포인트 더 높다.
- ④ A집단의 새 잎이 나온 비율은 90%, B집단은 80%로 차이는 10%포인트다.
- ⑤ 새 잎이 나온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식물의 키도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B4. 2문단에서 설명한 통제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교하려는 요소 외의 조건을 가능하면 비슷하게 맞추는 일이다.
- ② 두 집단에서 측정 결과를 언제나 같게 만드는 일이다.
- ③ 서로 다른 식물 종을 섞어 실험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다.
- ④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수치를 바꾸는 일이다.
- ⑤ 가장 키가 큰 식물만 남겨 평균을 계산하는 일이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과학 문제 5~8 | 마지막 두 선택지까지 확인해

문제 B5. 6문단의 연구원 발언과 보고서의 판단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둘 다 온도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 ② 보고서는 A집단의 평균 키가 더 컸다는 관찰 자체를 부정했다.
- ③ 보고서는 연구원의 결론을 완전히 승인했다.
- ④ 연구원은 빛의 색에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 ⑤ 연구원은 원인을 확정했지만, 보고서는 다른 조건 때문에 확정이 어렵다고 했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B6. A집단의 평균 키가 12cm라는 결과에서 확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A집단의 평균 키는 실험 종료 시 12cm였다.
- ② A집단의 식물 30개 모두가 실험 종료 시 정확히 12cm였다.
- ③ A집단의 시작 평균 키는 5cm였다.
- ④ A집단의 평균 키 증가량은 7cm였다.
- ⑤ B집단의 종료 평균 키는 10cm였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B7. 방식 P와 Q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방식은 연구 목적과 비교하려는 조건이 완전히 같다.
- ② 방식 Q는 물과 비료의 조건을 바꾸지 않는다.
- ③ 빛의 색 하나의 영향을 더 분명히 살피려면 방식 P가 목적에 더 직접적으로 맞는다.
- ④ 방식 P는 화분 위치를 고정해 위치 차이를 더 크게 만들려 한다.
- ⑤ 방식 Q를 쓰면 한 번의 실험만으로 빛의 색 효과가 반드시 증명된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보기〉 후속 실험에서 빛의 색 하나의 영향을 비교하려면, 두 집단의 식물 종과 물의 양, 온도를 같게 하고 화분 위치에 따른 편차도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한다.

문제 B8. <보기>를 적용한 실험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집단은 다른 종류의 식물로 바꾸고 나머지 조건만 맞춘다.
- ② 두 집단의 온도를 다르게 유지하되 그 차이를 무시한다.
- ③ 빛의 색과 비료의 종류를 동시에 바꾸어 빛의 색만의 영향을 판단한다.
- ④ 두 집단의 물·온도·식물 종을 같게 유지하고 위치를 주기적으로 조정한다.
- ⑤ 후속 실험 결과가 처음과 같을 것으로 미리 정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내 답: () 근거 문단: () / 풀이 시간: ____초

정답 확인 전] 내가 쉬워 보여서 바로 고른 문제도 근거를 찾았나? 오래 걸린 문제는 체크하고 돌아왔나?

제이든양 선생님의 과학 풀이 | 새로운 소재에서도 같은 행동

문제 B1 | 정답 ② | 사용한 요령: 01·02·03·07·12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있어. 틀린 설명 하나를 찾아야지. 실험 조건은 1문단에 나와. 물은 같게 맞추려 했지만 첫 주 온도가 23도와 21.5도로 달랐어. ②는 '완전히 같았다'고 했으니 지문과 달라.” 나머지 ①·③·④·⑤는 모두 1문단의 관찰 또는 실험 계획에 맞는 설명이야.

문제 B2 | 정답 ③ | 사용한 요령: 03·06·07·12

“종료 때 12와 10이라는 큰 숫자만 보면 안 돼. 증가량을 물었지? 처음은 둘 다 5였어. A는 $12-5=7$, B는 $10-5=5$. ③이야.” ①·②는 종료 평균과 증가량을 혼동했고, ④는 평균을 모두의 실제 값으로 바꿨고, ⑤는 시작 점이 모두 5였다는 사실과 어긋나.

문제 B3 | 정답 ④ | 사용한 요령: 01·03·06·08·12

“27과 24만 보고 3%포인트 차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해. 둘 다 전체가 30개야. $27 \div 30=90\%$, $24 \div 30=80\%$. 차이는 10%포인트니까 ④야.” ①은 사람 수를 비율로 착각했고, ②는 3개 차이를 3%p로 잘못 읽었고, ③은 방향이 반대야. ⑤는 새 잎이 나온 비율을 식물 전체의 키와 같은 값으로 여겼어.

문제 B4 | 정답 ① | 사용한 요령: 01·03·04·12

“'통제'가 어려운 말처럼 보여도 2문단 바로 앞뒤에서 뜻을 알려줘. 다른 조건을 같게 맞추는 거야. ①이 정확해.” ②는 결과를 무조건 같게 만들려는 것이고, ③은 비교할 조건을 더 늘렸고, ④·⑤는 자료를 임의로 바꾸거나 일 부만 남기는 잘못된 행동이야.

문제 B5 | 정답 ⑤ | 사용한 요령: 03·07·08·10·12

“연구원은 완전히 증명했다고 주장했어. 보고서는 다른 원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 누가 한 말인지 구별한 ⑤가 정답.” ①·④는 연구원의 말을 뒤집고, ②는 보고서가 관찰값까지 부정했다고 확대했고, ③은 보고서가 연구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왜곡했어.

문제 B6 | 정답 ② | 사용한 요령: 02·03·06·07·08·12

“질문은 확정할 수 없는 것이야. 평균 12cm는 30개를 합쳐 30으로 나눈 값이야. 30개 모두 12cm인지는 알 수 없지. 그래서 ②.” ①·③·④·⑤는 실험에서 주어진 평균 또는 그로부터 계산되는 값이라 확인할 수 있어.

문제 B7 | 정답 ③ | 사용한 요령: 03·05·07·08·11·12

“P는 다른 조건을 같게 해 빛의 색만 보려는 방법, Q는 물과 비료까지 바꿔 여러 요인의 결합을 보려는 방법이야. 빛의 색 하나가 궁금하니까 ③이야.” ①은 두 목적을 같게 만들었고, ②는 Q의 내용을 반대로 썼고, ④는 위치 조정을 생략했어. ⑤는 한 번으로 반드시 입증한다고 과장했지. 고민이 길면 5문단을 표시하고 B8부터 풀어도 돼.

문제 B8 | 정답 ④ | 사용한 요령: 01·03·05·07·09·12

“〈보기〉의 규칙은 식물 종·물·온도를 같게 맞추고 위치 차이를 줄이자는 거야. 그 조건을 하나씩 대조하면 ④만 남아.” ①은 식물 종이 다르고, ②는 온도를 다르게 유지하고, ③은 비료를 같이 바꾸며, ⑤는 결과를 미리 정해 버렸어.

[제이든양 선생님의 한마디] “도서관 얘기에서는 돈과 사람이 나왔지? 이번에는 식물과 온도가 나왔어. 그런데 질문을 읽고, 문단을 찾고, 전체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묻는 말을 다시 보는 방법은 그대로야. 이제 네가 스스로 써먹을 차례야.”

과학 한 지문에서 12가지 요령, 전부 어디에 썼을까?

TIP 01 문제 먼저 보기 — B1의 조건, B3의 비율, B8의 실험 계획처럼 찾을 정보를 먼저 정했어.

TIP 02 질문 방향 확인 — B1의 '적절하지 않은', B6의 '확정할 수 없는'을 놓치지 않았어.

TIP 03 문단 위치 기억 — 1설계 / 2통제 / 3성장 / 4새 잎 / 5후속 방식 / 6발언 / 7다시 확인.

TIP 04 모르는 용어 문맥으로 해결 — B4의 '통제' 뜻을 2문단에서 직접 확인했어.

TIP 05 A와 B 비교 — B7에서 P와 Q의 목적과 바꾸는 조건을 나란히 놓았어.

TIP 06 숫자 기준 확인 — B2의 증가량 $7\text{cm} \cdot 5\text{cm}$, B3의 $27/30 \cdot 24/30$ 과 $10\%p$ 를 계산했어.

TIP 07 선택지 바뀐 말 — B1의 '완전히 같다', B5의 '완전히 증명'처럼 말의 강도를 살폈어.

TIP 08 마지막 두 선택지 대결 — B6에서 '평균 12cm'와 '모두 12cm'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어.

TIP 09 〈보기〉 적용 — B8에서 조건을 하나씩 맞춰 봤어.

TIP 10 누가 말했나 구별 — B5에서 연구원 발언과 보고서 판단을 구별했어.

TIP 11 막히면 표시하고 복귀 — B7처럼 복잡한 비교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5문단을 표시하고 돌아와도 돼.

TIP 12 최종 질문 재확인 — B1은 틀린 설명, B6은 확정할 수 없는 설명을 골랐는지 다시 확인했어.

[정말 중요한 차이] 긴 글을 한 번에 외워서 맞힌 게 아니야. 우리가 배운 12가지 행동을 필요한 순간에 다시 사용했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거야.

[두 지문 모두 풀었다면] 도서관과 과학 중 무엇이 더 어려웠어? 숫자 () / 말한 사람 구별 () / 질문 방향 () / 두 선택지 비교 () / 〈보기〉 적용 () / 시간관리 ()

제6부. 시간을 재며 풀어 보는 새로운 지문: 정책과 문학

이제 도서관과 식물 이야기는 덮어 두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도 기술을 쓸 수 있어야 해. 아래의 창작 지문 C와 D는 각각 4문항이므로, 제3부의 ‘한 지문 10~12분’ 목표를 시험해 볼 수 있어. 시험 유형의 비율을 재현했다는 뜻은 아니고, 두 과목의 서로 다른 독해 행동을 함께 연습하려는 훈련이야.

[풀이 순서] 문제의 질문을 가볍게 살피기 → 지문 읽으며 문단마다 역할 한 단어만 표시 → 선택지 근거 대조 → 마지막에 시간 적기. 해설은 뒤쪽에서 읽어.

창작 지문 C | 공동 작업실의 신청과 실제 이용

[1문단] 가상의 도시 슬내시는 비어 있는 창고를 공동 작업실로 바꾸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은 온라인으로 이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모두가 사용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 시는 먼저 거주지와 사용 목적을 확인해 이용 자격을 승인하고, 승인된 사람은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도록 했다. 예약이 되더라도 실제로 방문하지 않으면 '이용 완료'로 세지 않는다. 시가 발표하는 신청자, 승인자, 예약자, 실제 이용자는 각각 다른 단계의 숫자다.

[2문단] 시범 운영 첫 달에 신청자는 600명이었고, 그중 450명이 자격을 승인받았다. 승인자 가운데 400명이 예약을 마쳤고, 예약자 중 360명이 실제 방문했다. 시 관계자는 “승인자 가운데 실제 방문한 비율”과 “신청자 가운데 실제 방문한 비율”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는 360명을 450명으로 나누고, 후자는 360명을 600명으로 나눈다. 방문한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예약 이행률을 구한다면 360명을 400명으로 나누어야 한다.

[3문단] 이용 뒤 만족도 조사는 실제 방문한 360명 가운데 응답한 200명에게서만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 중 140명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므로 응답자 만족률은 70%였다. 그러나 나머지 방문자 160명의 생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방문자 전체의 70%가 만족했다’거나 ‘신청자 전체의 70%가 만족했다’는 표현은 이 조사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표본에서 확인한 결과를 전체 인원에게 그대로 옮기기 전에 그 숫자의 분모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4문단] 시청은 운영 방식도 비교했다. A방식은 상근 관리자를 늘리는 방법이고, B방식은 기존 관리자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안전 담당자를 추가로 두는 방법이다. 어느 방식이 더 저렴한지는 단순한 인원수만으로 정할 수 없었다. 추가 수당과 안전 점검비, 야간 냉난방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시는 비용 계산 자료가 모두 정리된 뒤에만 방식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어느 방식도 현재 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5문단] 공동 작업실 주변 상점의 월 거래액이 사업 시작 전 90억 원에서 시작 후 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비슷한 시기의 인근 다른 지역 상점 거래액도 70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늘었다. 솔내시는 작업실이 주변 소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두 지역의 주민 수와 계절 행사 등 다른 조건이 같다고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 숫자만으로 사업의 순수한 효과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거래액이 늘었다는 관찰과 '사업 때문에 늘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니다.

시간 기록] C세트 4문항 · 연습 목표 10~12분(지문 읽기 포함) / 지문 읽기 ____분 / 문제 풀이 ____분 / 총 ____분 / 정답 ____/4 / 근거 문단 ____.

문제 C1. 밑글의 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첫 달 공동 작업실 이용을 신청한 사람의 수
- ② 첫 달 이용 자격을 승인받은 사람의 수
- ③ 첫 달 예약 후 실제 방문한 사람의 수
- ④ 만족도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방문자의 만족 여부
- ⑤ 공동 작업실에 실제 방문한 사람의 수

내 답: ____ / 근거 문단: ____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C2. 이용 단계별 비율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청자 중 승인받은 비율은 60%이다.
- ② 승인자 중 실제 방문한 비율은 80%이다.
- ③ 예약자 중 실제 방문한 비율은 80%이다.
- ④ 신청자 중 실제 방문한 비율은 90%이다.
- ⑤ 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방문자는 실제 방문자 전체의 70%이다.

내 답: ____ / 근거 문단: ____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C3. 5문단의 거래액 자료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솔내시 주변 상점의 관찰된 거래액 증가분은 10억 원이다.
- ② 인근 다른 지역 상점의 관찰된 거래액 증가분은 8억 원이다.
- ③ 두 지역에서 거래액이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 ④ 두 지역의 인구와 다른 조건을 확인해야 사업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⑤ 두 지역의 증가분 차이 2억 원이 곧 사업의 순수한 효과로 확정된다.

내 답: ____ / 근거 문단: ____ / 풀이 시간: ____초

〈보기〉 민재는 공동 작업실 이용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예약도 마쳤다. 그러나 예약 당일에는 방문하지 못했다.

문제 C4. 〈보기〉의 민재에게 본문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재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승인 절차가 없었다.
- ② 민재는 예약했으므로 실제 이용을 완료한 것으로 센다.
- ③ 민재는 승인자와 예약자에 포함되지만 실제 이용 완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민재가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자 수에서도 제외해야 한다.
- ⑤ 민재의 만족도는 70%로 확인된다.

내 답: ____ / 근거 문단: ____ / 풀이 시간: ____초

창작 지문 D | 오래된 간판을 옮기던 날

[1문단] 해준은 겨울 방학 첫날, 동네 끝의 오래된 수리점 앞에 섰다. 할아버지가 쓰던 작은 수리점은 여러 해 전에 문을 닫았지만 빛바랜 간판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구청은 이 건물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 공사는 다음 달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정식 개관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안내했다.

[2문단] 해준의 아버지는 “글자를 하나씩 닦아 놓으면 간판도 다시 쓸 수 있겠지”라고 말했다. 해준은 간판의 한쪽 모서리가 깨진 것을 보고 잠시 얼굴을 찌푸렸다. 간판을 치우면 할아버지가 그곳에 있었다는 흔적이 사라질 것 같아서 운했다. 그렇다고 도서관이 들어서는 일이 싫은 것만은 아니었다. 해준은 동네에 책 읽을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3문단] 옆집에 사는 태오는 두 사람을 보고도 인사만 짧게 했다. 아버지가 간판을 잠시 맡아 줄 수 있느냐고 묻자, 태오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해준은 태오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평소 태오가 낮을 가리는 편이어서인지, 다른 일이 생겨서인지는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해준에게 “아직은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4문단] 해준과 아버지는 간판을 내릴 때 사진을 여러 장 찍고, 글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으로 감쌌다. 해준은 간판을 버리는 대신 도서관 안에 옛 수리점을 소개하는 작은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 제안이 괜찮다며 구청에 의견을 보내 보자고 했다. 하지만 의견을 보냈다고 해서 도서관에 그런 공간이 실제로 설치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5문단] 집에 돌아온 해준은 사진 속 간판을 오래 바라보았다. 간판을 떼어 낸 자리에는 밝은 벽돌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해준은 빈자리가 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오직 상실만 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음 달부터 그곳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사진을 접어 가방 안에 넣으며 “내일은 도서관 계획서를 좀 더 읽어 봐야겠다”고 혼잣말했다.

시간 기록] D세트 4문항 · 연습 목표 10~12분(작품 읽기 포함) / 읽기 ____분 / 문제 풀이 ____분 / 총 ____분 / 정답 ____/4 / 근거 문단 ____.

문제 D1. 해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판이 사라지는 일을 기뻐하며 옛 수리점의 기억을 지우려 한다.
- ② 옛 수리점의 기억을 아쉬워하면서도 새 공간의 가능성에는 관심을 보인다.
- ③ 도서관 건립 자체를 끝까지 반대해 구청에 항의한다.
- ④ 아버지와와 갈등 때문에 간판 정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⑤ 간판이 없어졌으므로 새로운 공간에도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 답: ____ / 근거 문단: ____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D2. 윗글을 통해 확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해준이 방문했을 때 건물 앞에는 낡은 간판이 남아 있었다.
- ② 해준의 아버지는 간판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을 말했다.
- ③ 해준은 간판을 내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 ④ 태오가 아버지의 부탁에 답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
- ⑤ 도서관의 정식 개관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내 답: ____ / 근거 문단: ____ / 풀이 시간: ____초

문제 D3. 사건의 진행 상태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서관 개관 날짜가 공사 시작 전에 이미 확정되었다.
- ② 간판은 구청이 이미 도서관 안에 전시하기로 승인했다.
- ③ 해준과 아버지는 도서관 계획에 관해 구청에 제안하기로 했으나 설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 ④ 태오는 간판 보관을 맡겠다고 확답했다.
- ⑤ 도서관 공사는 이미 끝났고 건물은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내 답: ____ / 근거 문단: ____ / 풀이 시간: ____초

〈보기〉 이야기 속 공간이나 물건은 인물의 기억과 앞으로의 기대를 함께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반드시 작품에 실제로 제시된 말과 행동에 근거해야 한다.

문제 D4. <보기>의 관점에서 지문을 읽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낡은 간판은 해준에게 아무런 기억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 ② 낡은 벽돌 자국은 공사가 이미 끝났음을 증명한다.
- ③ 간판 사진은 해준이 도서관을 반드시 반대한다는 증거다.
- ④ 해준의 호기심은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다.
- ⑤ 간판의 흔적과 빈자리는 지나간 기억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함께 보여 준다.

내 답: ____ / 근거 문단: ____ / 풀이 시간: ____초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재며 푼 두 지문 해설

[제이든양 선생님의 시간 점검]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기록을 봐. C에서 숫자 문제만 3분 넘게 붙잡았니? 그럼 분모를 못 찾았는지, 계산을 틀렸는지 나눠 봐. D에서 태오의 속마음을 고민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니? 지문이 알려 주지 않는 건 억지로 알아내려 하지 않아도 돼.”

정답 C1 = ④ | TIP 02·03·12] 문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어. ① 신청 600, ② 승인 450, ③ 예약 400, ⑤ 실제 방문 360은 모두 2문단에서 확인돼. ④ 응답하지 않은 160명의 만족 여부는 3문단에 나오지 않아. *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결과를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야.

정답 C2 = ② | TIP 02·06·07] '승인자 중 실제 방문'은 $360 \div 450 = 80\%$ 야. ① 승인 비율은 $450 \div 600 = 75\%$ 이고, ③ 예약 대비 방문 비율은 $360 \div 400 = 90\%$ 야. ④ 신청 대비 방문 비율은 $360 \div 600 = 60\%$ 야. ⑤ $200 \div 360$ 은 약 55.6%로, 70%는 응답자 중 만족한 사람의 비율 ($140 \div 200$)이야. 답을 맞히는 것보다 문제에서 분모로 누구를 지정했는지 확인하는 게 실력이지.

정답 C3 = ⑤ | TIP 02·06·07·12] ① $100 - 90 = 10$ 억, ② $78 - 70 = 8$ 억, ③ 두 지역 증가, ④ 조건 확인 필요는 모두 지문과 맞아. ⑤ 두 증가분의 차이가 2억이라는 계산은 할 수 있지만, 그게 곧 사업의 순수 효과라는 인과적 결론은 아니야. 관찰과 원인을 바꿔 읽는 함정이야.

정답 C4 = ③ | TIP 02·08·09·12] 민재는 신청·승인·예약 단계까지 갔지만 실제 방문은 하지 않았어. 따라서 ③만 맞아. ①은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잘못된 주장, ②는 예약을 방문으로 바꾼 주장, ④는 신청했다는 기록을 없앴 주장, ⑤는 개인의 만족도를 집단 통계로 단정한 주장이야.

정답 D1 = ② | TIP 03·07·10·12] 2문단에서 해준은 아쉬워하면서도 도서관을 기대했어. ①과 ⑤는 아쉬움이나 기대를 지워 버렸고, ③은 반대 행동을 지어냈고, ④는 실제 간판 정리 행동과 충돌해. 해준의 마음을 한 단어로 단정하지 말고 서로 다른 마음이 공존하는지 확인해.

정답 D2 = ④ | TIP 02·10·12] ①은 1문단, ②는 2문단, ③은 4문단, ⑤는 1문단에서 확인돼. ④ 태오가 왜 대답하지 않았는지는 3문단에서 '알 수 없다'고 했어. 침묵은 행동이고,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마음이야.

정답 D3 = ③ | TIP 02·08·12] 제안을 보내기로 했다는 것과 설치가 확정됐다는 것은 달라. ③만 정확해. ①은 예정과 확정을 혼동했고, ②는 제안과 승인 혼동, ④는 태오의 침묵을 승낙으로 바꿨고, ⑤는 예정된 공사를 완료된 사실로 바꿨어.

정답 D4 = ⑤ | TIP 09·10·12] 〈보기〉는 공간과 물건의 의미를 작품 속 근거로 설명하라고 요구해. ⑤는 2문단의 아쉬움, 5문단의 기대를 함께 연결해. ①은 2문단과 반대, ②는 밝은 자국을 공사 완료로 과장, ③은 기억을 반대로 해석, ④는 기억의 소멸을 단정했어.

선생님의 12가지 요령 연결표: C와 D에서 찾아보자

[실전 TIP 01 · 문제 먼저 훑기] C1·D2의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먼저 보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정했어.

[실전 TIP 02 · 질문의 핵심어] C3의 ‘적절하지 않은’과 D3의 ‘진행 상태’를 놓치지 않았어.

[실전 TIP 03 · 문단 위치 기억] C의 만족도는 3문단, D의 침묵은 3문단으로 빠르게 돌아갔어.

[실전 TIP 04 · 낯선 용어 멈추지 않기] C의 ‘순수 효과’를 5문단 설명으로 이해했어.

[실전 TIP 05 · 비교 대상] C4에서 A/B 운영 방식을 섞어 판단하지 않았어.

[실전 TIP 06 · 숫자보다 기준] C2에서 360/450과 360/600을 구별했어.

[실전 TIP 07 · 바뀐 단어] C1의 ‘응답자’와 ‘모든 방문자’를 비교했어.

[실전 TIP 08 · 마지막 두 선택지] C4에서 예약과 방문을 구별하고 근거를 재확인했어.

[실전 TIP 09 · <보기>의 조건] C4와 D4에서 지문 규칙과 주어진 상황을 연결했어.

[실전 TIP 10 · 말하는 사람] D2에서 태오의 말 없음과 마음의 이유를 구별했어.

[실전 TIP 11 · 안 풀리면 표시] C2 계산에서 막혔다면 분모 메모 후 보류하고 복귀하는 시간을 기록해.

[실전 TIP 12 · 마지막 질문 확인] C3은 ‘적절하지 않은 것’, D2는 ‘확정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봤어.

[해설 검토 주의] 연결표는 어느 동작을 시도할 수 있는지 알려 주는 **수업용 지도**야. 모든 문제를 풀 때 12개를 기계적으로 전부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야.

[다시 도전하기] C와 D를 새로 풀 때는 정답을 외우게 돼. 따라서 진짜 시간·전이 향상은 다음에 **처음 보는 다른 지문**으로 확인해야 해. 오늘은 틀린 이유를 한 줄로 기록하고 끝내자.

제7부. 문학과 선택과목은 따로 연습해

현대시: 마음을 단어 하나로 단정하지 않기

[창작 수업 예문] 창작 작품: “한낮에 꺼진 가로등 밑 / 누군가 남긴 작은 우산 하나 / 나는 젖지 않은 길에서 / 비 오는 날을 떠올린다.”

[선생님 설명] 제이든양 선생님: “비가 실제로 내리고 있는지는 시 안에 없지? ‘비 오는 날을 떠올린다’는 기억과 현재가 달라. ‘젖지 않은 길’을 확인했으니, 현재의 날씨를 비가 오는 날이라고 확정하면 안 돼.”

[직접 확인] 확인할 문장: 화자는 무엇을 보았나? 실제 현재 날씨는 확인되는가? 기억을 현재 사실로 바꾼 선택지는 왜 위험할까?

현대소설: 말, 행동, 서술자의 설명을 나누기

[창작 수업 예문] 창작 작품: “지후는 ‘늦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을 나선 뒤에도 휴대전화의 시간을 세 번이나 확인했다. 다혜는 그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 설명] 제이든양 선생님: “지후는 늦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을 확인했어. 조급함을 추측해 볼 수는 있어도 반드시 불안했다고 확정하긴 어렵지. 다혜가 침묵한 이유도 지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직접 확인] 확인할 문장: 지후가 실제로 한 행동은? 다혜의 속마음은 적혀 있나?

고전시가: 화자의 처지부터 보자

[창작 수업 예문] 고전풍 창작 연습문: “먼 산에 해 저무니 돌아갈 길 아득하다. 길 위에 벗은 없고 바람만 소매를 스친다.”

[선생님 설명] 제이든양 선생님: “낯선 표현을 외우기 전에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인가’를 찾자. 해가 저물고 길이 멀고 벗이 없다는 단서들이 있어. 그런데 임금에 대한 충성을 말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어.”

[직접 확인] 확인할 문장: 시간·공간·인물·정서를 드러내는 말에 각각 표시해 보자.

고전소설: 신분과 이해관계를 보면 이야기가 읽혀

[창작 수업 예문] 고전풍 창작 연습문: “고을 원이 풍년이라 글을 올리니 창고 맡은 아전은 장부를 덮었다. 마을의 노인은 해마다 빌린 곡식을 갚느라 겨울을 근심하였다.”

[선생님 설명] 제이든양 선생님: “풍년이라는 보고와 마을의 가난한 현실이 대비되지? 누가 무슨 이해관계를 가지는지부터 보면 풍자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원이나 아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해.”

[직접 확인] 확인할 문장: 보고·행동·생활 형편을 나눠 적어 보자.

화법·작문: 실제 반영한 자료인지 확인

[창작 수업 예문] 창작 연습: 회의에서 A는 “먼저 사진을 보여 주자”고 제안했고, 발표자는 “제안이 좋지만 발표 시간상 표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선생님 설명] 제이든양 선생님: “A의 제안이 발표에 반영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안은 있었지만 발표자는 사진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 ‘제안했다’와 ‘반영했다’를 구분해야 해.”

[직접 확인] 확인할 문장: 제안 내용과 실제 수정 결과를 비교하자.

언어·매체: 규칙의 적용 조건부터

[창작 수업 예문] 창작 연습: 어떤 안내문이 “직접 인용한 문장은 따옴표로 구분하고 발화자를 표시한다”고 정했다. 예시 기사에는 따옴표는 있지만 발화자가 빠져 있다.

[선생님 설명] 제이든양 선생님: “형식이 비슷하다고 규칙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필요한 조건이 둘이면 둘 다 맞아야 해. 이건 특정 국어 문법의 공식 규정을 대체하는 설명이 아니라 규칙 적용을 연습하는 예시야.”

[직접 확인] 확인할 문장: 제시된 두 조건 중 무엇이 빠졌는지 표시하자.

제이든양 선생님 | 심화 확장 수업

문학·화법·작문·언어·매체를 한 단계 깊게 읽는 수업

먼저 읽어 봐. 문제를 맞히는 순간보다, 어려웠던 선택지를 근거로 가려 낸 순간에 실력이 쌓여. 각 단원은 예고된 풀이 기술을 소개한 뒤 선생님의 실제 판단, 혼자 푸는 문제, 다섯 선택지 해설 순서로 구성했어.

이번 확장에서 배우는 네 가지

문학 심화 1 | 현대시 두 편: 같은 장소를 봐도 마음은 다르다

문학 심화 2 | 고전소설식 창작: 인물의 말과 속내는 다를 수 있다

화법과 작문 심화 | 발표·토의·고쳐쓰기: 실제로 반영된 내용을 찾아라

언어와 매체 심화 | 문법은 외운 이름보다 문장에 적용하는 게 먼저다

앞서 연습한 도서관·과학·정책·소설을 기억하지? 이번에는 시·고전 서사·발표와 글 수정·문법과 매체 자료까지 연습해 보자. 뒤에는 45문항 실전연습이 이어져.

문학 심화 1 | 현대시 두 편: 같은 장소를 봐도 마음은 다르다

이런 적 있지? 시를 읽자마자 "외로움"이라고 한 단어를 찍지 마. 화자가 무엇을 보고, 어떤 행동을 했고, 마지막에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찾아야 해. 시는 정답을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말의 변화를 따라가는 문제야.

제이든양 선생님의 실전 첫 동작

선생님 시범: (가)는 창을 닫으려다 멈추고 종이를 펴 놓았어. 누가 오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바깥 소리를 받아들이지. (나)는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의자를 옮기고 문을 열어 뒀어. 두 작품에 공통으로 있는 건 "미래를 확정할 수 없지만 작은 준비는 한다"는 태도야.

훈련 시간 | 두 작품 읽기 + 4문항: 첫 연습 9~11분

이번 수업의 연결 요령 | TIP 03·05·07·10·12 / 화자의 말과 실제 행동 구별

처음 보는 창작 지문 / 작품

(가) <닫지 않은 창> — 창작 시
저녁의 교실에 마지막 빛이 남고
책상 위 지우개 가루는 천천히 식는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다 손을 멈춘다.
운동장 너머에서 자전거 벨이 울린다.
누군가 돌아오는 소리일까,
아니면 오늘도 지나가는 소리일까.
알 수 없어도 바람을 잠깐 들인다.
흩어진 종이 한 장을 다시 펴 놓는다.

(나) <빈 의자> — 창작 시
비가 그친 마루회관 앞
낡은 의자에 물방울이 하나 남았다.
나는 의자를 안쪽으로 옮긴다.
앉을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지나가는 이가 비를 피하던 자리가
내일은 잠깐 쉬어 갈 자리가 되기를.
손끝에 묻은 물기를 털며
문을 조금 열어 두고 돌아선다.

독립 풀이 — 정답은 뒤쪽에서 확인

문제 E1. 두 작품의 공통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나간 일을 완전히 잊고 앞으로의 일을 외면한다.
- ② 앞으로 일어날 일을 확정하지 못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한 가능성을 남겨 둔다.
- ③ 남의 평가를 두려워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 ④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와 관계를 끊으려 한다.
- ⑤ 확신할 수 없는 일은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문제 E2. (가)의 "자전거 벨"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실 밖의 소리를 화자가 듣는 장면에 등장한다.
- ② 누군가가 돌아오는 것인지 화자가 확정하지 못한다.
- ③ 화자가 창문을 닫으려다 손을 멈춘 다음에 그 소리가 들린다.
- ④ 화자는 소리의 주인을 이미 확인했고 그 사람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판단한다.
- ⑤ 바깥세계를 잠시 받아들이는 태도와 연결해 읽을 수 있다.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문제 E3. 두 작품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이미 도착한 사람을, (나)는 이미 의자에 앉은 사람을 직접 묘사한다.
- ② (가)와 (나) 모두 화자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
- ③ (가)는 소리를, (나)는 물방울과 의자를 통해 주변 공간을 그린다.
- ④ (가)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나)는 실내의 모든 문을 닫는다.
- ⑤ (가)와 (나)는 앞으로의 일을 확정된 사실로 서술한다.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문제 E4. <보기> 두 시에서는 작은 행동이 관계를 향한 태도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작품의 근거를 넘어 미래의 결과까지 확정해서는 안 된다. <보기>를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문을 열어 둔 행동은 다음 날 실제 방문자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 ② (가)의 종이를 펴 놓는 행동은 화자가 외부의 모든 소리를 거부함을 뜻한다.
- ③ (가)와 (나)의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가)의 자전거 벨은 다음 날 시험이 취소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⑤ (나)의 물방울은 의자를 앉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결론을 확정한다.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선생님의 풀이 | 문학 심화 1

잘 봐. 정답 번호만 외우는 건 연습이 끝난 게 아니야. 선택지가 틀리는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하고, 그 표현이 나온 근거까지 찾으면 이 단원이 끝난 거야.

문제 E1 정답 ②

판단 과정: (가)는 창을 잠깐 열고, (나)는 의자를 준비해 뒀. 불확실함과 작은 행동이 함께 나타나.

- ① 오답 — 기억을 완전히 잊겠다는 말은 없어.
- ② 정답 — 두 작품에서 확인되는 공통 태도야.
- ③ 오답 — 둘 다 실제로 행동하고 있어.
- ④ 오답 — 창과 문을 열어 두는 모습은 단절과 달라.
- ⑤ 오답 — 불확실해도 작은 준비를 한다는 점과 반대야.

문제 E2 정답 ④

판단 과정: 시에서는 누가 소리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 "이미 확인"은 지문에 없는 사실을 더한 거야.

- ① 오답 — 시 속 사건에 맞아.
- ② 오답 — "누군가...아니면"이라는 의문이 근거야.
- ③ 오답 — 손을 멈춘 다음에 벨 소리가 들려.
- ④ 정답 — 확정하지 않은 것을 확정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
- ⑤ 오답 — 창문을 잠시 열어 두는 행동으로 설명 가능해.

문제 E3 정답 ③

판단 과정: 두 작품의 감각적 소재부터 구별해 보면 (가)는 소리, (나)는 물방울·의자야.

- ① 오답 — 두 작품 모두 그 사람을 확정하지 않아.
- ② 오답 — 타인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아.
- ③ 정답 — 작품에 실제로 나온 소재 비교야.
- ④ 오답 — 창을 열고 종이를 펴고, 의자를 옮겨.
- ⑤ 오답 — 희망과 확정은 달라.

문제 E4 정답 ③

판단 과정: <보기>는 행동의 의미를 묻되 결과를 지어내지 말라고 해. 두 시에서 실제로 나온 작은 준비를 근거로 판단해야 해.

- ① 오답 — 미래 방문 여부는 쓰지 않았어.
- ② 오답 — (가)는 창을 열어.
- ③ 정답 — 작품 속 행동에 맞는 적절한 적용이야.
- ④ 오답 — 시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 ⑤ 오답 — 물기를 털며 의자를 안쪽으로 옮긴 거야.

12가지 요령을 실제로 쓴 장면

발문 확인 → 지문 위치 기억 → 선택지에서 바뀐 단어 찾기 → 근거 문장 확인 → 두 선택지 비교 → 마지막으로 발문 조건 재검토. TIP11(보류·복귀)은 문제가 막힐 때 사용하는 운영법이라 모든 문제에서 쓸 필요가 없어.

시간 기록: 지문/작품 읽기 ____분 / 문제 판단 ____분 / 총 ____분 / 근거를 확실히 찾은 문항 ____/4

문학 심화 2 | 고전소설식 창작: 인물의 말과 속내는 다를 수 있다

이런 적 있지? 고전문학에서 말을 멋지게 했다고 그 사람이 옳은 건 아니야. 누가 누구에게 왜 말했는지, 그 말을 들은 다른 인물이 무엇을 알았는지 따로 표시하면 내용이 쉬워져.

제이든양 선생님의 실전 첫 동작

선생님 시범: 박 노인은 전체 기록과 사용 가능 여부를 구분했어. 최 생원은 기록된 100섬만 들었으니 현감의 결정을 오해했지. 윤서는 밤중의 행동을 봤지만 이유는 몰랐어. 마침내 80섬은 즉시 배분, 10섬은 말린 뒤, 10섬은 폐기야. 마지막에서 최 생원과 윤서의 반성이 서로 다른 점도 놓치지 마.

훈련 시간 | 장면 읽기 + 4문항: 첫 연습 10~12분

이번 수업의 연결 요령 | TIP 01·03·08·10·12 / 사건의 순서와 인물별 정보 구별

처음 보는 창작 지문 / 작품

가상의 옛 고을 청송현에 홍수가 나 곡식 창고의 문턱까지 물이 차올랐다. 현감은 백성에게 나누어 줄 곡식이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창고지기 박 노인에게 명했다. 박 노인은 장부를 살펴 "기록에는 백 섬이라 적혔으나, 그중 스무 섬은 젖어 먹을 수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현감은 스무 섬을 곧바로 쓸 수 있는 곡식에 포함하지 말고 상태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상인 최 생원은 현감 앞에 나아가 "창고에 백 섬이 있으니 굶주리는 집에 오늘 백 섬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현감은 "장부에 적힌 수와 지금 쓸 수 있는 수가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하오"라고 대답했다. 최 생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며 "현감이 재물을 아껴 백성을 늦게 돕는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박 노인이 말한 것은 곡식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였다.

그날 밤 마을 젊은이 윤서는 창고 앞에서 젖은 포대를 옮기는 이들을 보았다. 윤서는 이 일이 곡식을 몰래 빼돌리는 일인지, 물에 젖은 것을 분리해 놓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려다가 그만두고 이튿날 장부를 공개하여 확인하자고 건의했다. 현감은 건의를 받아들여 마을 사람 둘과 박 노인이 함께 포대의 수와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음 날 확인 결과 백 섬 가운데 스무 섬은 물에 젖어 있었고, 그 가운데 열 섬은 말려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정되었다. 나머지 열 섬은 폐기해야 했다. 현감은 당장 나눌 수 있는 여든 섬을 먼저 배분하고, 말릴 수 있는 열 섬은 상태가 확인된 뒤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최 생원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제는 장부의 숫자만 듣고 서둘러 판단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서는 사람을 의심했던 일을 부끄러워했지만, 확인 절차를 요청한 일까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현감 역시 "의심을 없애려면 명령만 하지 말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도 알려야 하오"라고 말했다. 그 뒤 청송현에서는 장부의 수량과 곡식의 상태를 나누어 적는 규칙을 마련했다.

독립 풀이 — 정답은 뒤쪽에서 확인

문제 F1. 사건의 전개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것은?

- ① 백 섬 모두 즉시 배분 → 확인 → 장부 작성
- ② 장부 기록 확인 → 상태 조사 → 여든 섬 우선 배분
- ③ 물에 젖은 곡식 전량 폐기 → 현감의 사과 → 배분
- ④ 최 생원의 배분 결정 → 윤서의 취소 → 현감의 명령
- ⑤ 박 노인의 기록 폐기 → 윤서의 확인 → 최 생원의 승인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문제 F2. 최 생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부의 숫자를 곧바로 배분 가능한 곡식으로 여겼다.
- ② 현감이 백성을 늦게 돕는다고 오해했다.
- ③ 젖은 곡식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다.
- ④ 다음 날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인정했다.
- ⑤ 박 노인이 곡식의 상태를 설명한 뒤에도 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일부러 숨겼다.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문제 F3. 곡식 수량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 ① 즉시 배분 80섬, 확인 뒤 재사용 가능 10섬, 폐기 10섬
- ② 즉시 배분 90섬, 재사용 가능 10섬, 폐기 없음
- ③ 즉시 배분 100섬, 확인 뒤 10섬 추가 배분
- ④ 즉시 배분 70섬, 재사용 가능 20섬, 폐기 10섬
- ⑤ 즉시 배분 80섬, 재사용 가능 20섬, 폐기 20섬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문제 F4. 윤서의 행동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의 정체와 행동의 목적을 확인했으므로 처벌을 요구했다.
- ② 사람을 의심한 것과 확인 절차를 제안한 것을 구분해 돌아봤다.
- ③ 장부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다.
- ④ 자신의 의심이 정확했으므로 최 생원에게 상을 요구했다.
- ⑤ 현감의 명령을 거부하고 곡식을 모두 버렸다.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선생님의 풀이 | 문학 심화 2

잘 봐. 정답 번호만 외우는 건 연습이 끝난 게 아니야. 선택지가 틀리는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하고, 그 표현이 나온 근거까지 찾으면 이 단원이 끝난 거야.

문제 F1 정답 ②

판단 과정: 장부 기록 → 상태 확인 → 80점 우선 배분 순서야.

- ① 오답 — 상태 확인 이전에 100점을 배분하지 않았어.
- ② 정답 — 실제 사건의 순서야.
- ③ 오답 — 젖은 20점 중 10점은 재사용 가능해.
- ④ 오답 — 최 생원에게 배분 결정권은 없어.
- ⑤ 오답 — 기록 폐기는 등장하지 않아.

문제 F2 정답 ⑤

판단 과정: 최 생원은 젖은 곡식에 관한 말을 듣지 못했어. 거짓말을 일부러 했다는 근거가 없지.

- ① 오답 — 첫 대화의 내용이야.
- ② 오답 — 충얼거린 말이 근거야.
- ③ 오답 — 서술자가 직접 알려 줘.
- ④ 오답 — 마지막 발언이 근거야.
- ⑤ 정답 — 알고 숨겼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 F3 정답 ①

판단 과정: 100점=마른 80점+젖은 20점. 젖은 20점 중 10점 재사용, 10점 폐기야.

- ① 정답 — 지문 수량과 정확히 맞아.
- ② 오답 — 10점을 폐기했어.
- ③ 오답 — 장부 전체보다 더 많이 배분할 수 없어.
- ④ 오답 — 처음 젖지 않은 건 80점이야.
- ⑤ 오답 — 젖은 20점을 이중으로 세었어.

문제 F4 정답 ②

판단 과정: 윤서는 사람을 선불리 의심한 건 반성하지만 확인 요청은 가치 있었다고 여겨.

- ① 오답 — 그 행동이 어떤 목적이었는지 처음에는 몰랐어.
- ② 정답 — 마지막 문단에 두 생각이 함께 나와.
- ③ 오답 — 장부 공개를 제안했어.
- ④ 오답 — 의심이 사실이라고 확인되지 않아.
- ⑤ 오답 — 그런 행동은 없어.

12가지 요령을 실제로 쓴 장면

발문 확인 → 지문 위치 기억 → 선택지에서 바뀐 단어 찾기 → 근거 문장 확인 → 두 선택지 비교 → 마지막으로 발문 조건 재검토. TIP11(보류·복귀)은 문제가 막힐 때 사용하는 운영법이라 모든 문제에서 쓸 필요가 없어.

시간 기록: 지문/작품 읽기 ____분 / 문제 판단 ____분 / 총 ____분 / 근거를 확실히 찾은 문항 ____/4

화법과 작문 심화 | 발표·토의·고쳐쓰기: 실제로 반영된 내용을 찾아라

이런 적 있지? 화작은 말이 길게 나와도 핵심은 누가 무엇을 제안했고, 실제 안내문에는 무엇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야. "좋은 의견"과 "반영된 의견"은 달라.

제이든양 선생님의 실전 첫 동작

선생님 시범: 발문에 "최종 공지"가 보이면 맨 마지막 수정 공지로 돌아가야 해. "영구"는 초안에만 있었고 최종은 "일주일"이야. 관찰은 점심시간에만 했고, 개선 효과는 아직 검증하지 않았어. 붙이는 건 결정했지만 추가 상황의 재인쇄는 제안 단계야.

훈련 시간 | 발표·회의록·초안 + 4문항: 첫 연습 10~12분

이번 수업의 연결 요령 | TIP 01·02·03·07·08·09·12 / 제안과 최종 반영을 분리

처음 보는 창작 지문 / 작품

[발표] 방송부 민서는 "학교 복도에 놓인 분리배출함을 편하게 쓰자"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민서는 지난주 점심시간에만 관찰한 결과, 복도 A에서는 60번 중 18번, 복도 B에서는 40번 중 20번 분리배출이 잘못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하루 전체의 잘못된 배출이 A에서 더 많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관찰 횟수와 조사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민서는 통 이름보다 사진과 간단한 예시를 함께 붙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의] 다음 날 학생회 토의에서 은호는 "A와 B 모두 사진 안내를 넣되 복도 B에는 작은 글씨를 피하자"고 제안했다. 가희는 "사진 아래에 일주일간 자주 헛갈린 물건을 두 종류씩 표시하자"고 말했다. 도윤은 "일단 안내문을 붙이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조사해서 달라졌는지 보자"고 했다. 회의에서는 세 제안을 모두 시험해 보기로 했지만, 시험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안내 방식을 최종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첫 안내문 초안]

제목: 분리배출함, 이제 헛갈리지 마세요!

본문: 학교의 모든 복도에서 분리배출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사진 안내문은 다음 주부터 모든 복도에 영구 설치됩니다. 어떤 물건이든 표시된 사진만 보고 버리면 정확합니다.

[수정 의견] 민서는 "이 초안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개선 효과가 이미 나타난 것처럼 쓰였어"라고 지적했다. 은호는 "영구 설치가 아니라 일주일간 시범 운영이야"라고 했고, 가희는 "사진이 모든 물건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예시와 예외를 적어야 해"라고 했다. 학생회는 초안을 고쳐 "복도 A와 B에 사진·예시 안내문을 일주일간 시범 부착한 뒤, 같은 시간대에 관찰해 결과를 비교한다"고 공지했다.

[추가 상황] 시범 운영 첫날, 복도 B의 사진 안내 일부가 떨어져 학생 두 명이 글을 읽지 못했다. 민서는 부착 상태를 점검하고 큰 글씨로 다시 인쇄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는 아직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았다.

독립 풀이 — 정답은 뒤쪽에서 확인

문제 G1. 발표에 사용된 자료의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60번 중 18번이므로 잘못된 비율이 30%이다.
- ② B는 40번 중 20번이므로 잘못된 비율이 20%이다.
- ③ A에서 잘못된 배출 횟수가 더 많으므로 하루 전체에서도 A가 반드시 심각하다.
- ④ 발표의 자료는 모든 요일과 시간대를 빠짐없이 조사한 것이다.
- ⑤ 분리배출 오류율은 두 복도에서 동일하다.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문제 G2. 최종 공지에 실제로 반영된 내용만을 고른 것은?

- ① 사진 안내문의 영구 설치 확정
- ② 모든 복도에서 개선 효과가 이미 확인됨
- ③ 사진·예시 안내문을 A와 B에 일주일 시범 부착하고 관찰
- ④ 큰 글씨 재인쇄가 이미 완료됨
- ⑤ 어떤 물건이든 사진만 보고 정확히 분리배출 가능함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문제 G3. 첫 안내문 초안을 고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복도"라는 조사 범위를 A와 B로 좁힌다.
- ② "영구 설치"를 "일주일 시범 부착"으로 고친다.
- ③ 개선되었다는 성과 표현을 결과 확인 뒤로 미룬다.
- ④ 사진만 보면 모든 물건을 정확히 버릴 수 있다는 단정 표현을 조정한다.
- ⑤ 결과가 아직 없지만 학생회의 설득력을 위해 개선 효과를 이미 확인했다고 적는다.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문제 G4. 추가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판단은?

- ① 복도 B 안내가 떨어졌으므로 모든 사진 안내가 실패했다는 결론이 확정된다.
- ② 민서의 큰 글씨 재인쇄 제안은 이미 실제로 시행되었다.
- ③ 최종 공지에 없는 제안은 누구도 할 수 없다.
- ④ 안내문 부착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재인쇄 실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⑤ 복도 A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다음 조사를 취소해야 한다.

내가 고른 답: ____ 근거 표현: _____ 판단 시간: ____초

선생님의 풀이 | 화법과 작문 심화

잘 봐. 정답 번호만 외우는 건 연습이 끝난 게 아니야. 선택지가 틀리는 이유를 한 줄로 설명하고, 그 표현이 나온 근거까지 찾으면 이 단원이 끝난 거야.

문제 G1 정답 ①

판단 과정: $A=18 \div 60=30\%$, $B=20 \div 40=50\%$. 점심시간 조사이고 횟수와 비율을 나눠야 해.

- ① 정답 — A 계산이 정확해.
- ② 오답 — B는 50%야.
- ③ 오답 — A의 오류 횟수 18은 B의 20보다도 적고 하루 전체도 미조사야.
- ④ 오답 — 점심시간만 관찰했어.
- ⑤ 오답 — 30%와 50%야.

문제 G2 정답 ③

판단 과정: 회의에서 제안한 것, 초안에 적힌 것, 최종 공지에 확정된 것을 구분해야 해.

- ① 오답 — 초안의 과장된 표현이야.
- ② 오답 — 효과는 아직 확인 전이야.
- ③ 정답 — 최종 공지와 같아.
- ④ 오답 — 추가 제안의 반영은 미확인이야.
- ⑤ 오답 — 사진만으로 모든 물건을 판단할 수 없어.

문제 G3 정답 ⑤

판단 과정: 해당 결과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어. 학생회의 설득력도 허위의 확정을 정당화할 수 없어.

- ① 오답 — 실제 범위를 반영해.
- ② 오답 — 회의 결정과 맞춰.
- ③ 오답 — 결과 확인 이전에는 단정하지 않아.
- ④ 오답 — 예외와 예시를 함께 안내해야 해.
- ⑤ 정답 — 검증 이전의 효과를 사실로 꾸미는 오류야.

문제 G4 정답 ④

판단 과정: 문제가 발견된 사실과 해결 방안이 실행된 사실은 달라.

- ① 오답 — 모든 안내의 실패를 확정할 수 없어.
- ② 오답 — 반영 여부는 기록되지 않았어.
- ③ 오답 — 의견은 계속 제시할 수 있어.
- ④ 정답 — 이미 확인된 문제와 미확인 실행 상태를 구별했어.
- ⑤ 오답 — A의 상황과 다음 조사를 연관 지을 수 없어.

12가지 요령을 실제로 쓴 장면

발문 확인 → 지문 위치 기억 → 선택지에서 바뀐 단어 찾기 → 근거 문장 확인 → 두 선택지 비교 → 마지막으로 발문 조건 재검토. TIP11(보류·복귀)은 문제가 막힐 때 사용하는 운영법이라 모든 문제에서 쓸 필요가 없어.

시간 기록: 지문/작품 읽기 ____분 / 문제 판단 ____분 / 총 ____분 / 근거를 확실히 찾은 문항 ____/4

마지막 점검: 자신에게 맞는 순서를 찾자

제이든양 선생님의 조언: "문제부터 보는 방식이 항상 빠른 건 아니야. 물어보는 정보가 분명한 문제는 발문부터 훑어도 좋고, 문학의 전체 정서나 두 관점의 비교가 중심이면 작품의 흐름을 먼저 읽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첫 번째 연습: 질문 먼저 / 두 번째 연습: 글 먼저 / 세 번째 연습: 질문 핵심만 보고 글 읽기. 서로 다른 처음 보는 지문으로 시도하고, 맞힌 개수·근거 정확도·시간을 함께 비교하자.

한 가지 더 연습하자

이번 네 수업은 모두 처음 보는 창작 작품과 자료로 연습했어.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풀 때는 답 번호보다 지문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말을 찾아 표시해 봐.

수험생 점검표

현대시: 화자가 실제 한 말·행동과 내가 추측한 마음을 구분했나? ☐ 예 ☐ 아니오

고전서사: 말한 사람, 들은 사람, 사건의 순서를 따로 확인했나? ☐ 예 ☐ 아니오

화법과 작문: 제안·초안·최종 반영 사항을 나누어 읽었나? ☐ 예 ☐ 아니오

언어와 매체: 외운 규칙을 실제 단어·문장·게시물에 적용했나? ☐ 예 ☐ 아니오

수능 국어, 이 한 장부터 바꿔 보자

제이든양 선생님 | FINAL 7 실전 수업 · 제 1 회

긴 지문을 보고 바로 읽기 시작하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바꿔 보자.

15초 행동: ① 질문 끝 확인 → ② 찾을 대상 정하기 → ③ 해당 문단 읽기 → ④ 선택지 근거 확인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맞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틀린 것 하나를 찾는 문제야. (시험지에는 실제로 “않은” 두 글자에 동그라미 쳐.)

선생님은 이렇게 읽어

문제가 “실제 이용한 사람이 모두 승인받은 사람인가?”를 묻는다면, 글을 읽기 전에 “승인”과 “실제 이용”이 같은 단계인지부터 확인할 준비를 해. 모든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어.

다만 글 전체의 주장이나 <보기>의 여러 조건을 함께 묻는 문제라면, 그 부분만 찾아 읽어서는 위험해. 그때는 문단 사이의 관계까지 읽는 쪽으로 바꿔야 해.

바로 따라 할 짧은 문제

가상 주민센터 이용권 안내

한 달 동안 이용권 신청자는 120 명이었다. 이 중 90 명이 승인을 받았다. 승인받은 사람 가운데 70 명이 실제로 이용권을 사용했다. 승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용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신청자는 120 명이다.
- ② 승인된 사람은 신청자보다 적다.
- ③ 승인된 사람은 모두 이용권을 사용했다.
- ④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70 명이다.
- ⑤ 승인과 실제 이용은 구별할 수 있다.

☐ 질문의 핵심어: _____ ☐ 지문의 근거: _____

학생 체크: 답을 고르기까지 _____ 초 / 내가 확신한 이유: _____

정답만 보는 대신,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가자

1 번 정답은 ③이야. “승인”은 90 명인데 “실제 사용”은 70 명이야. 20 명은 승인됐어도 사용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두”가 사실과 어긋나.

그런데 “모두”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오답인 건 아니야. 숫자나 조건이 실제로 전원을 뒷받침하면 맞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반드시 지문의 근거와 대조해야 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이 달라질까?

문제 2. 전체 신청자 가운데 실제 사용자의 비율로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25% ② 58.3% ③ 75% ④ 77.8% ⑤ 22.2%

선생님 풀이: “전체 신청자”라고 묻고 있으니 전체는 120 명이야. 실제 사용자는 70 명. 따라서 $70 \div 120 \approx 58.3\%$. 정답 ②. $70 \div 90 \approx 77.8\%$ 는 “승인자 중 사용자”를 물을 때의 비율이야.

시험장에서 딱 기억할 것

- ① “않은”을 먼저 확인해.
- ② “누구 중 누구?”라고 물으면 전체(분모)를 먼저 찾아.
- ③ 선택지가 정답처럼 보여도 근거와 다르면 버려.

왜 이 훈련을 먼저 할까?

2017~2026 기출을 정리한 기존 연구 기록에는 조건·예외, 관점 비교, 자료 해석, 〈보기〉적용 등의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정확한 10 개년 빈도 순위는 원문 재검증 중이지만, 최근 난도 자료와 EBS 의 대표 문항 설명에서 이 판단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

2025 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주제통합형 독서의 관점 비교·적용 문제가 당시 이감 분석의 오답률 상위에 포함됐어. 2027 학년도 9 월 모평에서도 EBS 는 독서 8·13 번을 지문 원리를 새 사례에 적용하는 대표 문제로 설명했어.

그래서 이번 수업은 “질문을 먼저 읽는 방법”을 무작정 반복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요구하는 행동을 먼저 결정하는 데 집중해.

새로운 지문에서도 통할까?

이제 새로운 소재로 옮겨 보자. 아래는 학습용으로 창작한 가상 사례야. 실제 정책이나 연구 결과가 아니야.

가상 학교의 교실 환경 조사

다운고는 오전 수업 시작 전 교실 온도와 집중도를 살펴보는 실험을 했다. A 반은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했고, B 반은 24도로 유지했다. 두 반 모두 같은 시간에 30분간 문제를 풀었다. A 반의 평균 정답 수는 16개, B 반은 18개였다. 다만 두 반은 평소 학업 성취도와 수면 시간에서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구진은 온도만으로 정답 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달에는 학생을 무작위로 두 조건에 배정해 다시 관찰하기로 했다.

문제 3. 이 조사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판단은?

- ① B 반의 성적이 높았으므로 24도는 반드시 집중력을 높인다.
- ② A 반의 평균 정답 수는 B 반보다 2개 적다.
- ③ 두 반이 같은 시간에 풀었으므로 수면 시간의 영향은 사라졌다.
- ④ 연구진은 온도가 집중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 ⑤ 다음 달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조사의 인과관계는 이미 확정됐다.

문제 4. <보기>를 참고한 추가 조사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관찰된 차이가 특정 조건 때문에 발생했는지 살펴려면,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통제하거나 무작위 배정 등으로 비교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① 수면 시간과 성취도가 다른 학생들을 조건별로 의도적으로 분리한다.
- ② 두 반의 온도를 정한 뒤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다.
- ③ 온도뿐 아니라 문제도 다르게 만들어 정답 수만 비교한다.
- ④ 학생들을 무작위로 나눠 가능한 한 같은 조건에서 다시 조사한다.
- ⑤ 이번 조사 평균값을 개인별 집중력의 확정치로 삼는다.

답을 고르기 전에 □ 무엇을 묻나? □ 어떤 정보가 필요하나? □ 지문의 “다만” 뒤 조건을 읽었나?

제이든양 선생님의 실전 풀이

3 번: 숫자와 원인은 다른 이야기야

먼저 발문은 “가장 적절한 판단”을 고르라고 했어. 선택지 ①의 “반드시”, ⑤의 “이미 확정”에 눈이 가겠지? 하지만 그런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우지 말고 지문의 마지막 조건을 봐. 연구진은 두 반의 수면과 성취도 차이를 알고 있어. 따라서 이번 숫자만으로 원인을 확정할 수 없어.

②는 A 반 16 개, B 반 18 개라는 관찰 결과만 옮겼지. 원인까지 과장하지 않았으니까 맞아. 정답 ②.

4 번: 〈보기〉를 읽었으면 조건을 지문에 붙여

〈보기〉가 말하는 핵심은 “다른 원인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거야. 지문에도 무작위 배정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④는 그 두 조건에 모두 맞지. 정답 ④.

선택지 ①은 집단 차이를 일부러 키워 비교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②·⑤는 근거를 넘어서 결론을 확정하며, ③은 문제 자체가 달라져 비교 조건을 흐리게 해.

오늘의 실전 연결표

TIP 01 문제 먼저 훑기: 발문이 “판단”인지 “〈보기〉 적용”인지 확인

TIP 02 질문의 요구 구별: 적절한 것 찾기

TIP 06 숫자보다 기준: 평균 정답 수 16 과 18 확인

TIP 07 달라진 표현 찾기: “반드시”, “이미 확정”의 과장

TIP 09 〈보기〉 조건 적용: 다른 요인 통제·무작위 배정

한 문제에 모든 TIP 을 쓰는 게 아니야. 필요한 요령 몇 개를 자연스럽게 꺼내 쓰는 게 진짜 실전 실력이야.

<보기>를 읽었는데도 틀린다면

긴 지문을 다시 읽기 전에, <보기>가 요구하는 조건을 3 칸에 나누어 보자.

시험장에서 쓰는 20 초 동작

① 누구의 이야기인가	② 언제·어떤 조건인가	③ 무엇을 결론 내리나
적용 대상과 주체 표시	예외·시점·숫자에 밑줄	선택지 조건을 바꿨는지 확인

예) “승인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은 “승인받은 사람이 모두 이용했다”와 같지 않아. 앞 문장은 가능 조건, 뒤 문장은 실제 결과를 말하거든.

두 선택지가 헛갈릴 때

선택지 전체를 반복해서 읽지 마. 다른 단어 딱 하나를 찾아. “신청”인지 “승인”인지, “이용”인지, “모든”인지, “가능하다”인지 “반드시”인지를 비교해.

단, 모든 문제에서 발문만 보고 지문을 건너뛰면 안 돼. 두 관점의 관계나 글 전체의 주장을 묻는 문제는 문단 간 연결을 먼저 잡아야 해.

바로 연습할 장문

다음 지문은 실제 제도나 통계가 아닌 독립 창작 연습 자료야. 타이머를 켜고 정확도를 먼저 확인하자. 첫 시도 권장 훈련시간은 지문 읽기 포함 12~15 분이며, 실제 시험 공식 제한시간이 아니야.

읽으며 표시할 것: [신청] [승인] [예약] [실제 이용] / 수치의 분모 / 비교 가능한 조건

[창작 독서 지문] 공공자전거 이용 정책의 효과는?

[1] 가온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이용권을 제공했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이용권 발급 승인을 받는다. 승인 받은 회원은 자전거를 예약할 수 있지만, 예약만으로 실제 이용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시점부터 이용 기록이 생성된다. 첫 30 분은 요금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2] 시는 서로 다른 두 지역 A와 B에 이용권을 발급했다. A 지역에서는 400 명에게 이용권을 발급했고, 이 중 300 명이 한 번 이상 예약했으며 240 명이 잠금장치를 해제했다. B 지역에서는 500 명에게 발급했고, 350 명이 예약했으며 280 명이 해제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여러 번 예약하거나 이용했더라도 각 단계에서 한 명으로만 계산한다.

[3] 발급자를 분모로 삼은 실제 이용 비율은 A 지역 60%, B 지역 56%이다. 반면 예약자를 분모로 삼으면 두 지역 모두 실제 이용 비율이 80%다. 시 담당자는 어떤 비율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4] 한편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예약 시점에 기상 경보가 발효되면, 회원은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전까지 예약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해제 후에는 이미 이용이 시작된 것이므로 단순 예약 취소로 처리하지 않는다. 기상 경보가 없는 경우의 취소 규정은 이번 조사에서 다루지 않았다.

[5] 연구진은 A 지역의 실제 이용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이용권 정책이 A 지역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 두 지역의 자전거 거치대 밀도와 대중교통 연결 정도가 달랐으며, 신청자도 무작위로 지역에 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지역의 교통 여건과 발급자 특성을 함께 고려할 계획이다.

[6] 실제 이용자 중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A 지역 202 명, B 지역 120 명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각각 152 명과 90 명이었다. 연구진은 이 숫자로 모든 발급자의 만족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이용자와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은 회원들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 1~2

문제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A 지역의 이용권 발급자가 B 지역보다 많았다.
- ② 예약자 중 실제 이용자의 비율은 두 지역이 같았다.
- ③ A 지역에서 예약한 300 명은 모두 실제 이용했다.
- ④ 발급받지 않은 회원도 잠금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⑤ A 지역의 발급자 전원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했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로 쓴 문장/조건: _____

문제 2. 두 지역의 실제 이용 비율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지역은 B 지역보다 발급자 대비 이용 비율이 4% 높았다.
- ② B 지역은 A 지역보다 발급자 대비 이용 비율이 4%포인트 높았다.
- ③ A 지역은 B 지역보다 발급자 대비 이용 비율이 4%포인트 높았다.
- ④ A 지역은 B 지역보다 예약자 대비 이용 비율이 4%포인트 높았다.
- ⑤ 두 지역의 발급자 대비 이용 비율은 동일하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로 쓴 문장/조건: _____

〈보기〉의 조건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자

〈보기〉

갑: A 지역에서 발급을 받고 예약했으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을: B 지역에서 발급받고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20 분간 이용했다. 병: A 지역에서 발급받아 예약했지만 기상 경보가 발효된 뒤 해제 전에 취소했다. 정: B 지역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40 분간 이용했다. 네 사람 모두 각 지역의 발급 대상자라고 가정한다.

문제 3. 〈보기〉의 네 사람을 이용 기록 기준으로 분류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병은 예약했으므로 실제 이용자로 포함된다.
- ② 을은 30 분 안에 반납했으므로 실제 이용자로 기록되지 않는다.
- ③ 을·정은 잠금장치를 해제했으므로 실제 이용자에 포함된다.
- ④ 병은 기상 경보가 발효돼 취소했으므로 실제 이용자에 포함된다.
- ⑤ 정은 추가 요금을 내므로 발급자 집계에서 제외된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로 쓴 문장/조건: _____

문제 4. 연구진의 판단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 ① A 지역의 이용 비율이 높으므로 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고 확정할 수 있다.
- ② 두 지역의 예약자 대비 이용 비율이 같으므로 거치대 밀도도 같다고 단정할 수 있다.
- ③ 자전거 거치대 밀도와 대중교통 연결 정도의 차이는 결과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④ 발급자 수가 다르므로 두 지역에서는 어떤 비율도 계산할 수 없다.
- ⑤ 무작위 배정이 아니었으므로 실제 이용 기록 자체는 잘못된 수치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로 쓴 문장/조건: _____

문제 5.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석하거나 추가 조사할 때 가장 적절한 태도는?

- ① A 지역 응답자의 만족 비율이 더 높으므로 A 지역 전체 발급자가 더 만족한다고 확정한다.
- ② B 지역에서는 실제 이용자 가운데 120 명만 응답했으므로 모든 B 지역 이용자가 만족했다.
- ③ 두 지역의 응답자 수가 다르므로 응답자의 만족 비율조차 계산할 수 없다.
- ④ 이용하지 않은 발급자와 미응답자의 의견을 보완하여 전체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살핀다.
- ⑤ 발급자 전체를 분모로 삼아 응답자 만족 비율을 계산하면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만족 여부도 알 수 있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로 쓴 문장/조건: _____

정답을 보기 전 체크: [] 각 문제의 분모를 확인했다 [] 신청과 이용을 구별했다 [] 두 지역의 차이가 인과인지 구별했다

선생님의 풀이 시범 — 답보다 근거를 먼저

정답표: 1 번 ② | 2 번 ③ | 3 번 ③ | 4 번 ③ | 5 번 ④

1 번: 예약자 중 실제 이용자, 80% vs 80%

발문은 '일치하는 것'. 두 지역에서 각각 $240 \div 300$, $280 \div 350$ 이므로 둘 다 80%야. ②가 정답.

① A 400 명, B 500 명이라 반대. ③ A 예약 300 명 중 실제 이용 240 명. ④ 승인·예약·해제 단계의 근거 없음. ⑤ A 응답 202 명은 발급 400 명보다 적어.

2 번: %와 %포인트를 구별해야 해

발급자 대비 실제 이용률은 A $240 \div 400 = 60\%$, B $280 \div 500 = 56\%$. 비율의 차이는 4%포인트. ③이 정답.

① 상대적인 비율 변화인 4%라고 잘못 썼어($60/56 - 1 \approx 7.14\%$). ② 높고 낮음이 뒤바뀜. ④ 예약자 기준은 두 지역 모두 80%야. ⑤ 발급자 기준 60%와 56%는 같지 않아.

3 번: <보기>의 주체·시점·행위를 분리

실제 이용 기록은 '잠금장치 해제'부터. 갑·병은 해제하지 않았고, 을·정은 해제했어. ③이 정답.

① 예약=이용으로 바꿨어. ② 무료 30 분을 이용 기록 미생성으로 착각했어. ④ 취소 전 해제 기록 없음. ⑤ 초과 요금 발생은 발급자 여부와 무관해.

4 번: 관찰과 원인은 다르다

연구진이 직접 제시한 다른 요인은 거치대 밀도, 대중교통 연결 정도, 비무작위 배정이야. ③ 정답.

① 비율 차이에서 인과로 뛰어넘음. ② 동일한 예약자 대비 이용률은 교통 여건이 같다는 증거가 아님. ④ 각 지역 분모가 있으므로 계산 가능. ⑤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는 한계가 기록 자체의 거짓을 뜻하지 않아.

5 번: 설문 응답자 ≠ 전체 발급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만족도를 알 수 없어. 그 한계를 보완하자는 ④가 정답.

① 응답자와 전체 발급자를 혼동. ② 120 명은 응답자이지 전체 이용자 280 명이 아님. ③ 응답자 기준 계산 자체는 가능해(A $152/202$, B $90/120$). ⑤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만족 여부를 계산으로 만들 수 없어.

마지막 30 초: 다섯 문제를 한 기술로 묶기

문항	가장 자주 한 실수	시험장에서 다시 할 동작
1	예약과 실제 이용을 같은 일로 봄	단계를 줄글 옆에 ①승인 ②예약 ③해제로 표시
2	분모나 %·%p 혼동	문제에서 “누구 중”을 찾고 숫자를 대입
3	〈보기〉의 사람별 조건을 섞음	갑·을·병·정 옆에 “해제 O/X” 표시
4	차이의 원인을 바로 확정	실험·관찰인지, 다른 변수가 있는지 확인
5	응답자 결과를 전체로 확대	누가 조사에 포함되고 빠졌는지 확인

15 가지 독해 기술 × 12 가지 실전 TIP 에 연결

독해 기술: 단계 구별, 조건 추적, 기준량 찾기, 사실과 추론 분리, 주체/대상 비교를 동시에 연습했어.

실전 TIP: 발문에서 일치/불일치 먼저 확인 → 〈보기〉의 조건 2~3 개 표시 → 선택지의 바뀐 한 단어 찾기 → 숫자의 분모 확인 → 증거가 없으면 단정하지 않기.

모든 문항에 모든 기술을 억지로 쓰지 않아도 돼. 어떤 문제가 와도 “발문 → 근거 → 조건 → 선지”로 돌아올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성공이야.

이제 지문을 가리고 스스로 말해 봐: “예약한 사람이 다 이용한 건 아니야. 비율은 분모에 따라 다르고, 관찰 결과만으로 원인을 확정할 수 없어.”

이 수업은 실전 난도를 재현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창작 훈련이야. 실제 모의고사 80 분 훈련은 선택과목별 45 문항 전체로 별도 진행해.

실전 3 강 · “아닌 것”을 찾는데 왜 맞는 걸 고를까?

이 수업의 목표: 문제의 마지막 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회의에서 제안한 일과 실제 글에 반영한 일을 분리하기.

시험장 15 초 동작

문제의 끝부터 확인	근거를 3 개 상태로 구별	선지의 한 단어를 검증
“적절한 / 적절하지 않은 / 반영되지 않은”에 동그라미	제안함 / 채택함 / 시행함은 서로 다른 단계	전체↔응답자, 예정↔완료, 일부↔모두를 특히 확인

30 초 미니 예시

회의: “예약 변경 기능을 만들자.” 운영 공지: “이번 시범 기간에는 예약 가능한 좌석만 보여준다. 변경 기능은 다음에 검토한다.”
문제: “운영 공지에 반영된 것”을 고르면? → “예약 가능한 좌석을 표시한다.”가 근거 있는 선택이야. “예약 변경 기능을 운영한다.”는 회의의 제안을 실제 시행으로 바꾼 오답이지.
주의!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데, 지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선지를 고르는 실수부터 막아야 해. 부정형 발문은 문제를 한 번 더 읽는 게 아니라, 반드시 표시해.

오늘의 점검

다섯 문제를 푸는 동안 세 가지만 체크해: ① 발문의 긍정·부정 ② 제안·채택·실행 ③ 수치의 분모. 첫 풀이 권장 10~13 분은 학습용 출발점이지 공식 시간 제한은 아니야.

[독립 창작 자료] 자율학습실 대기 개선 안내

(가) 학생회 조사

학생회는 자율학습실 대기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 300 명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240 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 중 150 명은 “대기 시간을 줄이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120 명은 “모바일에서 예약을 변경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90 명은 “이용 시간을 늘리면 좋겠다”고 답했다. 하나의 응답자가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운영회의

학생회는 설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예약 가능한 좌석을 온라인 화면에 표시한다. 둘째, 예약한 뒤에도 모바일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예약 시각보다 10 분 늦으면 자동 취소한다. 운영 담당자는 첫 방안만 11 월 2 일부터 13 일까지 시범 적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둘째 방안은 추가 개발이 필요해 차후 검토하기로 했으며, 셋째 방안은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다) 최종 안내문

“11 월 2 일부터 13 일까지 자율학습실의 예약 가능 좌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용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시범 운영을 평가하고, 이용 시간 연장 여부는 그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습니다. 예약 변경 기능과 지각 자동 취소는 이번 시범 운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 기사 초고에 대한 교사 조언

교사는 학생회의 기사 초고를 읽고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설문 결과를 쓸 때에는 조사 대상자와 실제 응답자를 구분해라. 학생회가 제안한 방안과 운영 담당자가 확정한 방안을 섞지 마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시범 운영의 효과를 이미 확인한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된다.”

표시하며 읽어봐: [조사 대상 300] [응답 240] [150·120·90 복수 선택] / [첫 방안만 채택] / [아직 결과 없음].

바로 풀어 보자 · 창작 5 문항

1 번. (가)~(다)에서 실제로 확정된 운영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11 월 2 일부터 모바일 예약 변경 기능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 ② 예약 시각에 10 분 늦은 학생의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 ③ 11 월 2~13 일에는 예약 가능한 좌석 현황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 ④ 시범 기간 이후 자율학습실 이용 시간 연장은 이미 확정되었다.
- ⑤ 설문 조사 대상 300 명이 모두 최종 안내문 내용에 동의했다.

내 선택: ① ② ③ ④ ⑤ 근거·헛갈린 단어: _____

2 번. (라)의 조언을 반영해 초고에 추가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사 대상 300 명 중 240 명이 설문에 응답했고, 응답자 중 150 명은 대기 안내 개선을 원했다.
- ② 대기 안내 개선을 위한 150 명은 응답자 240 명 중 정확히 절반이다.
- ③ 이용 시간 연장에 찬성한 90 명의 요구에 따라 운영 시간이 즉시 늘어났다.
- ④ 시범 운영 결과 대기 시간이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⑤ 예약 변경 기능은 이번 시범 기간의 핵심 시행 내용이다.

내 선택: ① ② ③ ④ ⑤ 근거·헛갈린 단어: _____

3 번. “대기 안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 ① 응답자 중 50%, 조사 대상자 중 62.5%이다.
- ② 응답자와 조사 대상자 모두 62.5%이다.
- ③ 응답자와 조사 대상자 모두 50%이다.
- ④ 응답자 중 62.5%, 조사 대상자 중 50%이다.
- ⑤ 응답자 중 37.5%, 조사 대상자 중 50%이다.

내 선택: ① ② ③ ④ ⑤ 근거·헛갈린 단어: _____

4 번. (가)에서 세 항목의 응답 수를 합하면 360 명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사 대상자 수가 잘못 기록됐기 때문이다.
- ② 240 명 전원이 반드시 세 항목에 응답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 ③ 실제 설문에 360 명이 참여했지만 240 명으로 축소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 ④ 응답자와 조사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아서 생긴 산술 오류이기 때문이다.
- ⑤ 한 명이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 항목별 응답 수의 합이 응답자 수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선택: ① ② ③ ④ ⑤ 근거·헛갈린 단어: _____

5 번.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회의 제안 중 첫 방안만 시범 운영 대상으로 확정됐다.
- ② 운영 담당자는 예약 시각 10 분 초과 시 자동 취소를 이번에 시행하기로 했다.
- ③ 예약 변경 기능은 추가 개발이 필요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 ④ 시범 운영 결과를 본 뒤 이용 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시범 운영 효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초고에 완료된 성과처럼 쓸 수 없다.

내 선택: ① ② ③ ④ ⑤ 근거·헛갈린 단어: _____

선생님의 풀이 시범: 근거를 어떻게 찾았는가

정답: 1 번 ③ / 2 번 ① / 3 번 ④ / 4 번 ⑤ / 5 번 ②

1 번 정답 ③ | 제안과 확정은 다르다

(나)에서 담당자가 “첫 방안만” 시범 적용하기로 했고, (다)가 좌석 현황 표시를 확정했어.

① 변경 기능은 차후 검토 / ② 자동 취소는 시행하지 않음 / ③ 확정된 시행 내용 / ④ 연장 여부는 추후 결정 / ⑤ 설문 응답 240 명이며 동의 여부 근거 없음

2 번 정답 ① |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 문장

(가) 대상 300 명, 응답 240 명, 응답자 중 해당 선택 150 명. 모두 자료에 있는 정확한 대상이야.

① 대상과 응답자 구별, 정확 / ② $150/240=62.5\%$, 절반 아님 / ③ 이용 시간 연장은 미확정 / ④ 시범 결과 수치 없음 / ⑤ 예약 변경은 미시행

3 번 정답 ④ | 숫자는 분모부터

$150/240=62.5\%$, $150/300=50\%$. 기준 집단이 다르면 같은 150 명도 다른 비율이 돼.

① 두 비율 뒤바뀜 / ② 전체 조사 대상자 기준 오류 / ③ 응답자 비율 계산 오류 / ④ 두 기준 모두 정확 / ⑤ 응답자 비율 계산 오류

4 번 정답 ⑤ | 복수응답을 중복 인원으로 착각하지 마

(가)는 “여러 항목을 선택 가능”이라고 명시했어. 항목별 합계 360 은 고유 응답자 수 240 을 뜻하지 않아.

① 자료 오류라고 판단할 근거 없음 / ② 세 항목 모두 필수 선택 아님 / ③ 360 명 참가 근거 없음 / ④ 대상·응답자 구분과 다른 문제 / ⑤ 복수응답의 올바른 해석

5 번 정답 ② | 발문의 ‘적절하지 않은’에 동그라미

담당자는 자동 취소를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어. 정반대 내용을 적은 ②만 틀렸어.

① 첫 방안만 확정, 참 / ② 실제 결정과 반대, 정답 / ③ 추후 검토, 참 / ④ 결과 확인 후 결정, 참 / ⑤ 아직 효과 미확인, 참

5 문항을 한 문제 더 맞히는 기술로 바꾸기

놓치기 쉬운 장치	시험장 행동
적절하지 않은 것 / 반영되지 않은 것	문제의 마지막 요구를 먼저 표시하기
제안 / 채택 / 시행	지문 옆에 제·채·실 약어로 단계 적기
응답자 / 조사 대상자	비율 계산 전에 분모를 문장에 적기
복수응답 / 참여 인원	합계가 응답자 수를 넘어도 바로 오류라 단정하지 않기
예정 / 이미 결과가 나옴	운영이 끝났는지 시점을 확인하기

다음 지문으로 전이할 때도 그대로 적용

독서에서는 주장·조건·사실을 구분하고, 문학에서는 인물의 소망·계획과 실제 사건을, 화작에서는 제안·초고·수정본을, 연매에서는 규칙의 조건·적용 사례를 분리해. 분야만 달라질 뿐 “말한 것과 실제로 성립한 것”을 나누는 기술은 공통이야.

연결할 독해 기술: 발문의 요구 구별, 주체·대상 파악, 정보의 시점 추적, 수치의 기준량 판별, 사실/추론 분리. 연결할 실전 TIP: 발문 먼저 보기, 두 선지의 바뀐 표현 비교, 근거 없는 단정 지우기, 30 초 재확인.

혼자 마지막으로 말해 봐: “제안은 시행이 아니고, 응답자 비율은 조사 대상자 비율이 아니며, 아직 안 한 일의 효과는 알 수 없어.”

이 수업은 독립 창작 연습으로, 실제 기출 문항을 재수룩한 것이 아니야.

제이든양 선생님의 실전 4강 | 법·운영규정의 조건과 예외

2021·2023 수능 독서에서 확인한 법률 규정 제재를 바탕으로, 동일한 판단 행동을 독립 창작한 훈련 자료야. 실제 법령이나 기출 지문을 복제한 것이 아니야.

시험장에서 바로 써먹을 20초 동작

시험장에서 한 문제 더 맞히려면 조건을 '외우는' 대신 분기해서 판단해야 해. 먼저 발문에서 묻는 내용을 표시해. 그다음 지문에서 ① 원칙 ② 예외 ③ 예외의 추가 조건 ④ 판단 불가능한 정보 네 부분을 찾아.

이번 수업의 네 단어: 접수 ≠ 승인, 요청 ≠ 변경 완료, 정확히 24시간 전 ≠ 24시간 미만, 고장 신고 ≠ 운영자의 고장 확인·취소.

읽기 기술: 주체 구별·조건과 예외·시간 경계·판단 근거. 실전 TIP: 발문 먼저 확인→근거 연결→마지막 두 선지를 조건으로 다시 비교.

먼저 보기: 질문이 사실 확인인지, 사례 적용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묻는지 표시하기

해설은 문제를 다 풀고 확인해. 이 문항군의 목적은 법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읽지 않는 거야.

창작 지문 | 한빛시 청소년 문화실 예약 규정

한빛시 청소년 문화실의 예약 운영 규정은 신청, 승인, 이용을 구분한다. 학생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시스템은 접수 번호를 발급한다. 그러나 접수 번호만으로 이용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 담당자가 승인하고 승인 알림을 발송해야 예약이 확정된다. 신청 내용의 수정 요청도 새로운 승인 알림이 오기 전에는 기존 확정 예약을 바꾸지 못한다.

문화실은 이용자 한 사람에게 매달 세 번의 '이용 기회'를 준다. 확정 예약일에 실제로 입실하여 이용을 시작하면 기회 한 번을 차감한다. 예약자가 직접 취소할 때는 이용 시작 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전까지 취소를 완료했다면 기회를 차감하지 않는다. 반대로 24시간 미만을 남겨두고 취소하면 한 번을 차감한다. 이때 경계인 정확히 24시간 전은 '24시간 이전까지'에 포함된다.

다만 시설 고장으로 운영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시각과 무관하게 기회를 차감하지 않는다. 시설이 고장났다는 신고가 있었더라도 운영자가 고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약자가 스스로 취소했다면 일반적인 예약자 취소 규정이 적용된다. 이용 시작 이후에 중단되었다면 이미 차감한 기회는 되돌리지 않는다.

한편 승인된 예약은 예약자 본인이 입실해야 한다. 친구가 대신 입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예약자와 함께 두 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동행자는 이용 기회를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는 예약 대기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나 이용 만족도가 실제로 높아졌는지를 판단할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험장에서 쓸 간단한 표

구분	판단 조건	결과
예약	접수번호만 발급	미확정
예약	담당자 승인·알림	확정
예약자 취소	24시간 이전까지	차감 없음
예약자 취소	24시간 미만	1회 차감
운영자 고장 취소	고장 확인 후 취소	차감 없음

학생이 직접 풀어 보는 5문항

1. 운영 규정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① 접수 번호가 발급되면 담당자 승인 전에도 예약이 확정된다.
- ② 기존 예약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변경된 내용이 적용된다.
- ③ 정확히 이용 시작 24시간 전에 예약자가 취소를 완료하면 기회가 차감되지 않는다.
- ④ 예약자가 시설 고장을 신고하기만 하면 언제 취소해도 기회가 차감되지 않는다.
- ⑤ 동행자 한 명마다 예약자의 이용 기회가 한 번씩 차감된다.

2. 다음 사례 가운데 예약자의 이용 기회를 차감하지 않는 경우만을 고르면?

- ① 이용 시작 23시간 전에 예약자가 취소하고, 시설 고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 ② 이용 시작 2시간 전에 시설 고장을 확인한 운영자가 예약을 취소했다.
- ③ 예약자가 입실해 이용을 시작했지만 5분 뒤 스스로 나왔다.
- ④ 승인된 예약의 예약자가 예정된 시간에 입실하여 10분 동안 이용했다.
- ⑤ 예약자가 날짜 변경을 요청했지만 새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기존 날짜에 입실해 이용했다.

3. 다음은 민서의 10월 문화실 이용 기록이다. 남은 이용 기회는 몇 번일까?

기록: 10월 1일 입실해 이용 시작 / 10월 15일 이용 예정 시각 10시간 전 스스로 취소(고장 없음) / 10월 20일 이용 예정 1시간 전, 운영자가 시설 고장으로 취소

- ① 0번
- ② 1번
- ③ 2번
- ④ 3번
- ⑤ 판단할 수 없다.

4. 규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예약자 대신 친구만 입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예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두 명은 별도로 이용 기회를 차감하지 않는다.
- ③ 승인된 예약의 내용은 수정 요청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 ④ 운영자 고장 취소는 24시간 경계와 무관하다.
- ⑤ 변경된 규정 이후 실제 이용 만족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

5. 다음 중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답을 판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터넷 신청 후 접수 번호 발급 여부만 따지는 경우
- ② 동행자가 예약자와 함께 입실하는지 여부만 따지는 경우
- ③ 예약자 취소의 시각과 운영자의 시설 고장 확인·취소 여부를 모두 따지는 경우
- ④ 문화실 방문자가 미소 지었는지 여부만 따지는 경우
- ⑤ 담당자가 대기자 수를 집계했는지 여부만 따지는 경우

정답을 보기 전: 내가 쓰는 근거 확인표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라고 생각한 번호와 실제로 판단을 바꾼 조건을 한 단어씩 기록해 봐. 맞혔더라도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다시 흔들릴 수 있어.

- 1번 내가 고른 선지: _____ 결정한 규정: _____
- 2번 내가 고른 선지: _____ 결정한 규정: _____
- 3번 내가 고른 선지: _____ 결정한 규정: _____
- 4번 내가 고른 선지: _____ 결정한 규정: _____
- 5번 내가 고른 선지: _____ 결정한 규정: _____

시험장 복습 — 세 줄이면 돼

- ① 발문: 맞는 것을 고르는가, 틀린 것을 고르는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고르는가?
- ② 규정: 접수와 승인을 구별했는가? 24시간 경계와 고장 예외의 주체를 확인했는가?
- ③ 선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지문에 있는가? 내가 마음대로 추가한 조건은 없는가?

이번 연습의 판단 속도를 적어 보자. 독해·답변 전체 시간 _____분 / 다시 확인한 문제 _____번 / 실수 원인 _____

제이든양 선생님 풀이 시범과 선택지별 해설

1번 정답: ③

- ① 접수는 승인과 달라. 접수 번호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 ② 수정 요청만으로 기존 확정 예약이 바뀌지는 않아.
- ③ 정답. 규정에 정확히 24시간 전도 차감 없는 구간으로 포함돼.
- ④ 운영자의 고장 확인과 취소가 있어야 예외를 적용할 수 있어.
- ⑤ 동행자에게는 별도 이용 기회 차감이 없어.

2번 정답: ②

- ① 24시간 미만의 예약자 취소이고 예외 요건이 없어 한 번 차감돼.
- ② 정답. 운영자가 시설 고장으로 취소하면 시각과 관계없이 차감하지 않아.
- ③ 이용을 시작한 뒤 중단했으므로 이미 차감된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
- ④ 승인된 예약으로 실제 이용을 시작하면 한 번 차감돼.
- ⑤ 새 승인 전에는 기존 예약이 유지되고, 기존 날짜에 실제 이용했으므로 한 번 차감돼.

3번 정답: ②

- ① 두 번보다 많이 차감할 근거는 없어.
- ② 정답. 1일 실제 이용 시작 1회, 15일 10시간 전 본인 취소 1회 차감, 20일 운영자 고장 취소는 차감 없음. 세 번 중 한 번 남아.
- ③ 늦은 취소도 한 번 차감한다는 조건을 놓쳤어.
- ④ 실제 이용과 늦은 취소를 모두 무시했어.
- ⑤ 세 건의 차감 조건이 모두 제시되어 계산할 수 있어.

4번 정답: ⑤

- ① 본인이 입실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확인돼.
- ② 동행자 차감 규정에 직접 있어.
- ③ 수정 요청과 승인 알림의 구분에서 확인돼.
- ④ 운영자 고장 취소 예외는 시각과 무관해.
- ⑤ 정답. 만족도에 관한 데이터가 지문에 전혀 없어.

5번 정답: ③

- ① 접수 사실만으로 예약 확정을 판단하면 안 되지만, 문항 자체는 하나의 상황만 제시하고 있어.
- ② 동행 조건만 따지는 것은 두 가지 예외 규정의 결합이 아니야.
- ③ 정답. 일반 취소의 시간 조건과 시설 고장에 따른 운영자 취소 예외가 만나야 차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 ④ 기회 차감과 무관한 표정 정보야.
- ⑤ 대기자 수만으로는 예약의 차감 조건을 판단할 수 없어.

오늘의 실전 행동: “원칙 → 예외 → 예외가 성립하는 주체·시점 → 답할 수 있는 정보인가?” 순서로 확인하고, 마지막 두 선지를 이 네 칸에 다시 대입해.

제이든양 선생님 실전 5강 | 그래프보다 먼저 분모를 봐

시험장 15초 행동: 무엇이 비율인지 질문 확인 → 분모에 밑줄 → 증가/감소 비교 → 지문 밖 원인 제거

기출 분석에서 연결한 판단: 2023학년도 독서 14~17번은 기초 대수량·증가율·그래프 관계를 확인하고 새로운 자료에 적용하도록 물었어. 아래 문제는 그 행동만 연습하도록 새로 창작한 사례야.

선생님 시범 | 총량이 늘었는데 평균은 줄 수 있어

가람고는 등록자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총방문은 180회에서 240회로 늘었어. “둘 다 늘었네!”라고 끝내면 실수야. 등록자당 방문은 $180 \div 100 = 1.8$ 회에서 $240 \div 150 = 1.6$ 회로 줄었거든. 분모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한 문제 더 맞는 요령: <보기>에서 둘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면 하나만 맞는 선택지는 오답이야. “참여율 65% 이상”과 “실이용자당 2.6회 이상”은 둘 다 만족해야 해.

실전 창작 지문 | 자습실 운영 통계

서로 다른 학교의 자습실 이용을 비교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수를 구별해야 한다. ‘등록자’는 자습실 서비스를 신청한 학생이고, ‘실이용자’는 해당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실제 이용한 학생이다. ‘총방문’은 같은 학생이 여러 번 이용했다면 그만큼 모두 세는 수다. 따라서 세 수는 서로 다르다.

이 자료에서 참여율은 실이용자 수를 등록자 수로 나눈 값이다. 등록자 한 명당 방문 횟수는 총방문을 등록자 수로, 실이용자 한 명당 방문 횟수는 총방문을 실이용자 수로 나눈 값이다. 분모가 다르면 답도 달라진다. 총방문이 늘었다고 해서 실이용자 1인당 방문 횟수가 반드시 늘었다고 볼 수 없다.

어떤 학교는 등록자가 크게 늘어나 총방문이 증가해도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방문한 횟수는 줄 수 있다. 반대로 실이용자는 많아지지만 등록자 대비 참여율은 그대로일 수도 있다. 자료를 해석할 때 ‘인원이 늘었다’, ‘참여율이 높다’, ‘방문 횟수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이 표는 각 학교의 등록자, 실이용자, 총방문을 나타낸다. 자습실 운영을 바꾸어 이용자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는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방문 횟수의 증감만으로 운영 정책의 성공·실패나 이용자의 만족도를 단정할 수 없다.

학교·연도	등록자	실이용자	총방문
가람고 2025	100	60	180
가람고 2026	150	90	240
나래고 2025	80	48	144
나래고 2026	120	84	210

학생이 직접 풀어 보자 | 5지선다 다섯 문항

1.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 ① 가람고의 참여율은 2026년에 전년보다 높아졌다.
- ② 나래고는 2026년 등록자 한 명당 방문 횟수가 전년보다 늘었다.
- ③ 가람고의 총방문은 증가했지만 등록자 한 명당 방문 횟수는 감소했다.
- ④ 나래고의 2026년 총방문은 가람고보다 많다.
- ⑤ 가람고의 2025년 실이용자 한 명당 방문 횟수는 2회이다.

2. 나래고의 참여율을 정확히 비교한 것은?

- ① 2025년 48%, 2026년 84%로 증가했다.
- ② 2025년 60%, 2026년 70%로 증가했다.
- ③ 2025년 60%, 2026년 60%로 일정하다.
- ④ 2025년 80%, 2026년 70%로 감소했다.
- ⑤ 2025년 1.8회, 2026년 1.75회로 감소했다.

3. 새 학교 다운고의 등록자가 200명, 실이용자가 120명이고 실이용자당 평균 방문이 2.5회라면 총방문은?

- ① 80회
- ② 120회
- ③ 240회
- ④ 300회
- ⑤ 500회

4. 표와 지문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 ① 가람고는 두 해 모두 참여율이 60%였다.
- ② 나래고의 2026년 실이용자 수는 전년보다 늘었다.
- ③ 가람고의 총방문은 2026년에 240회였다.
- ④ 나래고는 두 해 모두 실이용자 수가 등록자 수보다 적었다.
- ⑤ 가람고의 2026년 방문 횟수 변화는 운영 정책에 대한 만족도 하락 때문이다.

5. 어떤 제도는 참여율이 65% 이상이고 실이용자당 평균 방문이 2.6회 이상일 때만 확대 운영한다. 표의 네 학교·연도 가운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 ① 하나도 없다.
- ② 가람고 2025만 해당한다.
- ③ 가람고 2026만 해당한다.
- ④ 나래고 2026만 해당한다.
- ⑤ 가람고 2025와 나래고 2026이다.

풀고 난 뒤 확인: (1) 분모 (2) 총량과 평균 (3) 복합 조건 둘 다 (4) 지문 밖 원인을 상상하지 않았는가.

선생님 해설 | 정답보다 분모와 근거를 확인하자

1번 정답: ③

- ① 가람고 참여율은 $60/100=60\%$, $90/150=60\%$ 로 그대로야.
- ② 나래고 등록자당 방문은 $144/80=1.8$ 에서 $210/120=1.75$ 로 감소했어.
- ③ 정답. 총방문은 $180 \rightarrow 240$ 으로 증가하지만 등록자당은 $1.8 \rightarrow 1.6$ 으로 감소해.
- ④ 2026년 가람고 240, 나래고 210으로 가람고가 더 많아.
- ⑤ 가람고 2025 실이용자당 방문은 $180/60=3$ 회야.

2번 정답: ②

- ① 실이용자 수를 등록자 수로 나누는 참여율 계산이 아니야.
- ② 정답. $48/80=0.6$, $84/120=0.7$ 이므로 60%에서 70%가 됐어.
- ③ 가람고의 참여율과 혼동한 선택지야.
- ④ 2025년 분모를 잘못 잡았어.
- ⑤ 이 수치는 등록자당 방문 횟수이지 참여율이 아니야.

3번 정답: ④

- ① 200-120은 미이용자 수야.
- ② 실이용자 수만 적었어.
- ③ 잘못된 분모로 계산했어.
- ④ 정답. 총방문 = 실이용자 120명 $\times$ 1인당 2.5회 = 300회야.
- ⑤ 등록자 200명에 실이용자당 평균을 잘못 곱한 값이야.

4번 정답: ⑤

- ① $60/100=90/150=60\%$ 이므로 확인돼.
- ② 48명 $\rightarrow$ 84명으로 늘었어.
- ③ 표에 직접 240회라고 나와.
- ④ 각각 $48 < 80$, $84 < 120$ 이야.
- ⑤ 정답. 운영 정책의 변화나 이용자 만족도 자료가 없으므로 인과를 단정할 수 없어.

5번 정답: ①

- ① 정답. 가람고는 참여율 60%로 탈락하고, 나래고 2026은 참여율 70%지만 실이용자당 $210/84=2.5$ 회로 탈락해.
- ② 가람고 2025는 방문 $180/60=3$ 회지만 참여율 60%가 65% 미만이야.
- ③ 가람고 2026도 참여율 60%야.
- ④ 나래고 2026은 참여율 70%지만 방문 2.5회라서 불충족이야.
- ⑤ 가람고 2025의 참여율, 나래고 2026의 1인당 방문 조건이 각각 미달이야.

같은 글을 읽고도 왜 답이 갈릴까?

인문·사회 주제통합형 — A/B 관점 비교 + <보기> 적용 + 근거 없는 확대 제거

시험장에서 먼저 할 세 동작

- ① 발문에서 「공통점 / 차이점 / 적절하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를 쳐.
- ② 두 사람의 주장 옆에 「무엇을 먼저 확인? /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를 두 칸으로 써.
- ③ <보기>가 나오면 두 칸에 새 사례를 각각 대입하고, 빠진 근거가 있는 선택지는 지워.

20 초 예열 — 구분하면 바로 풀리는 말

예: “공사를 검토했다”는 말은 “공사를 완공했다”와 달라. 확인된 사실 하나가 결론 전체를 보증하지는 않아.

지문을 읽는 동안

이 글은 창작한 연습 지문이야. 낱선 설명을 외우는 대신, 갑·을의 기준과 공통점을 찾아봐.

(가) 기록의 신뢰성 — 갑의 관점

어느 도시의 기록관은 옛길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자료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두 연구자는 다른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자 갑은 기록을 공개할 때 먼저 작성자, 작성 시점, 이후 수정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 가지가 확인되면 그 자료는 기록관의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분류된다.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내용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증이 끝난 자료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갑의 기준은 많은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의 정확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최초 자료를 잘못 이해한 이야기가 여러 곳으로 옮겨가면 표현이 비슷한 증언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회 수나 호응이 높다는 이유는 작성자와 수정 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갑은 검증 절차를 통과한 공문서라도 설명 없이 한 문장만 떼어 놓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공사 검토가 시작되었다”는 기록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아니다. 갑에게는 자료가 믿을 만한가와 그 자료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가 서로 다른 질문이다.

(나) 기록의 활용 — 을의 관점

연구자 을은 기록의 신뢰성 확인에 동의하면서도, 공문서가 남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도 도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을은 구술 자료를 공개할 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을 기억하는지, 다른 기록과 무엇이 일치하거나 다른지를 함께 보여 주자고 제안한다. 구술 자료를 공문서와 똑같은 종류의 사실로 표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을에게 두 증언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거짓이라는 증거가 아니다. 같은 장소를 경험한 시기나 역할이 달랐을 수 있다. 그렇다고 증언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확정된 역사로 삼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을은 증언의 맥락과 자료의 성격을 구분해 두는 일이 해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두 관점의 차이는 자료를 다루는 순서와 무게중심에 있다. 갑은 검증 상태를 먼저 분명히 구분하려 하고, 을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험의 가치를 지워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료에 없는 내용을 확정해서 말하거나, 기록과 해석의 경계를 흐리는 일에는 신중하다.

실전 6 문항 — 정답을 보기 전 근거 위치 표시

권장 순서: ① 발문 확인 → ② 지문 옆 근거 표시 → ③ 선택지 두 개 남기기 → ④ 최종 근거 비교. 처음에는 속도보다 정확도가 먼저야.

1. 두 연구자 갑과 을의 견해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은 구술 자료를 모두 거짓으로, 을은 공문서를 모두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 ② 갑과 을은 자료의 인기도가 정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본다.
- ③ 갑과 을은 자료의 출처와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④ 갑은 모든 기록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을은 모든 기록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자료의 해석과 자료에 적힌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 문단: _____ 사용한 TIP: _____

2. 갑의 기록 검증 기준을 적용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자료라도 내용이 그럴듯하면 검증 완료로 표시한다.
- ② 작성자와 시점이 확인돼도 수정 내역이 빠져 있으면 검증 보류로 둔다.
- ③ 수정 내역이 빠져 있는 자료는 반드시 거짓이라고 판정한다.
- ④ 다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했으면 출처 확인을 생략한다.
- ⑤ 검증 절차를 통과한 공문서는 어떤 문장으로 요약해도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 문단: _____ 사용한 TIP: _____

3.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문서에 남지 않은 경험도 도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② 구술 자료를 공개할 때 증언자의 상황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증언이 서로 다를 경우 경험 시기나 역할이 달랐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 ④ 여러 증언이 비슷하면 출처 확인 없이 그 내용을 확정된 역사로 발표해야 한다.
- ⑤ 구술과 공문서는 같은 종류의 사실 기록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 문단: _____ 사용한 TIP: _____

4. 다음 <보기>에 대한 갑과 을의 판단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보기> 도시 기록관에 자료 X와 증언 Y가 있다. X는 작성자·시점·수정 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문서다. Y는 당시 시장에 있었던 주민의 구술 자료인데, 경험한 장소는 명확하나 말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 ① 갑: X와 Y 모두 검증 완료 / 을: Y를 기록관에서 배제
- ② 갑: X 검증 보류 / 을: Y를 공문서와 동일한 사실로 표기
- ③ 갑: X 검증 완료 / 을: Y가 X와 달라도 반드시 거짓으로 판정
- ④ 갑: X와 Y 모두 거짓 / 을: Y의 인기도만으로 사실을 확정
- ⑤ 갑: X는 검증 완료 / 을: Y는 구술 자료임을 밝히고 경험 맥락과 함께 제시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 문단: _____ 사용한 TIP: _____

5. 다음 중 두 관점에서 모두 경계할 가능성이 큰 해석은?

- ① ‘검토를 시작했다’는 기록을 ‘사업이 완공됐다’는 사실로 바꾸어 발표한다.
- ② 작성 시점을 알 수 없는 자료를 검증 보류로 분류한다.
- ③ 경험 시기가 다른 증언이 왜 다른지 살펴본다.
- ④ 기록과 증언의 종류를 구별해 공개한다.
- ⑤ 문서가 확인된 뒤에도 요약문이 원문을 과장했는지 점검한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 문단: _____ 사용한 TIP: _____

6. 갑과 을의 차이를 이해한 학생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서가 검증되면 그 문서에 관한 모든 해석을 자동으로 정답 처리한다.
- ② 두 증언이 다르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공통점을 확인하지 않는다.
- ③ 증언의 반복 횟수를 세어 가장 많은 쪽을 공식 기록으로 바꾼다.
- ④ 문서의 검증 상태와 구술의 경험 맥락을 각각 적고, 두 자료로 확정할 수 있는 범위를 대조한다.
- ⑤ 작성자가 불명확한 자료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담았다고 본다.

내 답: ① ② ③ ④ ⑤ 근거 문단: _____ 사용한 TIP: _____

정답과 제이든양 선생님의 풀이

정답: 1 번 ③ · 2 번 ② · 3 번 ④ · 4 번 ⑤ · 5 번 ① · 6 번 ④

1 번 정답 ③ |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해

질문은 공통점이야. 차이를 먼저 떠올리지 말고 두 글 마지막 문단을 봐.

- ① 갑은 미검증을 거짓과 구별하고, 을은 공문서가 불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 ② 두 사람 모두 호응이나 반복 진술만으로 정확성이 확보된다고 보지 않는다.
- ③ 두 사람 모두 자료의 출처·상황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과 해석을 분리한다.
- ④ 공개 여부를 모두 금지하거나 모두 허용하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다.
- ⑤ 마지막 문단의 공통점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바로 쓴 기술·TIP: 기술 05·10·12 / TIP 05·08·12

2 번 정답 ② |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해

갑의 세 조건을 하나씩 체크해. 한 항목이라도 없으면 검증 보류야.

- ① 검증 완료는 세 항목 모두 확인된 경우다.
- ② 세 항목 중 하나가 빠졌으므로 검증 완료가 아니라 보류다.
- ③ 검증 보류는 거짓 판정이 아니다.
- ④ 동일한 이야기의 반복으로 최초 자료의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
- ⑤ 갑은 검증된 기록도 일부만 발췌하면 오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쓴 기술·TIP: 기술 06·10 / TIP 07·09

3 번 정답 ④ |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해

발문 끝의 「적절하지 않은」을 먼저 표시했니? 반복 횟수가 곧 검증은 아니야.

- ① 을의 핵심 주장이다.
- ② 구술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 ③ 서로 다른 증언을 이해하는 을의 설명과 일치한다.
- ④ 을은 유사한 증언만으로 사실을 확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문항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다.
- ⑤ 을은 두 자료의 성격을 구별하자고 했다.

바로 쓴 기술·TIP: 기술 10·12 / TIP 02·07·12

4 번 정답 ⑤ |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해

새 자료 X와 Y를 같은 종류로 처리하면 틀려. 갑·을의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해.

- ① X는 세 조건을 충족하며 을은 경험을 배제하지 않는다.
- ② X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을은 구술을 공문서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 ③ 증언 차이가 거짓의 증거가 아니라는 을의 주장과 어긋난다.
- ④ X는 검증되었고 을도 인기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⑤ X의 절차적 신뢰성과 Y의 기록 성격을 각각 구별한 판단이다.

바로 쓴 기술·TIP: 기술 05·11 / TIP 05·09

5 번 정답 ① |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해

검토 시작과 완공은 단계가 달라. 지문에 없는 결과를 덧붙인 선택지를 지워.

- ① 검토와 완공은 다른 단계다. 자료에 없는 결과를 확정된 것은 양쪽 모두 경계한다.
- ② 갑의 절차와 맞는다.
- ③ 을의 맥락 점검과 맞는다.
- ④ 두 사람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 ⑤ 갑의 검증 후 해석 점검에 맞고 을의 신중함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쓴 기술·TIP: 기술 08·10 / TIP 07·08

6 번 정답 ④ |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해

두 관점을 동시에 지키려면 검증 여부와 경험의 맥락을 모두 확인하면 돼.

- ① 검증된 문서라도 오해를 부르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 ② 증언 차이는 경험 시기·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 ③ 을과 갑 모두 인기도·반복 횟수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④ 갑의 검증 기준과 을의 맥락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 행동이다.
- ⑤ 검증 보류는 사건 자체의 부정이 아니다.

바로 쓴 기술·TIP: 기술 05·11·12 / TIP 05·09·12

30 초 복습

□ 갑과 을의 공통점을 한 줄로 적었다. □ 〈보기〉 사례를 관점별로 따로 적용했다. □ ‘검토→완공’, ‘미확인→거짓’처럼 말이 커진 선택지를 찾았다.

다음 훈련에서는 새 인문·사회 지문으로 관점표를 다시 만들어. 오늘의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동작을 재사용하는 것이 목표야.

제8부. 나 혼자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짧은 연습 답안(학습 기술 01~15)

01번: 접수·서류 제출 등의 조건을 분리해야 해. 특히 계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술 심사에 통과했더라도 선정이 확정되지 않아.

02번: 서로 다른 기준의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기준으로 바꾸는 일.

03번: 예외를 묻는다면 4문단을, 새 방법 자체는 3문단을 다시 확인하면 돼.

04번: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가 구매를 줄였다는 연결을 읽어야 해.

05번: 둘 다 비교를 통해 효과를 살피지만 P는 다른 조건을 최대한 고정하고 Q는 여러 조건을 함께 바꿔.

06번: 아니. 온라인 접수만으로는 자격 심사를 통과한 것이 아니야.

07번: 아니. 축제라는 다른 원인이 함께 있었으므로 순수 효과는 분리해 확인해야 해.

08번: 위원회 의결은 완료. 시행령 마련과 내년 집행은 문장에 따라 후속 과정 또는 예정이야.

09번: 10%포인트 상승, 기존 40% 대비 25% 증가($10 \div 40$).

10번: 아니. 확인된 것은 응답자 100명의 동의 비율 70%일 뿐이야.

11번: 불가능해. A뿐 아니라 B 승인도 필요하다는 규칙이 있어.

12번: 원문이 “증가할 수 있다” 정도의 가능성인지, 반드시 증가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주는지 확인해야 해.

13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조급함·걱정·다른 이유 중 어느 하나로 확정할 근거는 부족해.

14번: 장부에 적힌 풍년과 실제 주민의 어려움이 대비돼. 특정 범죄나 의도를 확정하지는 못해.

15번: 화작은 질문 내용이 실제 발표에 반영된 부분을 찾아야 해. 언매는 주어진 두 적용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해.

틀린 문제를 다시 볼 때

틀린 문제 번호만 적지 말고 어떤 동작을 빠뜨렸는지 기록해. 예를 들어 “A3: 4,000명과 응답자 200명을 혼동 → 다음에는 질문의 전체 대상에 동그라미”처럼 한 줄이면 돼. 다음 날에는 답을 외우기보다 같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새 짧은 예시에서 다시 시도해.

[오답 기록 1] 문제 번호: _____ / 내가 놓친 말: _____ / 정확한 근거: _____ / 다음 행동: _____

[오답 기록 2] 문제 번호: _____ / 내가 놓친 말: _____ / 정확한 근거: _____ / 다음 행동: _____

[오답 기록 3] 문제 번호: _____ / 내가 놓친 말: _____ / 정확한 근거: _____ / 다음 행동: _____

7일 복습 예시

1일차: 질문 읽기·문단 지도(요령 01~03)

2일차: 모르는 용어·A/B 비교·기준량(04~06)

3일차: 바뀐 단어·마지막 두 선택지(07~08)

4일차: 〈보기〉·누가 말했는지(09~10)

5일차: 보류·복귀·최종 확인(11~12)

6일차: 도서관과 과학 중 더 어려웠던 지문을 근거를 말하며 다시 풀기

7일차: 새로운 지문으로 기술을 옮겨 쓰기. 재풀이만으로 실력 향상을 확정하지는 마.

공부를 마치고

15가지 기술과 12가지 요령을 다 배웠다면, 뒤에 실린 창작 실전연습 45문항을 80분 동안 풀어 봐. 정답률만 보지 말고, 지문으로 돌아가 근거를 찾은 시간도 확인해.

실전 45문항 | 80분 종합 연습

공통 34문항 + 화법과 작문 11문항 · 모든 지문과 문항은 독립 창작

[1~3번] 독서: 관찰 범위와 주장 검증

우리는 자료를 보고 결론을 내릴 때 자료의 숫자가 정확한지부터 확인한다. 그러나 숫자가 정확하더라도 그 숫자가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의 범위까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 달 동안 평일 낮에만 기록한 방문객 자료로 '그 달 모든 시간대의 방문 양상'을 설명하려 한다면, 기록 방식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료가 관찰하지 않은 시간대까지 범위를 넓힌 셈이 된다. 자료가 가리키는 관찰 범위와 주장이 다루는 대상 범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은 구별된다. 조사 대상과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기록이 없다는 것은 우선 그 조사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해당 기간의 전체 사례를 빠짐없이 기록했고 자료의 누락 여부까지 점검했다면, 그 자료는 그 기간과 대상에 한정하여 사건이 없었다는 판단을 더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의 부재가 어떤 주장을 지지하는지는 조사 과정의 포괄성과 신뢰도에 따라 달라진다.

주장의 형태도 증거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 '모든 A는 B이다'라는 주장은 조건을 만족하는 A 중 B가 아닌 신뢰할 만한 사례 하나만으로도 반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A는 B이다'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사례 하나로 '모든 A는 B이다'까지 입증할 수는 없다. 반례가 무엇인지 확인할 때는 사례 자체뿐 아니라, 사례가 정말 같은 조건과 분류 기준에 속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에서 같은 변화가 관찰됐다고 해서 변화의 원인도 같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원인을 밝히려면 두 집단의 사전 상태, 동시에 달라진 조건, 측정 기준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서 관찰된 변화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료를 읽을 때는 먼저 무엇이 관찰됐는지, 이어 그 자료가 어떤 범위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원인에 관한 설명까지 가능한지 순서대로 판단해야 한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의 숫자가 정확해도 주장과 관찰 범위가 맞지 않으면 일반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② 전체 사례를 조사했더라도 누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 부재를 확정할 수 있다.
- ③ 조사의 누락 가능성을 점검한 전체 사례 기록은 그 범위 안에서의 부재 판단을 더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 ④ 보편적 주장을 반박하는 단일 사례는 주장의 대상·조건을 충족하는 반례라면 유효할 수 있다.
- ⑤ 두 집단에서 변화가 관찰됐다는 사실과 그 변화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구별된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도서관의 무인 입장 기록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작동한다. 이번 달 기록기에 찍힌 아동 입장 건수는 120건이었다. 동일인이 여러 차례 입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는 '이번 달 주말에 아동 이용객이 없었다'고 발표하려 한다. 단, 주말의 별도 출입 기록은 없고 실제 출입 여부를 확인할 다른 자료도 없다.

- ① 평일 낮의 입장 기록이 최소 120건이므로 이번 달 전체 입장 기록도 120건 이상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말 방문자가 없었다는 발표까지 뒷받침할 수 있다.
- ② 주말에 기록기가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기록값을 0명으로 처리하면, 관찰하지 않은 시간대의 방문 여부도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주말에 기록이 없고 평일 낮의 입장 기록이 120건이므로, 이번 달 모든 시간대의 아동 입장을 빠짐없이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평일 낮에 이용한 아동의 수가 확인되었으므로, 주말에 기기를 켜지 않았어도 평일과 주말의 이용 양상이 같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 ⑤ 평일 낮의 120건은 해당 시간대의 입장 기록이지만, 주말은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말 이용객이 없었다는 발표에는 별도 근거가 필요하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분류 기준에서 온라인 신청이 아닌 사례가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모두 온라인 신청”이라는 주장은 반박할 수 있다.
- ② 일부 참가자의 온라인 신청 기록이 신뢰할 만하면 미조사 참가자의 신청 방식도 온라인이었다고 입증할 수 있다.
- ③ 성적 상승 폭이 같았던 두 반의 학생 구성도 같다면, 다른 수업 조건의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도 상승 원인이 같다고 확정할 수 있다.
- ④ 변화의 원인을 확정하지 못한 자료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관찰 결과 자체도 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 ⑤ 이번 달 전체 출입 기록이 완전하다면, 기록되지 않은 지난달의 출입 상황도 동일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4~9번] 독서: 정보 삭제와 공적 검증

(가)

개인에 관한 기록은 처음 수집될 때의 목적이 정당했다고 해서 끝없이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개인의 과거 행동이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용될 위험도 남는다. 이런 점에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중시하는 입장은 수집 목적이 달성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록의 삭제를 원칙으로 삼는다.

그렇다고 삭제 요구가 어떤 경우에도 곧바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정 기록이 공적인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 보존을 주장하는 관리 기관은 그 필요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더구나 필요한 정보가 일부에 불과하다면 해당 부분만 남기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바꾸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방안이 전체 기록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기록의 유용성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같은 검증 목적을 이루면서도 개인에게 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보존의 정당성은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보존할 대상, 기간, 접근 범위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필요가 사라지면 다시 삭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나)

공공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는 결정의 결과뿐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른 이유와 절차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업의 대상이 왜 선정되었는지, 특정 비용이 어떤 기준에 따라 지출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관리 기관이 스스로 내린 결정의 적절성을 사후에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기관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적 결정의 흔적을 임의로 없애는 일을 경계한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해서 기록에 포함된 모든 개인 정보를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된 결정 이유만으로도 책임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판단과 직접 관계가 없는 신상 정보는 가릴 수 있다. 원본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할 경우에도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누가 열람했는지를 기록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한 검증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보존 필요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

이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기록의 영구 보관이 아니라 공적인 행위의 책임을 추적할 수 있을 만큼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개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조치는 그런 증거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충분히 시행해야 한다. 단지 저장 비용을 줄이거나 담당 기관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핵심 근거를 없애는 것은 책임을 검증할 가능성 자체를 약화할 수 있다.

4. (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쟁 해결에 기록이 아직 필요하다면 그 필요가 사라진 뒤에도 같은 접근 범위를 유지할 수 있다.
- ② 분쟁 해결에 특정 원본 기록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를 설명하고, 보존 기간과 열람자를 제한하며, 필요가 사라지면 삭제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 ③ 공적 결정의 검증이 필요하다더라도 기록 삭제를 요청한 개인이 있으면 보존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④ 개인 신상 부분을 가리더라도 원본 기록이 보관되는 한 모든 외부인의 열람 범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⑤ 기록 보존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에는 장래의 활용 가능성을 근거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방식을 먼저 검토한다.

5. (나)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적 결정의 이유와 절차를 남긴 기록은 사후 책임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② 기관의 자의적인 삭제를 막는 취지는 공적 결정에 관한 사후 검증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 ③ 판단과 관계없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제한해도, 결정의 이유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면 검증 가능성은 유지된다.
- ④ 핵심 근거를 공개한다면 그에 딸린 불필요한 신상 정보도 같은 대상에게 공개해야 한다.
- ⑤ 접근 권한의 제한과 보존 필요성의 재심사는 기록의 책임성 확보와 양립할 수 있다.

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검증 자료의 보존과 개인의 정보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두 입장 모두 분쟁을 해결할 원본이 여전히 필요하더라도, 공개할 설명을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면 원본까지 바로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
- ③ 두 입장 모두 개인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지만, 판단과 관계없는 신상 부분도 공적 결정의 기록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 ④ 두 입장은 원본 보존과 공개 범위를 구별하지만, 검증 목적이 끝난 후 보존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에서만 찾을 수 있다.
- ⑤ 두 입장 모두 관리 기관이 보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기록의 이용 목적이 사라진 뒤에도 같은 열람 범위를 유지해도 된다고 본다.

7.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청의 주민 시설 선정 회의록에는 선정 이유와 함께 회의 중 소개된 한 주민의 사적인 건강 상태가 실명으로 적혀 있다. 주민들은 시설 선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시청은 선정 기준과 의결 과정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부분을 공개하되, 판단에 필요하지 않은 건강 정보는 가리고 원본의 열람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① (가)는 검증에 필요한 선정 기준만 공개할 수 있더라도 원본의 신상 정보까지 같은 범위로 개방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② (나)는 이미 결정된 선정 결과에 대한 검증에 한하여 기록 보존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시청의 원본 제한 보관에 반대할 것이다.
- ③ (가)와 (나)는 원본 보관을 인정하는 경우 원본의 모든 열람자에게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 ④ (가)는 삭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시청이 선정 이유만 남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 없이 모든 원본을 즉시 지워야 한다고 볼 것이다.
- ⑤ (가)는 비식별 공개를, (나)는 선정 이유의 추적 가능한 보존을 인정할 수 있다.

8. (가)와 (나)가 특히 강조하는 논점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입장 모두 기록의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가)는 공적 분쟁 기록의 예외적 보존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가)는 관리 기관의 설명 책임을, (나)는 개인의 삭제 요구에 따른 보존 기간의 즉각 종료를 우선한다.
- ③ (가)는 삭제 원칙의 예외를 주장하는 기관의 설명을 요구하고, (나)는 공적 결정의 이유를 검증할 증거 확보를 중시한다.
- ④ (가)는 필요한 기록만 남기는 방안을 제안하지만, (나)는 기록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신상 정보의 가림을 배제한다.
- ⑤ 두 입장 모두 기록의 보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따질 수 있으나, (나)는 보존 기간이 끝나도 재검토할 수 없다고 본다.

9. (가)와 (나)의 논의를 적용하여 다음 <보기>의 기록 관리 방안을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공공 지원사업 선정표에는 ㉠ 심사 점수와 판단 이유, ㉡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지원자의 사적인 생활 정보, ㉢ 점수 수정 시각과 담당자의 검토 이력이 함께 들어 있다. 정기 감사는 끝났지만, 한 지원자가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해 두 달 뒤 추가 검증이 예정되어 있다. 그 검증에는 ㉠·㉢의 원본 대조가 필요하지만, 대중에게 검증 결과를 설명할 때에는 사적인 생활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

- ① 정기 감사가 끝났으므로 진행 중인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두 입장의 공통된 요구에 맞는다.
- ② 추가 검증에 ㉠·㉢의 원본이 필요하다면 그 기록은 제한적으로 보존하되, 대중에게도 원본의 모든 정보에 동일한 열람권을 주어야 한다.
- ③ ㉡의 보존 필요성이 낮다면 ㉠·㉢까지 함께 삭제하고, 추후 검증에서 선정 이유를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는 방식을 우선한다.
- ④ ㉠·㉢은 추가 검증에 필요한 기간과 열람자를 정해 보존하고 ㉡은 공개에서 제외하며, 검증 후에는 보존 필요성을 다시 판단한다.
- ⑤ ㉠·㉢이 추가 검증에 필요하므로 ㉡도 같은 증거로 취급해 보존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10~13번] 과학·기술: 다공성 젤의 흡수와 지지력

다공성 젤은 고체 골격 사이에 미세한 빈 공간을 둔 재료다. 물이 젤에 들어오는 속도는 빈 공간이 연결된 정도와 통로의 폭에 영향을 받는다. 통로가 넓고 서로 잘 연결되면 물이 빠르게 들어오지만, 같은 재료에서 골격을 지나치게 줄이면 누르는 힘을 버티는 강도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흡수 속도와 강도가 반드시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젤의 성능을 비교할 때에는 통로가 열려 있는 정도와 그 통로를 둘러싼 골격을 구분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젤의 크기가 같아도 내부 통로가 이어진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연구자가 관심을 두는 '초기에 얼마나 빨리 물이 들어오는가'와 '압축했을 때 형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는 같은 지표가 아니다. 한 시료가 어느 하나에서 우세하더라도 나머지 지표의 우세까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젤이 일정 시간 뒤 보유한 물의 양을 '보유량', 처음 마른 젤의 질량을 기준으로 물이 추가된 비율을 '팽윤율'이라고 하자. 마른 질량이 10g인 시료가 물을 흡수하여 16g이 되었다면 팽윤율은 $(16-10)/10 \times 100 = 60\%$ 이다. 팽윤율은 그 시점에 얼마나 물을 보유했는지를 나타낼 뿐, 그 양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단독으로 알려 주지는 않는다.

연구자는 같은 온도에서 시료 A와 B를 시험했다. 두 시료의 마른 질량은 각각 10g으로 같았다. 물에 담근 뒤 5분 시점의 질량은 A 15g, B 13g이었고, 30분 시점의 질량은 A 17g, B 18g이었다. 따로 측정한 압축 강도는 A가 B보다 높았다. 따라서 5분 시점에서는 A가 물을 더 많이 보유했지만 30분 시점의 보유량은 B가 더 많았고, 강도와 30분 시점 보유량의 서열도 일치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질량을 잴 때 젤 표면에 붙어 있던 물방울을 같은 방식으로 제거한 뒤 측정했다. 이 절차는 표면에 묻은 물을 시료 내부에 보유된 물과 혼동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표면의 물을 일정하게 제거했어도, 두 시점 사이에 물이 언제 얼마나 드나들었는지를 모두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연속 관측 자료가 있어야 순간 변화의 양상을 더 자세히 논할 수 있다.

젤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히면 초기에 물이 들어오는 속도를 낮출 수 있다. 다만 막이 젤 내부의 전체 수용 공간을 바꾸지 않는다면 충분히 긴 시간 뒤의 보유량은 비슷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막을 입힌 시료가 처음에는 느리게 부풀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팽윤율도 반드시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30분이 지났다는 사실은 반드시 흡수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젤이 긴 시간 뒤 더 이상 질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추가 관측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누적 보유량이 높은 시료를 곧바로 최종 수용량도 큰 시료라고 부르지 않는다. 여러 성질을 평가하려면 측정 시각, 분모, 압축 강도 시험 조건을 함께 적어야 한다.

10. 윗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다공성 젤의 흡수 속도는 통로의 연결 정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② 통로를 넓혀 초기에 물이 빨리 들어오게 하면, 골격이 줄어도 압축 강도는 흡수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높아진다.
- ③ 팽윤율은 마른 질량 대비 물이 늘어난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 ④ 일정 시점의 보유량은 그 시점까지의 흡수 시간을 단독으로 알려 주지 않는다.
- ⑤ 막을 입힌 젤이 5분 시점에 적은 물을 흡수했다더라도 전체 수용 공간이 같다면 충분히 긴 시간 뒤의 보유량은 유사할 수 있다.

11. A와 B의 흡수량 변화에 관한 다음 판단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구간의 평균 흡수 속도(g/분)는 그 구간에서 추가로 흡수한 물의 질량을 구간의 경과 시간(분)으로 나눈 값이다.

- ① 0~5분 평균 흡수 속도의 A/B 비는 5/3이고, 5~30분 평균 흡수 속도의 B/A 비는 5/2이다.
- ② 0~5분 평균 흡수 속도는 A가 0.6g/분, B가 1.0g/분이므로 A가 더 느리다.
- ③ 5~30분의 총 흡수 증가량은 A가 2g, B가 5g이므로 두 시료의 순간 흡수 속도는 25분 동안 항상 일정했다.
- ④ 5~30분 평균 흡수 속도는 A가 0.08g/분, B가 0.20g/분이므로 두 값의 차이는 0.20g/분이다.
- ⑤ 0~5분 평균 흡수 속도에서 A가 B보다 빠르므로 5~30분에도 A의 평균 흡수 속도가 B보다 커야 한다.

12.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의 5분·30분 질량 차이가 반대로 바뀌었으므로, 그 사이 어느 시점에서나 B의 순간 흡수 속도가 A보다 컸다고 단정할 수 있다.
- ② A가 30분에 17g이라는 수치는 A가 5분까지 흡수한 물 중 일부를 30분 전에 모두 방출했음을 의미한다.
- ③ B는 30분에 18g으로 A보다 보유량이 많으므로, 두 시료를 압축할 때 B가 더 높은 강도를 보였다고 해석해야 한다.
- ④ 두 시점의 누적 보유량으로 해당 구간의 평균 변화량은 계산할 수 있지만, 구간 내부의 순간 흡수 속도까지 모두 확정할 수는 없다.
- ⑤ 30분에 질량이 B 18g, A 17g이므로 마른 질량도 B가 A보다 1g 커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료 A와 내부의 수용 공간이 같지만 표면에 얇은 막을 입힌 C, A보다 물길을 넓히는 대신 골격 일부를 줄인 D를 만들었다. 물에 담근 뒤 5분과 30분 시점까지 누적해서 흡수한 물의 질량은 각각 A가 5g·7g, C가 3g·6g, D가 6g·9g이었다. D의 압축 강도는 A보다 낮았다. 다른 시간대의 측정값과 C의 압축 강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 ① C의 30분 보유량이 A보다 작으므로 C의 최종 수용 공간도 더 작다는 결론이 성립한다.
- ② C의 5~30분 증가량이 A보다 크므로 0~5분 동안 추가로 흡수한 물의 양도 C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다.
- ③ C는 5분까지 A보다 적게 흡수했지만, 5~30분 동안 추가로 흡수한 물은 A보다 많았다.
- ④ C와 D의 5~30분 증가량이 같으므로 그 구간의 모든 순간에 흡수 속도도 같았다고 볼 수 있다.
- ⑤ D가 30분에 A보다 물을 더 많이 보유하므로 D의 압축 강도도 A보다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14~17번] 사회·경제: 가상의 상계·이행보증 규칙

다음은 가상의 공동 정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실제 법률에 관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으며, 아래 규칙만 적용한다.

공동 정산에 참가한 기업들은 서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가진다. 정산일에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모두 확정되어 있고 두 채무의 지급일이 같다면, 정산 기관은 두 금액을 서로 상계한다. 상계 후 금액이 더 큰 쪽의 채무자가 차액만 지급한다. 이때 상계는 채무 중 서로 대응하는 부분을 없앨 뿐, 원래 발생한 채무의 사실 자체를 지우지는 않는다.

두 채무가 서로 맞서는 것처럼 보여도 먼저 거래 상대가 정확히 같은 두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갑이 을에게 지급할 돈과 병이 갑에게 지급할 돈은 단지 갑이라는 기업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한 쌍의 채무처럼 취급되지 않는다. 이 제도에서 상계의 판단 단위는 동일한 두 참가 기업 사이의 대응 채무이며, 서로 다른 정산일의 독립된 거래를 합쳐 차액을 만들지 않는다.

참가 기업은 차액 지급에 대비해 별도의 이행보증 한도를 정해 둘 수 있다. 지급일 다음 날까지 차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고, 상대방이 보증 기관에 서면 청구하면, 보증 기관은 미지급 차액과 보증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 지급한다. 보증 기관이 지급한 금액은 그 기업에게 구상할 수 있다. 지급일 전에 미리 상계 대상으로 접수된 채무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날 상계할 수 없다.

정산 과정에서 '접수되었다', '확정되었다', '지급일이 되었다'는 표현도 구별해야 한다. 접수는 기관이 해당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고, 확정은 지급할 금액이 결정된 상태를 뜻한다. 두 거래가 같은 날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채무가 확정되었는지와 실제 지급일이 같은지를 따로 살펴야 한다. 상계가 성립하면 정산 기관은 그 계산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어느 정산일에 갑 기업이 을 기업에게 확정된 채무 120만 원, 을 기업이 갑 기업에게 확정된 채무 70만 원을 갖고 있었으며 지급일이 같았다. 갑의 이행보증 한도는 40만 원이었다. 다른 날에는 갑이 을에게 확정된 채무 90만 원을 갖고 있었으나 을의 30만 원 채무는 지급일이 달랐다. 이때에는 앞선 날과 달리 두 채무를 바로 상계할 수 없었다.

정산 기관은 상계 가능성, 차액의 크기, 보증 청구 요건을 각각 다른 단계에서 검토한다. 그러므로 서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상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차액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보증 기관의 지급 의무가 곧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상계 뒤에는 세 금액을 별도로 보아야 한다. 첫째는 상계 전의 원채무, 둘째는 서로 대응하는 부분을 빼고 남은 차액, 셋째는 기한이 지난 뒤 실제로 남아 있는 미지급액이다. 보증 기관이 심사하는 것은 차액 전체가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미지급액이며, 보증 한도는 그 지급액의 상한이다. 보증 기관이 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상 관계와 상대방이 아직 받지 못한 잔액은 구별해 계산한다.

14. 빚글의 제도를 다음 <보기>의 정산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다른 정산일에 갑이 을에게 지급할 확정 채무 75만 원과 을이 갑에게 지급할 확정 채무 45만 원이 있고, 지급일은 같다. 정산 기관이 상계한 뒤 갑은 지급일까지 차액 중 10만 원만 냈다. 다음 날까지 남은 미지급이 확인되자 을은 보증 기관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서면 청구는 하지 않았다. 갑의 보증 한도는 40만 원이다.

- ① 두 채무의 지급일이 같아 상계는 가능하지만, 미지급이 확인됐으므로 구두 문의만으로도 보증 기관의 지급 의무가 바로 성립한다.
- ② 갑이 1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원래 채무 75만 원에서 이를 뺀 65만 원이 미지급 차액이고, 보증 한도 40만 원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계 뒤 갑의 차액은 30만 원이고 그중 20만 원이 미지급 상태이지만, 을이 서면으로 청구하기 전에는 보증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 ④ 양쪽의 확정 채무 금액이 다르므로 상계가 성립하지 않고, 갑의 최초 채무 75만 원만 기준으로 미지급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 ⑤ 미지급 20만 원이 확인됐으므로 보증 기관은 을에게 지급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갑에게 곧바로 구상할 권리를 얻는다.

15. 첫째 정산일에 갑이 상계 차액 중 20만 원만 지급했고, 다음 날까지 나머지 미지급이 확인되었다. 을이 보증 기관에 서면 청구했다면 보증 기관이 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한 뒤에도 을이 받지 못한 상계 차액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갑이 보증 기관에 갚아야 할 구상 채무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 ① 40만 원, 0원
- ② 30만 원, 0원
- ③ 30만 원, 20만 원
- ④ 20만 원, 10만 원
- ⑤ 0원, 30만 원

16. 첫째 정산일에 갑이 차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다음 날까지 미지급이 확인된 뒤 을이 보증 기관에 서면 청구했다고 하자. 이 경우로 옳은 것은?

- ① 갑의 미지급 차액은 50만 원이고 보증 한도는 40만 원이므로, 보증 기관이 40만 원을 지급한 뒤에도 남은 10만 원은 보증 기관이 다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이다.
- ② 지급일이 지난 다음 날 미지급이 확인되면 보증 한도 안의 지급액은 이미 결정되므로, 을이 서면으로 청구하기 전부터 보증 지급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다.
- ③ 보증 기관은 보증 한도인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 갑에게 구상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보증 기관이 40만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면 갑이 을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차액은 10만 원으로 줄지만, 갑에게 보증 기관의 지급액을 돌려줄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 ⑤ 갑이 원래 을에게 지급할 채무가 120만 원이므로, 보증 기관은 상계 후 차액 50만 원 대신 그 원채무 120만 원을 기준으로 보증 한도에 맞추어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17. 다음 <보기>의 세 정산 자료를 제도에 적용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각 자료는 서로 다른 정산일의 독립된 거래이며, 별도 지급·서면 청구는 없었다.

<보기>

(가) 갑→을 80만 원, 을→갑 30만 원: 두 채무 모두 확정되고 지급일이 같다.

(나) 갑→을 80만 원은 확정, 을→갑 30만 원은 아직 미확정이다. 지급일은 같다.

(다) 갑→을 80만 원, 을→갑 30만 원: 두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지급일이 다르다.

- ① (가)는 상계 뒤 갑이 50만 원을 지급한다. (나)에서는 30만 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 채무이므로 먼저 상계한 뒤 50만 원을 지급하게 한다.
- ② (가)는 차액 50만 원을 갑이 지급하면 되지만, (나)·(다)는 각각 확정 여부와 지급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 ③ (가)는 두 채무가 확정됐으므로 상계할 수 있지만, (다)도 두 채무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지급일이 달라도 50만 원을 차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 ④ (나)의 30만 원 채무는 확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는 갑의 확정 채무 80만 원에서 이를 미리 빼고 차액 50만 원을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가)는 차액을 계산할 수 있어도 별도 서면 청구가 없어 상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다)는 지급일이 달라도 보증 한도 안에서 상계할 수 있다.

[18~21번] 문학: 남겨진 여백

남겨진 여백 — 창작 현대소설 발췌

주하는 새 도서관으로 옮겨 갈 책들을 한 권씩 꺼냈다. 책등에 붙은 흰 띠를 떼고 바코드를 찍으면 모니터에는 책의 이름과 반납 이력이 떴다. 옮길 수 없는 책은 종이 상자에 넣었다. 상자에는 붉은 글씨로 '훼손'이라고 적혀 있었다.

낡은 여행기 한 권을 펼쳤을 때, 주하는 같은 문장이 세 번 밑줄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백에는 서로 다른 필체로 짧은 말이 남아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읽기.' 그 아래에는 '나는 여기서 멈췄다.'라고 쓰여 있었다. 마지막 줄은 지워져서 글자의 흔적만 남았다.

“이것도 훼손이지?” 주하가 물었다.

박 선생은 안경을 벗어 책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그는 도서관에서 삼십 년 가까이 일했지만, 요즘은 무엇이 남을 책인지를 결정하는 일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다.

[A] “분류표로 보면 그렇지. 그런데 누군가 다시 읽은 자리가 훼손인지, 책이 지나온 시간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주하는 책 표지 안쪽에서 빌린 사람들의 오래된 이름표를 보았다. 그중 하나는 박 선생의 것이었다.

“선생님도 이 책을 빌리셨어요?”

“접었을 때. 그때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한 문장은 내가 지웠어.”

주하가 고개를 들었다. 박 선생은 지워진 줄을 손가락으로 덮지 않았다.

“어떤 학생이 자기가 쓴 문장을 다른 사람이 읽는 게 싫다고 했거든. 지워 달라고 했어. 그래서 지웠지. 그 학생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주하는 책을 다시 펼쳤다. 지워진 문장은 끝내 읽히지 않았다.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주하는 붉은 '훼손' 상자와 옮겨 갈 책을 놓는 수레 사이에 여행기를 내려놓았다.

“그럼 이런 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B]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마음대로 남기는 것도, 마음대로 없애는 것도 좀 그렇잖아. 다만 지워 달라는 말을 듣고도 안 지웠다면 그건 기록을 지키는 게 아니었을 거야.”

주하는 대장에 새 칸을 만들었다. '훼손 여부' 옆에 '보존 판단 이유'라고 썼다. 여백의 모든 글을 사진으로 찍지는 않았다. 하지만 책을 그대로 폐기 상자에 넣지도 않았다. 박 선생은 아무 말 없이 책을 수레 위에 올려놓았다.

창밖에는 옛 도서관 간판이 떼어지고 있었다. 그 아래 오래 남아 있던 간판의 윤곽은 햇빛에 색이 바래지 않은 채 벽에 드러났다. 주하는 잠시 그 모양을 바라보다가 대장에 다시 눈을 돌렸다. 새로 만든 칸은 아직 비어 있었다.

18. 여행기를 분류하는 과정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하가 책을 붉은 상자와 수레 사이에 내려놓는 행동은 기존의 두 분류 가운데 하나를 바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과 연결된다.
- ② 박 선생의 이름표를 발견하는 장면은 책에 남겨진 흔적이 현재 관리자 자신의 과거 경험과도 관계있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주하가 여백의 모든 글을 촬영하지 않은 행동은 기록을 남기는 일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 ④ 박 선생이 책을 수레 위에 올린 행동은 주하가 이미 해당 책을 훼손되지 않은 보존 대상으로 최종 분류했다는 결론을 확인해 준다.
- ⑤ 옛 간판을 떼어 낸 자리의 윤곽은 글자를 읽을 수 없어진 여행기의 흔적과 함께 남겨진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으로 읽힌다.

19. 서술자가 과거의 일을 현재 장면에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하의 회상을 통해 박 선생이 여행기를 빌려 읽던 때의 생각을 제시하고, 그때 지워진 문장의 의미를 설명한다.
- ② 과거 대출 이름표의 발견에 이어 박 선생의 발화를 배치하여, 글을 지운 경위와 지금의 보존 고민을 연결한다.
- ③ 학생의 삭제 요구를 서술자가 직접 재현하여, 박 선생이 요청을 받아들이기 전 학생과 나눈 모든 대화를 제시한다.
- ④ 박 선생의 직접 발화를 통해 지워진 글의 내용이 밝혀지며, 현재의 보존 판단도 서술자의 설명으로 마무리된다.
- ⑤ 현재의 분류 작업과 박 선생의 과거 일화를 번갈아 보여 주되, 그 일화가 지금의 책과 관련되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는다.

20. '훼손'이라는 분류와 관련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박 선생은 독자가 남긴 흔적을 확인한 순간, 책의 보존 여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본다.
- ② 박 선생은 규정상 훼손으로 보이는 자국이 동시에 누군가 책을 읽었던 시간의 흔적일 수도 있음을 고민한다.
- ③ 박 선생은 분류표가 훼손으로 판단한 흔적이라면, 흔적을 만든 사람의 뜻과 무관하게 우선 지워야 한다고 본다.
- ④ 박 선생은 지워진 문장을 복원할 수 있어야만 그 책을 읽은 사람의 경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박 선생은 흔적이 남은 모든 책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 분류 기준의 모순이 해결된다고 본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B]와 결말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기록의 가치는 남은 글자에만 있지 않다. 기록이 남겨진 경위와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의 의사 또한 중요하다. 기록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삭제 요구를 무시하면 보존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존은 무엇을 남길 것인지뿐 아니라 무엇을 남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주하가 당장 결정을 적지 않은 것은 과거 기록자의 의사보다 관리 편의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이다.
- ② 박 선생이 학생의 요청에 따라 한 문장을 지운 경험은 모든 자료를 축적하는 것만이 보존은 아님을 보여 준다.
- ③ 주하가 판단 이유를 적는 새 칸을 만드는 행동은 기록 처리의 근거도 남겨야 한다는 태도와 이어진다.
- ④ 박 선생이 학생의 부탁을 받아 한 문장을 지웠다는 설명은, 남아 있는 자국만 보고 그 문장을 마음대로 복원하는 일이 신중해야 할 문제임을 떠올리게 한다.
- ⑤ 즉시 폐기하거나 글씨 전부를 촬영하지 않은 행동은 남길 것과 남기지 않을 것을 더 따져 보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다.

[22~27번] 현대시·창작 시조·산문 복합: 남겨 둔 자리

다음 (가)~(다)는 이 교재를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나)는 시조의 정형적 호흡을 참고했으나 역사적 전승 작품은 아니다.

(가) 「우산을 접는 시간」

비가 그친 뒤에도 / 나는 우산을 펼친 채 걸었다.
처마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 이미 저마다 길을 건넌고
내 손안의 작은 지붕에는 / 빗방울 대신 나무의 그림자가 앉았다.
누군가 먼저 지나간 자리에 / 물웅덩이만 얇게 남았다.
나는 우산을 접었다. / 하늘이 밝아서가 아니라
그 길을 / 이제 두 손으로 만지고 싶어서.

(나) 「언덕의 두 수」

첫째 수: 아침 언덕 오르니 옛길이 먼저 웃네 / 사람은 다 바뀌어도 돌계단은 남았구나 / 묻노라 길 위의 풀아 네가 본 이름은 무엇이나
둘째 수: 저녁 언덕 내려와서 빈집 등을 바라보니 / 남은 돌이 말없다고 지나간 날 없을쏘냐 / 돌아서 내 발자국을 조용히 덮어 두노라

(다) 「기다리는 창」

어린 시절 나는 골목에서 집집마다 서로 다른 창문의 불빛을 세곤 했다. 밝은 창이 많으면 마을도 따듯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몇 해 뒤 그 골목에 돌아왔을 때, 가장 어둡던 집의 창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멀리 타지에서 일 하던 이웃이 돌아온 날이었다. 창이 밝아 보여야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내 오래된 믿음은 그날 조금 흔들렸다. 나는 불이 켜진 창과 사람이 있는 집을 더 이상 같은 것으로 세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골목을 지날 때면 습관처럼 창문을 올려다본다. 떠난 사람을 기다리던 시절의 내 눈길이 그곳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22. (가)의 이미지와 화자의 선택을 다음 <보기>와 연결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도구가 이미 필요 없어진 뒤에도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장면에서는, 외부 조건의 변화와 화자의 내적 변화가 반드시 같은 시점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작품의 이미지는 그 사이에 놓인 감각의 변화를 암시할 수 있다.

- ① 비가 멎은 뒤에도 우산을 펼친 행동은 외부 조건이 바뀐 시점과 화자의 선택이 바뀐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우산 위의 나무 그림자는 비를 가리던 도구가 주변 풍경을 받아들이는 표면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다른 사람들이 먼저 건넌 장면과 길에 남은 물웅덩이는 타인의 이동과 그 흔적을 함께 드러내지만, 화자가 건너야 할 목적지를 확정하지는 않는다.
- ④ 두 손으로 길을 만지고 싶다는 말은 우산을 접은 뒤의 감각 경험을 소망한 것으로, 앞서 우산에 비친 그림자를 손으로 직접 만졌다는 사실을 뜻하지 않는다.
- ⑤ 화자가 우산을 접는 이유는 비가 멎어 도구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만 설명되며, 길을 만지고 싶다는 말은 행동 이후의 감상에 그친다.

23. (나)의 첫째 수와 둘째 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째 수는 길 위의 풀에게 물음을 건네면서, 현재 남아 있는 자연물로부터 과거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둘째 수는 돌이 말을 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지난날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방향으로 반문을 사용한다.
- ③ 첫째 수의 돌계단과 둘째 수의 남은 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과 달리 오래 남는 공간적 흔적으로 연결된다.
- ④ 첫째 수의 질문은 아직 알 수 없는 이름을 향하고, 둘째 수의 반문은 지나간 시간이 있었다는 생각을 강조하므로 두 물음의 기능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 ⑤ 둘째 수는 돌이 말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지난날에 관한 기억이 끊어졌음을 인정하므로, 첫째 수의 물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을 강조한다.

24. (다)의 화자가 과거의 믿음과 현재의 행동을 다루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두운 창 앞의 모임은 밝기와 친밀함을 동일시하던 판단을 흔들지만, 창을 올려다보는 오래된 행동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 ② 창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지속되므로, 현재에도 밝은 창이 많은 골목은 사람이 가깝다는 믿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다.
- ③ 어두웠던 집 앞에서 사람들을 본 이후 화자는 과거 골목의 모든 창에 대한 자신의 관찰이 사실과 달랐다고 확정한다.
- ④ 타지에서 돌아온 이웃을 확인한 경험은 창이 밝기와 관계의 거리를 항상 반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세운다.
- ⑤ 이웃의 귀환을 알게 된 화자는 그를 기다렸던 시절의 눈길도 사라졌다고 보아 창을 보던 습관에서 벗어나기로 한다.

25. (가)~(다)에 나타난 행동의 변화와 지속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우산 접기와 (다)의 창문 바라보기는 모두 새로운 경험 뒤 과거의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다.
- ② (가)는 이전의 도구 사용을 바꾸지만, (다)는 오래된 판단을 수정한 뒤에도 예전의 시선이 습관으로 남았다고 말한다.
- ③ (나)의 화자는 첫째 수의 물음에 답을 얻은 뒤 둘째 수에서 발자국을 덮으므로, 두 행동은 탐색의 완료를 보여 준다.
- ④ (가)는 타인이 먼저 길을 건넌 사실을 우산을 접은 유일한 동기로 들고, (나)는 지난날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
- ⑤ (나)의 발자국 덮기와 (다)의 창문 보기는 모두 과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결과 현재의 행동을 완전히 중단한다.

26. <보기>를 적용하여 (가)~(다)의 표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에서 행동의 소망이나 의도와 이미 일어난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물음을 던지는 표현도 반드시 답을 얻은 일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특히 화자가 행동의 동기를 직접 밝힌 부분과 독자가 추론할 수 있을 뿐인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두 손으로 길을 만지고 싶다는 말은 우산을 접은 동기를 밝히지만, 길을 실제로 만졌는지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 ② (나)의 첫째 수가 풀에게 과거의 이름을 묻는 것은 질문의 행위가 표현된 것이지, 과거 이름을 실제로 알아냈다는 뜻은 아니다.
- ③ (나)의 둘째 수에서 발자국을 덮는다는 말은 화자의 행동을 표현하지만, 첫째 수의 질문이 풀의 대답으로 해결되었음을 알려 주지는 않는다.
- ④ (다)는 밝은 창에 관한 믿음을 고쳤다고 말하면서도, 창문을 올려다보는 오래된 습관은 계속된다고 구분한다.
- ⑤ (가)는 우산을 접으면서 두 손으로 길을 실제 만졌다고 서술하고, (다)는 오래된 믿음을 고친 뒤에도 창문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남았다고 말한다.

27.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의 표현 효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에서 익숙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질 때, 같은 사물도 변화의 계기를 보여 줄 수 있다. 이때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인지, 사물을 관찰하는 사람의 판단이 바뀐 것인지를 분리해 읽을 필요가 있다.

- ① (가)는 우산에 빗방울 대신 나무 그림자가 앉는 장면에서 이어 화자가 우산을 접는 선택을 보여 주고, (다)는 어두운 집 앞 모임을 계기로 화자의 기존 판단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나)의 옛길이 웃는 모습은 의인화이지만, (다)의 어두운 창 앞에 모인 사람들은 창 자체가 말을 건네 화자의 믿음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인화의 효과가 같다.
- ③ (가)의 물웅덩이는 앞서 지나간 사람들이 남긴 흔적과 연결되고, (나)의 풀은 옛길에 남아 있지만, 두 작품 모두 그 사물이 과거 사람들의 이름을 실제로 알려 준다.
- ④ (나)의 돌계단과 (다)의 창은 모두 시간의 흔적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다)의 인식 전환은 어두웠던 창이 밝아진 뒤에야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 ⑤ (가)는 우산을 접는 이유를 직접 밝히지만, (나)는 풀에게 던진 물음에 대한 답을 들은 뒤 발자국을 덮어 과거에 대한 의문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28~31번] 고전소설 원문 기반: 박지원 「허생전」 (독자 번역·재구성)

다음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옥갑야화」에 실린 허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문의 두 대목을 짧게 인용하고 그 앞뒤 상황을 교재용으로 직접 옮겨 엮은 것이다. 아래 우리말 문장은 기존 번역본의 발췌가 아닌 독자 번역·재구성이며, 한문 원문의 전부나 특정 판본의 완역문이 아니다.

(가) 허생은 아내의 바느질 품으로 겨우 끼니를 이으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아내가 더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생업을 마련하라고 하자, 허생은 원래 열 해 동안 공부할 생각이었으나 일곱 해밖에 못 채웠다고 아쉬워하며 집을 나섰다. 그는 시장 사람에게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이가 누구인지 물어 변씨를 찾아갔다. 허생은 자신의 계획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만 냥을 빌려 달라고 했고, 변씨는 즉시 돈을 해주었다.

변씨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해진 옷과 닳은 신을 신고도 돈을 청한 낯선 이에게 어찌 이름조차 묻지 않느냐고 놀랐다. 변씨는 보통 돈을 구하는 자가 자신의 뜻을 장황하게 드러내고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기 마련이나, 그 손님은 말이 짧고 표정에 위축됨이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시험하려는 일이 작지 않을 것이며 자신도 그를 시험해 보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을 맺으며 원문의 표현대로 ㉠ “既與之萬金, 問姓名何爲?”라고 하였다.

(나) 만 냥을 얻은 허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 고장의 물산이 오가는 길목인 안성으로 향했다. 그는 대추·밤·감·배 따위의 과일을 값의 두 배를 치르면서까지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윽고 잔치나 제사를 치르려는 사람들도 과일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먼저 허생에게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은 얼마 뒤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다시 과일을 사갔다. 허생은 돈을 불린 일을 마냥 기뻐하지 않고 ㉡ “以萬金傾之, 知國淺深矣.”라고 탄식하였다. 작은 돈으로 온 나라의 물산 흐름을 뒤흔들 수 있으니 나라의 경제적 바탕이 얼마나 얇은지 알겠다는 뜻이었다. 그 뒤 허생은 제주도의 말총을 거두어들이기도 하였고, 머리에 쓰는 망건의 값도 크게 올랐다.

※ 어휘: ㉠은 ‘이미 만 냥을 해주었는데 어찌 이름을 묻겠는가?’라는 뜻이고, ㉡은 ‘만 냥으로 나라를 기울게 할 수 있으니 그 깊고 얕음을 알겠다’라는 취지다. ‘망건’은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데 쓰던 물건이다.

※ 원전과 재구성의 경계: 박지원 『열하일기』 「옥갑야화」의 허생 이야기. ㉠·㉡의 한문만 원문 직접 인용이고, (가)·(나)의 나머지 현대어 서술은 원문 대목을 바탕으로 교재 제작자가 축약·재서술한 것이다. 원문 전사·원전의 공식 현대어 번역으로 인용하지 말 것.

28. (가)의 인물들이 허생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사람들은 변씨가 낯선 이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돈을 내준 데 놀라고, 변씨는 차림새보다 허생의 말과 태도에 주목한다.
- ② 결사람들은 허생이 신분을 증명한 뒤 돈을 구했다고 이해하고, 변씨는 그 증명이 신뢰할 만한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금액부터 건넨다.
- ③ 변씨는 허생이 거래할 물품을 미리 특정했다고 판단하여 돈을 내주고, 결사람들은 물품의 시세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만류한다.
- ④ 변씨는 허생의 낡은 차림이야말로 값을 능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여기고, 결사람들은 허생의 빈곤한 형편 자체를 부정한다.
- ⑤ 결사람들은 허생의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씨는 그의 태도가 위축되어 보인다고 빌려줄 돈을 줄 이려 한다.

29. 다음 <보기>의 두 해석을 (가)와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해석 A: 변씨는 허생의 재산이나 신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대여를 결정했다.

해석 B: 변씨는 허생이 보인 태도로 계획의 규모를 짐작했으나, 그 예상이 맞는지 돈을 내주어 시험하려 했다.

- ① A는 겉사람들이 허생을 보고 놀란 이유를 설명하지만, B는 변씨가 이름을 묻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 ② A는 허생의 거래 계획이 세세히 제시됐다는 사실에 근거하지만, B는 변씨가 행동의 결과를 이미 확인했다는 사실과 충돌한다.
- ③ A는 신분·재산의 확인을 전제하므로 어긋나고, B는 변씨가 허생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시험하려 했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 ④ A와 B는 모두 허생의 구체적인 상업 거래 성과를 본 뒤 변씨가 만 냥을 내주었다는 판단을 공유한다.
- ⑤ A와 B는 각각 허생의 겉모습과 내면을 달리 평가하지만, 변씨가 실제로 돈을 건넨 시점을 동일하게 잘못 이해한다.

30. (나)의 사건 전개와 ㉠의 탄식을 연결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생이 같은 품목을 대량으로 거두어들인 뒤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므로, 거래가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준다.
- ② 제사와 잔치에 필요한 과일까지 부족해진 상황은 수요가 남아 있는 물품의 유통 경로가 집중되었음을 드러내는 근거가 된다.
- ③ 앞서 물품을 팔았던 상인들이 나중에 허생에게서 다시 사는 장면은 같은 상인이 시장의 공급자였다가 구매자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 ④ 허생의 ㉠은 적은 자본으로도 물산의 흐름을 흔들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므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나라의 경제적 토대가 튼튼하다고 찬양한 것은 아니다.
- ⑤ 처음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비싼 값에 다시 사 갔으므로, 그들이 매점 이후에도 물품의 판매가격과 거래 조건을 계속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31.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함께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전소설의 풍자는 인물의 말과 행동 사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와 그 결과를 해석하는 태도 사이의 간격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독자는 인물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성과가 드러낸 사회의 문제까지 살필 필요가 있다.

- ① 변씨가 이름도 묻지 않고 돈을 빌려준 일은 외양만으로 허생을 판단하지 않은 사례이고, 허생의 과일 거래도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했으므로 두 장면은 당시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는 풍자로 연결된다.
- ② 변씨는 허생의 태도에서 계획의 규모를 짐작하고 시험하려 했으며, 허생은 매점의 성과를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판단은 대비된다.
- ③ 변씨는 허생의 외양이 남루해도 그가 가진 태도를 다르게 해석하며, 허생은 큰돈을 벌고도 시장의 허약함을 탄식한다는 점에서 겉으로 보이는 사실과 평가 사이의 간격이 드러난다.
- ④ (가)에서 변씨는 허생의 이름과 재산을 먼저 확인한 뒤 만 냥을 내주고, (나)에서 허생은 과일 값이 오른 것을 개인의 성공으로만 이해하며 기뻐한다.
- ⑤ (가)의 겉사람들은 차림새와 신원에 주목하고 변씨는 태도에 주목한다. (나)에서는 허생의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의 말은 그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확신하는 평가에 해당한다.

[32~34번] 고전시가 원전 복합: 윤선도·황진이와 현대시

다음 (가)와 (나)는 조선 시대 시조의 전승 작품이다. 학습용 지문에서는 읽기 쉽도록 옛 표기를 현대 표기로 바꾸고 일부 어휘·어미를 뜻에 맞게 풀어 썼으므로, 아래의 세 행을 특정 고문헌의 원문 그대로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다)는 이 교재를 위해 창작한 현대시다.

(가) 윤선도, 「오우가」 중 '물'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도 많다.
좋고도 그칠 때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나) 황진이, 「동짓달 지나긴 밤을」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뽀구뽀 펴리라.

(다) 「지붕 아래」 (교재 창작)

나는 건너편 집 지붕을 매일 보았다.
어제와 같은 기와라고 생각하는 동안
한 장은 바람을 견디고 / 한 장은 비를 품었다.
조용하다는 말은 /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었다.
저녁에 나는 기와의 수를 세지 않았다.
대신 오래 버틴 자리에 / 작은 물자국이 있는지 살폈다.

※ 어휘: '검기'는 구름이 어두워짐을, '그칠 적'은 멈출 때를 뜻한다. '어론 님'은 정든 임을, '서리서리'는 겹겹이 감아 놓는 모양을, '구뽀구뽀'는 여러 굽이로 펼쳐는 모양을 나타낸다.

※ 원전·현대 표기 구별: (가)는 『고산유고』 권6하 「오우가」의 「물」, (나)는 『청구영언』 등 여러 가집에 전하는 황진이 시조에 근거한다. 고문헌의 옛 표기(예: 「오우가」의 「그칠 적이 하노매라」, 「그칠 뉘 업기…」)를 학습용으로 풀어 쓴 부분이 있으므로 이 교재의 지문을 원문 정밀 전사본으로 인용하지 말 것. (다)는 창작이다.

32. (가)~(다)에 나타난 대상의 속성과 화자의 인식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구름의 빛과 바람의 소리를 매력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를 물의 특성과 대비하고 있다.
- ② (나)는 긴 밤의 일부를 베어 보관했다가 임이 돌아온 날 펼치겠다는 상상을 통해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할 시간을 구별한다.
- ③ (다)는 외견상 어제와 같아 보이는 지붕의 기와들이 서로 다른 날씨를 견뎌 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관찰 기준을 바꾼다.
- ④ (가)는 그치지 않는 물의 지속성을 높이 평가하지만, (다)의 화자는 물자국보다 매일 같은 기와 수를 기록하는 일이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⑤ (나)의 기다림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만남을 향해 있고, (다)의 물자국을 살피는 태도는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찾으려는 쪽에 가깝다.

33.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서정시에서 대상의 한 가지 속성이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현실에는 없는 행동을 상상하여 간절한 바람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이때 작품 안에서 실제로 관찰하거나 경험한 일과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바람 소리가 맑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소리가 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충분하다고 보고, (나)의 화자는 임과의 만남을 이미 마친 시간으로 회상한다.
- ② (가)의 화자는 구름이 검어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았지만 이를 물의 끊임없음과 같은 성질로 평가하고, (나)의 화자는 긴 밤을 자르는 행동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확인한다.
- ③ (가)의 화자는 구름과 바람의 반복된 변화에 비추어 물의 지속성에 가치를 두고, (나)는 임과 함께할 시간을 늘리고 싶은 소망을 밤을 나중에 펼치는 상상으로 드러낸다.
- ④ (가)의 화자는 변화하는 구름과 그치는 바람을 통해 물 역시 언젠가는 멎으리라는 결론에 이르고, (나)의 화자는 시간을 보관할 수 없다는 체념으로 시상을 끝맺는다.
- ⑤ (가)의 화자는 감각적 특성이 아니라 자연물의 이름에서 물의 우월성을 발견하고, (나)의 화자는 긴 밤을 보관하고 싶은 이유를 임과의 거리보다 겨울의 추위에서 찾는다.

34. (가)~(다)의 표현을 <보기>와 연결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적 대상이 시간을 드러내는 방식에는 같은 속성이 이어짐을 강조하는 방식, 추상적 시간을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사물처럼 그리는 방식, 눈에 띄지 않던 흔적을 찾아 변화의 과정을 상상하게 하는 방식이 있다. 서로 다른 방식을 하나로 묶듯 그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 ① (가)의 “그칠 적”은 바람 소리가 멎는 때를 가리키며, 물의 “그칠 때 없음”과 대조돼 지속성의 의미를 드러낸다.
- ② (나)의 “서리서리”와 “구뵈구뵈”는 밤을 보관하고 펴는 모습을 구체화하며, 화자가 바라는 시간의 쓰임을 감각적으로 보여 준다.
- ③ (다)의 “어제와 같은 기와”라는 판단은 뒤에서 개별 기와의 자취를 살피는 방식으로 바뀌며, 겉모습의 동일성과 시간의 흔적이 구별된다.
- ④ (가)의 지속성은 현재의 물에서 발견한 가치이고, (나)의 밤을 펼침은 앞으로의 만남에 대한 소망이므로 작품 안의 실제 사건으로 단정할 수 없다.
- ⑤ (나)의 ‘서리서리’는 과거의 긴 밤을 실제로 베어 저장한 경험을 회상하는 말이고, (다)의 ‘물자국’을 살피는 행동은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찾으려는 태도이다.

[35~37번] 교내 발표: 도서관 열람 공간을 바꾸는 제안

다음은 학생회에서 진행한 발표의 일부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모둠 과제를 하려다가 빈자리가 없어 돌아간 경험 있죠? 지난달 학생회가 정해진 점심시간에 사흘간 조사한 결과, 개인 열람석 60석 중 평균 48석, 모둠석 16석 중 평균 15석이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그 사흘, 그 시간대의 현황입니다. 도서관이 하루 종일 똑같이 붐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존 열람석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수요일 방과 후에만 비어 있는 세미나실을 예약제로 운영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다만 세미나실의 방음 정도와 관리 인력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사용 신청을 받아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예약 인원, 실제 이용 인원, 민원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이 끝나면 만족도 설문과 실제 이용 현황을 함께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서에 쓰인 QR코드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 주세요.

발표 후 질문: “모듬석이 항상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발표자: “그렇게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점심시간에 한정되어 있고, 저녁 시간과 시험 기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5. 발표자가 도입을 고치기 위해 마련한 <보기>의 두 원고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모듬 과제를 하려다 자리가 없어 돌아간 적 있나요? 학생회가 점심시간 사흘 동안 살펴본 자료를 함께 보고 해결안을 생각해 봅시다.”

(나) “모듬석은 늘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도 있으니 곧바로 영구적인 공간 변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 ① (나)는 조사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점심시간 자료를 근거로 영구 시설 변경을 제안하더라도 2주 시범 운영이라는 발표자의 원래 계획과 충돌하지 않는다.
- ② (가)는 청중의 경험을 먼저 묻기 때문에 조사 범위를 정확히 밝히더라도 실제 이용 자료보다 개인 경험을 우선하는 발표가 될 수밖에 없다.
- ③ (가)는 청중의 경험으로 관심을 끌면서 자료의 조사 범위를 함께 알리지만, (나)는 조사 대상과 운영 결정의 범위를 실제 근거보다 넓혀 제시한다.
- ④ (가)는 해결안을 함께 생각하자고 제안하므로 방음·관리 인력 확인 결과가 아직 없어도 영구적인 공간 변경을 즉시 확정하도록 청중을 설득하는 데 적합하다.
- ⑤ (나)는 공간 변경을 확정적으로 말하지만, 제안된 시범 운영이 끝나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에 충실하게 담고 있다.

36. 발표에서 제시한 2주 시범 운영이 끝난 후 학생회가 다음 <보기>를 받았다. 운영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수요일 방과 후 세미나실은 2주간 총 30팀이 예약했으나 실제 이용한 팀은 18팀이었다. 민원은 4건이며, 그중 3건은 소음 문제, 1건은 운영 시간 문의였다. 만족도 설문은 응답자 수와 조사 방식이 기록되지 않았다.

- ① 예약 팀 30팀이 확보됐으므로 실제 이용한 18팀과 민원 4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도 시범 운영 수요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 ② 실제 이용은 예약 30팀 중 18팀(60%)이다. 소음 민원과 만족도 설문의 한계까지 살핀 뒤 운영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③ 민원 4건 중 3건이 소음 관련이므로 나머지 이용자 전원이 소음 때문에 이용을 포기했다고 추론할 근거가 있다.
- ④ 만족도 설문에 응답자 수가 없으므로 예약과 실제 이용의 차이도 비교할 수 없으며 시범 운영에서 얻은 정량 자료는 활용할 수 없다.
- ⑤ 예약과 실제 이용 팀 수가 달랐으므로, 시범 운영에서 발생한 소음 민원은 예약 단계와는 무관한 문제로 분리하여 운영 판단에서 제외해도 된다.

37. 발표 이후 한 학생이 “사흘 점심시간에 모둠석 16석 중 평균 15석이 사용됐다면 새로운 방을 열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했다. 발표자가 추가 조사 계획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응답은?

- ① 사흘 점심시간에 평균 15석이 사용됐으므로 세미나실을 열면 예약 신청자 전원이 실제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② 평균 15석이 사용됐다는 기록은 대기한 학생 수를 알려 주지 않으니, 자리를 얻지 못한 학생의 규모와 이용 목적을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 ③ 점심시간 자료를 얻었으니 다른 시간대의 이용 여부는 묻지 않고도 2주 시범 운영으로 도서관 전체의 적정 좌석 수를 결정하겠습니다.
- ④ 점유율은 관찰한 사실이지만 그 숫자만으로 새로운 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미나실 계획은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 ⑤ 점심시간 평균 사용 좌석은 개인석 48석, 모둠석 15석이므로, 남는 평균 13석은 모두 모둠 활동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38~41번] 학생회 대화와 공지문

다음은 축제 행사 안내문을 수정하려는 학생들의 대화와 수정 초안이다.

민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안내하면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학생은 빠질 수 있어.

도현: 그렇지만 현장 접수도 허용하면 장소별 인원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수아: 둘 다 해결하자. 사전 온라인 신청 80명과 당일 현장 접수 20명으로 운영하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쓰자.

민서: 공연 시작은 오후 3시인데, 신청 마감도 오후 3시로 적어 두었네. 이러면 입장 확인 시간이 부족해. 온라인 신청은 전날 오후 6시로 앞당기고 현장 접수는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로 하자.

도현: 비가 올 경우 야외 공연은 강당으로 옮기고, 강당의 최종 수용 인원이 적으면 추첨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려야겠어.

수아: 좋아. 추첨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 결과를 확인할지도 넣자.

[수정 전 안내문]

'우리 학교 축제 공연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수정안 메모]

온라인: 전날 18:00까지 / 현장: 당일 14:30까지. 잠정 인원 온라인 80·현장 20. 우천 시 강당 이전. 안전 점검과 최종 수용 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첨 실시 여부 및 결과 공지 시각은 결정 후 안내.

38. 학생들의 협의 과정을 고려할 때 다음 <보기>의 후속 제안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교 담당자가 “접근성을 위해 현장 접수는 유지하되, 안전 점검에서 강당 정원이 70명으로 확인될 경우 온라인 80명·현장 20명이라는 잠정 배분을 그대로 공지해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 ① 현장 접수를 없애면 온라인 신청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므로, 강당 정원이 줄더라도 온라인 80명과 현장 20명 배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② 잠정 배분은 두 신청 방식의 합계가 100명이기 때문에, 강당 정원 70명이 확인되어도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원안대로 확정할 수 있다.
- ③ 안전 점검으로 수용 인원이 줄면 접근성을 고려한 현장 접수 경로를 유지하되, 최종 배분과 선정 절차를 다시 정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 ④ 온라인 접수를 전날 마감하기로 했으므로, 강당 정원이 줄면 온라인 80명만 먼저 입장시키고 현장 신청 20명은 취소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⑤ 강당 정원이 70명이라도 온라인 접수 완료 후 현장 접수를 더하면 신청 인원을 늘릴 수 있으므로 수용 인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39. 수정 전 안내문을 검토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온라인 신청만 적혀 있어 현장 접수로 접근성을 보완하려던 합의가 반영되지 않았다.
- ② 공연 시작 시각과 신청 마감 시각이 같아 입장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지 못했다.
- ③ 우천 시 강당으로 변경될 가능성을 누락해 공연 장소가 달라질 때의 대응을 안내하지 못했다.
- ④ 안전 점검에 따른 인원 조정 가능성을 밝히지 않고 선착순 100명이라고 단정했다.
- ⑤ 온라인 신청은 전날 오후 6시, 현장 접수는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로 바꾸되, 예정된 온라인 80명·현장 20명은 안전 점검 전에도 확정 입장 인원으로 안내한다.

40. 학생들이 합의한 신청 경로별 마감 시각과 잠정 인원, 안전 점검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정확하게 안내한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온라인·현장 중 원하는 방식으로 공연 당일 14시 30분까지 신청하며, 총 100명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 ② 온라인은 전날 18시, 현장은 당일 14시 30분 마감입니다. 인원 80·20명은 잠정이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조정됩니다.
- ③ 온라인 신청 80명·현장 신청 20명이라는 잠정 배분을 밝히고,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80명은 안전 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입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 ④ 우천 시 강당으로 옮기되, 최종 정원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추첨 실시 여부와 결과 안내 시각은 모두 학생회가 임의로 확정해 공지합니다.
- ⑤ 접수 인원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과 참여 방식은 확정 공지가 나올 때까지 모두 안내하지 않습니다.

41. 안내문 배포 전 다음 <보기>의 상황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학생회가 현재 공지에 반영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교는 수요일에 강당 안전 정원을 70명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비가 올지는 아직 결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개최 장소는 당일 오전 9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추첨 실시 기준과 결과 확인 방법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 ① 강당 정원이 70명으로 확정됐으므로 야외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의 최종 입장 인원을 70명으로 고정해 공지한다.
- ② 강당 정원은 70명이지만 장소는 미정이다. 강당으로 옮기면 입장 규모와 선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린다.
- ③ 비가 올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부터 강당에서 공연한다고 확정하고 온라인 80명에게 먼저 입장권을 제공한다고 알린다.
- ④ 개최 장소 발표 시각은 오전 9시로 정해졌지만 추첨 방식은 미정이므로, 장소 발표 시각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처리한다.
- ⑤ 강당 정원 70명이 확정됐으므로 이미 합의된 온라인·현장 접수 마감 시각과 두 신청 경로 역시 모두 새로 결정해야 한다.

[42~45번] 정보 제공 글쓰기 계획과 고쳐쓰기

다음은 학급 자치회가 작성한 안내 글의 초안과 검토 메모이다.

[글쓰기 목적] 새로 바뀐 교실 이동 안내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해당 교실에 도착하도록 돕는다. 대상은 1학년 학생이며, 이동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을 우선 고려한다.

[초안]

① 다음 주부터 과학 수업은 실험실 A에서 진행된다. ② 실험실 A는 본관 3층 복도 끝에 있다. ③ 작년 축제에 참석한 학생들이 즐거워했다. ④ 이동할 때는 복도 안내 표지를 확인하고, 길을 모르면 1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자. ⑤ 안내 표지 설치하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마칠 예정이다.

[검토 메모]

- 3번 문장은 안내 목적과 무관하므로 삭제한다.
- 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정보만으로 학생이 현재 그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 이동 시간을 평균 3분이라고 기록했지만, 그 기록은 방과 후에 이동해 본 학생 5명의 수치이다. 전교생의 이동 시간을 3분으로 확정해 쓰지 않는다.
- 실험실 A를 찾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건물 평면도와 안내 데스크 위치를 함께 제공한다.
- '수업 시작 5분 전 이동을 권장한다'는 것은 학급 자치회의 제안이지 학교의 공식 의무 규정이 아니다.

42. 다음 <보기>의 두 문장 배치안을 비교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과학 수업 장소가 실험실 A로 바뀌었습니다. 위치는 본관 3층 복도 끝입니다. 복도 안내 표지를 확인하고, 찾기 어려우면 1층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세요.”

(나) “복도 안내 표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길을 알기 어려우면 표지 설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그 표지만 따라가세요. 과학 수업 장소는 실험실 A입니다.”

- ① (가)는 수업 장소를 먼저 알린 뒤 위치와 문의 방법을 제시하므로, 이동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1학년의 정보 탐색 순서에 맞는다.
- ② (가)는 문의 장소를 함께 안내했으므로 실험실 A의 층수와 복도 위치를 생략해도 학생이 스스로 장소를 찾는 데 같은 효과를 낸다.
- ③ (나)는 설치 예정이라는 조건을 앞에 두었으므로 실제 표지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표지만 따라가면 된다는 안내가 모순 없이 성립한다.
- ④ (나)는 학교 안내 표지의 설치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을 설명하므로, 수업 장소보다 표지 설치 일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항상 더 적절하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지 설치 완료를 확인한 뒤에만 실험실 A의 위치를 공개하는 구성이어서 초안의 안내 목적을 충족하기 어렵다.

43. 초안을 검토하던 학생이 다음 <보기>의 추가 공지를 받았다. 글의 목적과 최신 정보를 고려해 안내문을 고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금요일 오후 6시, 학교는 복도 안내 표지 설치가 지연되어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과학 수업의 첫 이동은 그대로 월요일 오전이며, 1층 안내 데스크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운영한다.

- ① 첫 이동 수업 전에는 표지가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실험실 A의 위치와 평면도·안내 데스크를 통한 대체 길찾기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 ② 금요일까지 표지가 설치된다는 기존 문장을 우선 유지하고, 월요일 오후 완료 예정이라는 수정 공지를 뒤에 붙여 학생이 기존 경로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 ③ 표지 설치가 지연되면 실험실 A의 실제 위치 안내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교실 위치 정보는 빼고 문의 장소만 제공한다.
- ④ 표지 설치 지연은 학생들의 이동 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 일정에 불과하므로, 첫 수업 안내문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 ⑤ 새 평면도와 안내 데스크 위치를 제공하되, 안내 표지는 금요일까지 완성되었다고 적어 기존 이동 안내의 형식을 유지한다.

44. 검토 메모의 이동 시간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회가 다음 <보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 자료를 안내문에 반영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방과 후 이동을 측정한 5명의 소요 시간은 2·3·3·3·4분이었다. 점심시간에 이동한 다른 5명의 소요 시간은 4·5·6·7·8분이었다. 두 집단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고, 전교생을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은 아니다.

- ① 두 집단을 합쳐 10명의 평균 이동 시간을 4.5분으로 구했으므로, 모든 1학년의 이동 시간은 최대 5분이라고 안내할 수 있다.
- ② 점심시간 표본 평균은 6분이므로, 방과 후 기록한 3분은 오키라고 판단하여 삭제하고 6분을 학교 공식 이동 기준으로 정한다.
- ③ 방과 후 3분, 점심 6분이라는 표본 평균을 구분해 제시하고, 5분 전 이동 권장은 학교 의무 규정처럼 쓰지 않는다.
- ④ 두 집단의 평균이 3분과 6분으로 다르므로 5분 전 이동 권장안을 공지할 때 1학년 누구든 5분이면 도착한다고 확정할 수 있다.
- ⑤ 점심시간 표본에 8분이 걸린 학생이 있어도 평균 6분이므로,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최소 이동 시간은 6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45. **금요일 오후 6시의 학교 수정 공지를 확인한 뒤, 첫 이동 수업용 시각 자료를 만드는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교는 복도 안내 표지를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첫 이동 수업은 월요일 오전이고, 1층 안내 데스크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운영한다.

제안 A: 3층 복도만 확대해 실험실 A를 표시한 간략도.

제안 B: 본관 1층 안내 데스크와 3층 실험실 A를 층별 도면에 표시하고, 층간 이동 계단의 위치를 같은 기호로 연결한 평면도.

제안 C: 월요일 오후 설치 예정인 복도 안내 표지의 위치만 표시한 그림.

- ① 제안 A는 목적지의 3층 위치를 알릴 수 있으므로 1층에서 출발하는 학생의 층간 이동과 문의 장소까지 함께 설명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 ② 제안 B는 1층과 3층의 위치를 함께 보여 주지만, 이동 경로 기호가 있다는 이유로 안내 데스크 운영 시간도 자동으로 보장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 ③ 제안 C에는 월요일에 설치할 표지의 위치가 있으므로, 월요일 오전 첫 수업 전에 완성된 표지를 따라가도록 안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 ④ 제안 B는 목적지·문의 장소·층간 이동을 함께 안내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안내 데스크 운영 시각을 별도 텍스트로 덧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제안 A와 C는 각 층의 시설 정보를 일부 보여 주므로, 초행 학생에게 문의 방법과 층간 이동 경로까지 충분히 안내하는 자료가 된다.

45문항 답안 기록표

80분 실전 연습 후 답안·근거·시간을 확인해.

01 ① ② ③ ④ ⑤

02 ① ② ③ ④ ⑤

03 ① ② ③ ④ ⑤

04 ① ② ③ ④ ⑤

05 ① ② ③ ④ ⑤

06 ① ② ③ ④ ⑤

07 ① ② ③ ④ ⑤

08 ① ② ③ ④ ⑤

0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12 ① ② ③ ④ ⑤

13 ① ② ③ ④ ⑤

14 ① ② ③ ④ ⑤

15 ① ② ③ ④ ⑤

16 ① ② ③ ④ ⑤

17 ① ② ③ ④ ⑤

18 ① ② ③ ④ ⑤

19 ① ② ③ ④ ⑤

20 ① ② ③ ④ ⑤

21 ① ② ③ ④ ⑤

22 ① ② ③ ④ ⑤

23 ① ② ③ ④ ⑤

24 ① ② ③ ④ ⑤

25 ① ② ③ ④ ⑤

26 ① ② ③ ④ ⑤

27 ① ② ③ ④ ⑤

28 ① ② ③ ④ ⑤

29 ① ② ③ ④ ⑤

30 ① ② ③ ④ ⑤

31 ① ② ③ ④ ⑤

32 ① ② ③ ④ ⑤

33 ① ② ③ ④ ⑤

34 ① ② ③ ④ ⑤

35 ① ② ③ ④ ⑤

36 ① ② ③ ④ ⑤

37 ① ② ③ ④ ⑤

38 ① ② ③ ④ ⑤

39 ① ② ③ ④ ⑤

40 ① ② ③ ④ ⑤

41 ① ② ③ ④ ⑤

42 ① ② ③ ④ ⑤

43 ① ② ③ ④ ⑤

44 ① ② ③ ④ ⑤

45 ① ② ③ ④ ⑤

총 소요 시간: _____분 / 재확인한 문항: _____개 / 근거 없이 고른 문항: _____개

정답과 다섯 선택지의 판단 근거

[1~3번 해설] 독서: 관찰 범위와 주장 검증

1번 정답 ②

- ① 오답 — 숫자의 진실성 ≠ 결론 범위의 타당성이라는 첫 문단의 대비다.
- ② 정답 — 전체 사례라도 기록의 누락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포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살핀다는 글의 조건을 삭제했다.
- ③ 오답 — 누락을 확인한 전체 기록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더 강한 근거가 된다.
- ④ 오답 — 보편 명제에 대한 적합한 반례 한 개의 반박 가능성을 제시한 셋째 문단과 맞는다.
- ⑤ 오답 — 변화 발생과 인과 설명은 별개의 문제다.

2번 정답 ⑤

- ① 오답 — 평일 낮 120건은 조사된 구간의 입장 횟수이며 서로 다른 인원 120명이라는 뜻은 아니다. 더구나 주말에는 관찰 자료가 없어 방문자가 없었다는 주장까지 뒷받침할 수 없다.
- ② 오답 — 작동하지 않은 기기는 주말 방문자를 측정하지 않았다. 미측정값을 0명으로 입력한다고 해서 실제 미방문을 관찰한 근거가 생기지 않는다.
- ③ 오답 — 평일 낮 120건은 측정된 시간대의 입장 기록이다. 주말과 평일 저녁은 관찰하지 않았으므로 월 전체를 빠짐없이 조사한 것이 아니다.
- ④ 오답 — 평일 낮 방문자의 수만으로 측정하지 않은 주말의 방문 양상을 추론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며, 같은 양상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 ⑤ 정답 — 측정된 입장 횟수와 고유 방문자 수를 구별했고, 기록기가 작동하지 않은 주말의 미관측 상태를 방문자가 0명이었다는 사실로 바꾸지 않았다.

3번 정답 ①

- ① 정답 — 보편 명제는 같은 조건의 신뢰할 만한 반례 한 건으로 반박된다.
- ② 오답 — 부분 사례로 전체 집단의 신청 방식을 확정할 수 없다.
- ③ 오답 — 집단 구성과 상승 폭이 같더라도 함께 변한 수업 방식이나 다른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인과를 확정할 수 없다.
- ④ 오답 — 원인 설명이 미확정이어도 상승이 관찰됐다는 기록의 사실성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 ⑤ 오답 — 검증한 기간을 넘어 다른 달에도 동일했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4~9번 해설] 독서: 정보 삭제와 공적 검증

4번 정답 ②

- ① 오답 — 보존 필요는 기간마다 재심사해야 하며, 필요가 사라진 뒤의 동일 접근 허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 ② 정답 — (가)는 분쟁 해결을 위한 예외적 보존을 인정하되 관리 기관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필요한 대상과 보존 기간·열람 권한을 한정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삭제를 재검토한다.
- ③ 오답 — 삭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 보존을 주장하려면 필요를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은 남는다.
- ④ 오답 — 기록의 보존과 접근 범위는 분리된다. 접근 대상을 제한하는 대안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⑤ 오답 — 막연한 활용 가능성은 목적·기간의 구체성을 대신하지 못한다.

5번 정답 ④

① 오답 — 공적 책임 검증의 핵심 근거를 확인한 설명이다.

② 오답 — 책임성에 필요한 기록이 소멸하는 것을 경계한다.

③ 오답 — 공적 이유 공개와 사적 신상 비공개가 양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④ 정답 — 공적 근거를 검증하는 일과 신상 정보의 접근을 동일시한 선지다. 비필수 정보는 가릴 수 있다.

⑤ 오답 — 접근기록·기간 재심사 등 통제 수단을 긍정한다.

6번 정답 ①

① 정답 — (가)의 예외 보존·최소 침해와 (나)의 증거 보존·개인 부담 완화를 동시에 포괄한다.

② 오답 — 익명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과 검증을 위해 원본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별개다. 두 입장 모두 구체적으로 필요한 원본의 제한적 보존을 인정한다.

③ 오답 — (가)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최소 보존을 우선 검토하며, (나)도 공적 판단과 무관한 신상 공개·보존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④ 오답 — (가)도 필요가 사라지면 다시 삭제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므로 재검토는 (나)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⑤ 오답 — 보존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목적 소멸 후의 무제한 접근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입장 모두 접근 범위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7번 정답 ⑤

① 오답 — (가)는 같은 검증을 더 적은 개인 부담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 그런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② 오답 — (나)는 완료된 공적 결정의 사후 책임을 확인하는 근거를 보존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오답 — 접근 권한 통제와 비식별 공개를 구분한다.

④ 오답 — (가)는 구체적 검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 보존의 예외를 인정한다.

⑤ 정답 — 각 입장의 중심 논거는 다르지만 시청의 제한적 공개·보존 방안은 양쪽과 양립한다.

8번 정답 ③

① 오답 — (가)도 공적 결정의 정당성 확인이나 분쟁 해결에 필요한 예외적 보존을 인정한다.

② 오답 — (나)도 검증 기간이 끝나면 보존 필요성을 재검토한다고 하며, 삭제 요구로 항상 즉시 종료된다고 하지 않는다.

③ 정답 — (가)는 예외적 보존의 필요를 관리 기관이 설명해야 한다고 하고, (나)는 사후 검증을 위한 믿을 만한 증거를 강조한다.

④ 오답 — (나) 역시 필요하다면 직접 관련 없는 신상 정보를 가릴 수 있다고 한다.

⑤ 오답 — (나)의 마지막 부분은 필요한 검증 기간이 끝난 뒤 보존 필요성을 다시 따진다고 한다.

9번 정답 ④

- ① 오답 — 정기 감사가 끝나도 별도의 이의제기가 진행 중이면 필요한 기록의 보존 근거가 남을 수 있다. (가)의 예외와 (나)의 사후 책임성 모두를 무시했다.
- ② 오답 — 검증을 위한 원본 보존과 대중에게 모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이다. (나)도 직접 관련 없는 정보의 공개 제한을 인정한다.
- ③ 오답 — ㉔은 불필요할 수 있지만 심사 근거와 수정 경위까지 폐기하면 공적 결정의 이유를 사후 검증할 신뢰할 만한 자료가 사라진다.
- ④ 정답 — 진행 중인 이의제기에 필요한 ㉔·㉕의 원본 보존과 접근 제한, 무관한 ㉔의 공개 배제, 검증 종료 후 보존 재심사를 결합했다. 두 입장을 함께 적용한 것이다.
- ⑤ 오답 — ㉔·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관한 ㉔까지 영구 보존할 근거는 없다. (가)는 필요한 대상과 기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본다.

[10~13번 해설] 과학·기술: 다공성 젤의 흡수와 지지력

10번 정답 ②

- ① 오답 — 통로 연결성과 흡수 속도의 관계를 설명한다.
- ② 정답 — 통로가 넓어져 흡수 속도가 커져도 골격 감소는 강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 ③ 오답 — 마른 질량을 분모로 한 공식과 일치한다.
- ④ 오답 — 양과 속도를 구별해야 한다.
- ⑤ 오답 — 막이 초기 흡수 속도를 늦추어도 최종 수용 공간은 유지될 수 있다는 조건부 설명과 맞는다.

11번 정답 ①

- ① 정답 — 0~5분에는 A가 $(15-10)/5=1.0\text{g/분}$, B가 $(13-10)/5=0.6\text{g/분}$ 이므로 $A/B=5/3$ 이다. 5~30분에는 A가 $(17-15)/25=0.08\text{g/분}$, B가 $(18-13)/25=0.20\text{g/분}$ 이므로 $B/A=5/2$ 이다.
- ② 오답 — 0~5분의 평균은 A $5\text{g}/5\text{분}=1.0\text{g/분}$, B $3\text{g}/5\text{분}=0.6\text{g/분}$ 이다. 두 값을 거꾸로 제시했다.
- ③ 오답 — 5~30분의 증가량은 계산할 수 있어도, 구간 내부 매 순간의 흡수 속도가 일정했다는 근거는 없다. 구간 평균과 순간 변화는 다르다.
- ④ 오답 — 두 구간 평균의 차이는 $0.20-0.08=0.12\text{g/분}$ 이다. B의 평균값 0.20g/분 을 차이로 잘못 옮겼다.
- ⑤ 오답 — 초기 5분에서 A가 빠르더라도 이후 25분의 평균은 B가 0.20g/분 으로 A의 0.08g/분 보다 높다. 구간을 바꿔 비교했다.

12번 정답 ④

- ① 오답 — 두 번의 누적량 측정만으로 모든 순간의 기울기를 비교할 수 없다.
- ② 오답 — A는 5분 15g에서 30분 17g으로 늘었다. 중간의 상세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방출이 필수는 아니다.
- ③ 오답 — 강도 실험에서는 오히려 A의 강도가 더 높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④ 정답 — 평균 변화량과 중간 순간 속도의 시간별 변동은 구별된다.
- ⑤ 오답 — 둘 다 초기 마른 질량은 10g 이라고 제시되었다. 추가된 물의 질량이 다르다.

13번 정답 ③

- ① 오답 — 30분의 측정값은 최종 평형 수용량이 아니다. C의 막은 초기 유입을 늦출 수 있으나 수용 공간 자체는 A와 같다는 가정이다.
- ② 오답 — 5~30분에 추가된 물은 C 3g, A 2g이지만 0~5분 누적 흡수량은 C 3g, A 5g이다. 시간 구간을 바꿔 읽었다.
- ③ 정답 — 처음 5분은 C 3g으로 A 5g보다 적다. 5~30분 증가분은 $C=(6-3)=3g$, $A=(7-5)=2g$ 이므로 C가 1g 더 많다.
- ④ 오답 — 5~30분 누적 증가량은 C 3g, D 3g으로 같아도 구간 내부의 순간 속도 곡선이 같다는 결론은 따르지 않는다.
- ⑤ 오답 — 30분 보유량은 D 9g, A 7g이지만, 압축 강도는 D가 A보다 낮다고 직접 제시되어 있다.

[14~17번 해설] 사회·경제: 가상의 상계·이행보증 규칙

14번 정답 ③

- ① 오답 — 상계와 미지급 확인은 충족하더라도 상대방의 서면 청구가 있어야 보증 지급 요건이 완결된다. 전화 문의만으로는 부족하다.
- ② 오답 — 서로 대응하는 45만 원을 먼저 상계하면 갑의 차액은 30만 원이다. 이미 낸 10만 원을 빼면 미지급은 20만 원이며 65만 원이 아니다.
- ③ 정답 — $75-45=30$ 만 원을 상계 차액으로 계산하고 $30-10=20$ 만 원을 미지급액으로 구분했다. 다음 날까지 미지급이 확인돼도 서면 청구가 없으면 보증 지급 요건은 미완성이다.
- ④ 오답 — 확정된 양쪽 채무는 지급일도 같으므로 금액이 서로 다르더라도 대응 부분을 상계할 수 있다.
- ⑤ 오답 — 보증 기관의 구상권은 자신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발생한다. 서면 청구도 지급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20만 원을 구상할 수는 없다.

15번 정답 ②

- ① 오답 — 상계 차액 50만 원 중 갑이 2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미지급액은 30만 원이다. 한도 40만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정답 — 상계 차액 50만 원에서 갑이 낸 20만 원을 빼면 을이 받지 못한 금액은 30만 원이다. 보증 기관이 그 30만 원을 전액 지급하면 을에 대한 미지급 상계 차액은 0원이다. 구상 채무는 별개다.
- ③ 오답 — 보증 기관이 30만 원을 지급하면 미지급 30만 원은 모두 충당되어 20만 원이 남지 않는다.
- ④ 오답 — 갑이 미리 낸 20만 원은 보증기관의 지급액이 아니다. 보증기관은 잔액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⑤ 오답 — 다음 날 미지급 확인과 서면 청구 조건을 충족하므로 보증 지급액을 0으로 볼 수 없다.

16번 정답 ③

- ① 오답 — 보증 기관은 미지급액과 보증 한도 중 작은 금액까지만 지급한다. 남은 10만 원은 보증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증 기관이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 ② 오답 — 다음 날까지 미지급이 확인되어도 상대방의 서면 청구가 따로 필요하다. 지급액의 상한이 계산된 것과 지급 요건이 갖춰진 것은 다르다.
- ③ 정답 — 상계 차액 50만 원 중 보증 한도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 ④ 오답 — 을이 추가로 받을 잔액은 10만 원으로 줄지만, 보증 기관이 실제로 지급한 40만 원은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 잔액과 구상 관계를 함께 구분해야 한다.

- ⑤ 오답 — 보증 기관의 판단 기준은 원채무 120만 원이 아니라 상계 뒤의 미지급 차액 50만 원이다. 그중 한도 4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17번 정답 ②

- ① 오답 — (가)의 50만 원 계산은 맞지만, (나)는 30만 원 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상계할 수 없다.
- ② 정답 — (가)는 확정·같은 지급일 요건을 모두 충족해 30만 원을 상계하고 차액 50만 원을 남긴다. (나)는 미확정, (다)는 지급일 불일치로 상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오답 — 상계에는 두 채무가 확정된 것뿐 아니라 지급일이 같아야 한다. (다)는 지급일이 달라 차액 상계를 할 수 없다.
- ④ 오답 — 아직 확정되지 않은 30만 원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미리 차감해 정산할 수도 없다.
- ⑤ 오답 — 서면 청구는 보증 지급 조건이지 상계 조건이 아니다. 또한 (다)는 지급일 불일치로 상계할 수 없다.

[18~21번 해설] 문학: 남겨진 여백

18번 정답 ④

- ① 오답 — 주하는 책을 폐기 상자나 이사 수레 중 하나에 즉시 넣지 않고 그 사이에 둔다. 아직 판단이 유보된 장면이다.
- ② 오답 — 박 선생의 오래된 대출 이름표가 나와, 책이 단순 물건을 넘어 현재의 관리자와도 연결된 기록임을 드러낸다.
- ③ 오답 — 주하는 여백 전체를 사진으로 찍지 않는다. [B]와 삭제 요청 일화를 함께 보면 전부 복제하는 선택을 유보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정 글을 촬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뜻은 아니다.
- ④ 정답 — 책은 수레로 옮겨졌지만 마지막 문장에서도 새로 만든 보존 판단 이유 칸은 비어 있다. 이 행동만으로 공식적·최종 분류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오답 — 사라진 간판 아래 남은 윤곽과 지워진 글의 흔적은 내용을 곧바로 복원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자국을 통해 과거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19번 정답 ②

- ① 오답 — 주하는 이름표를 발견했을 뿐 박 선생의 당시 생각을 회상하지 못하며, 지워진 문장도 복원되지 않는다.
- ② 정답 — 이름표로 박 선생과 책의 과거 연결이 드러난 뒤, 과거 삭제 경위는 박 선생 자신의 대화로 전달되어 현재 판단과 이어진다.
- ③ 오답 — 삭제를 요청한 학생과의 과거 대화는 직접 장면으로 재현되지 않고 박 선생의 회고 발화로 전해진다.
- ④ 오답 — 박 선생은 삭제 경위를 말하지만 문장의 원래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 마지막 보존 판단 이유 칸도 비어 있다.
- ⑤ 오답 — 옛 대출 이름표와 박 선생이 한 문장을 지웠다는 진술은 과거 일이 바로 이 여행기에 관련됨을 알려 준다.

20번 정답 ②

- ① 오답 — [A]에서 보존 판단을 고민한다는 사실은 있지만 이후 [B]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므로 보존 자동 확정은 아니다.
- ② 정답 — [A]의 “분류표로 보면 그렇지”와 “누군가 다시 읽은 자리”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뜻이다.
- ③ 오답 — 박 선생은 손글씨를 모두 지우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실제 학생 요청을 받아 한 문장만 지웠다.
- ④ 오답 — 삭제 요구에 따라 내용을 지웠지만 책의 의미와 처리 방향을 고민한다. 복원이 선결 조건인 것은 아니다.
- ⑤ 오답 — 규정을 없애거나 책을 관리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은 제시되지 않는다. 분류 기준의 한계와 판단의 필요성을 함께 본다.

21번 정답 ①

- ① 정답 — 빈칸은 결론을 내리기 전의 유보 상태를 가리킨다. 관리 편의 우선이란 결론을 내렸다는 근거가 없으며 [B]의 당사자 확인 방침과 어긋난다.
- ② 오답 — 글을 지우는 행동조차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기록 처리일 수 있다는 사례다.
- ③ 오답 — 새로 만든 칸은 보존 결론뿐 아니라 결정에 이른 이유를 검토하려는 장치다.
- ④ 오답 — 박 선생은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글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해 지워 달라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삭제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복원도 신중하게 볼 수 있다는 감상은 <보기>와 부합한다.
- ⑤ 오답 — 주하는 전면 촬영과 즉각 폐기를 모두 피한다. <보기>의 선별적 판단과 통한다.

[22~27번 해설] 현대시·창작 시조·산문 복합: 남겨 둔 자리

22번 정답 ⑤

- ① 오답 — 비가 그친 뒤에도 펼친 채 걷는다고 제시되어 날씨 변화와 선택의 시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 ② 오답 — 빗방울 대신 그림자가 앉았다는 서술은 같은 도구의 표면이 달라진 풍경과 연결되는 이미지다.
- ③ 오답 — 사람들의 이동과 남겨진 물웅덩이는 제시되지만 화자의 목적지까지 나타내지는 않는다.
- ④ 오답 — 그림자는 우산 위에 앉았을 뿐 손으로 만졌다고 제시되지 않았다. 마지막의 표현은 새로운 감각 경험에 대한 지향이다.
- ⑤ 정답 — 마지막 두 행은 밝아진 하늘을 직접 동기로 부정하고 길을 두 손으로 만지고 싶다는 화자 자신의 동기를 밝힌다. 외부 조건만으로 행동을 설명한 선지다.

23번 정답 ⑤

- ① 오답 — 풀이 실제로 답했는지는 제시되지 않는다. 사라진 이름에 대한 물음이 현재 풍경에서 시작된다는 감상은 가능하다.
- ② 오답 — “지나간 날 없을쏘냐”는 반문은 돌이 말하지 못해도 지나간 날은 있었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 ③ 오답 — 옛길의 돌계단과 남은 돌은 과거를 환기하는 공통 매개다.
- ④ 오답 — 첫째 수는 질문의 형태로 알 수 없는 과거의 이름을 향하고 둘째 수는 반문으로 지난 시간의 존재를 강조한다.
- ⑤ 정답 — 둘째 수의 반문은 돌이 말하지 않더라도 지난날이 있었다는 뜻이다. 기억이 끊어졌다고 단정하거나 첫째 수의 물음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24번 정답 ①

- ① 정답 — 과거 믿음은 수정했지만 창문을 올려다보는 습관은 남는다. 믿음과 행동의 지속 여부를 분리해야 한다.
- ② 오답 — 습관의 지속이 과거 믿음의 지속을 뜻하지는 않는다. 두 현상은 작품 후반에서 명시적으로 분리된다.
- ③ 오답 — 하나의 반례 같은 경험이 옛 믿음을 흔들었다는 것과 과거 모든 관찰이 거짓이었다는 판단은 다르다.
- ④ 오답 — 화자는 밝기만으로 관계를 재단하지 않기로 했을 뿐, 밝기와 관계가 항상 반대라는 규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 ⑤ 오답 — 마지막 문장에서 습관이 여전히 남는다고 했으며 그 이유를 기다리던 시절의 눈길과 연결한다.

25번 정답 ②

- ① 오답 — (가)는 우산을 접어 사용 방식을 바꾸지만 (다)는 창을 올려다보는 습관이 지금도 계속된다.
- ② 정답 — (가)는 우산을 펼쳤다가 새로운 감각을 위해 접는다. (다)는 밝기와 친밀함을 동일시한 판단을 버려도 눈길의 습관이 남는다.
- ③ 오답 — (나) 첫째 수는 풀에게 이름을 묻지만 답은 제시되지 않는다. 발자국 덮기를 정답 획득의 결과로 확정할 수 없다.
- ④ 오답 — (가)는 길을 두 손으로 만지고 싶어서라고 동기를 밝히며, (나)의 반문은 지난날이 있었다는 뜻이다.
- ⑤ 오답 — (나)의 발자국 덮기는 제시되나 현재의 행동을 모두 멈추겠다는 결론은 없고, (다)는 오히려 행동이 지속된다.

26번 정답 ⑤

- ① 오답 — "만지고 싶어서"는 행동의 동기이자 바람이다. 실제 접촉의 완료 여부는 지문에 없다.
- ② 오답 — 질문은 실제로 나타나지만 풀의 답변이나 이름의 확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③ 오답 — 둘째 수의 덮기와 첫째 수의 물음은 표현되지만 물음에 답을 받았다는 사건은 명시되지 않는다.
- ④ 오답 — (다)는 믿음의 수정과 창문을 보는 습관의 지속을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분리한다.
- ⑤ 정답 — (다)의 습관이 남는다는 설명은 맞다. 그러나 (가)의 '만지고 싶어서'는 소망과 동기이지 실제로 손을 대었다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다.

27번 정답 ①

- ① 정답 — (가)에는 우산 표면에 나무 그림자가 나타난 장면과 그 후 우산을 접는 행동이 차례로 제시된다. (다)는 어두운 창 앞의 모임을 보고 밝기와 친밀함에 대한 기존 판단을 고친다. 그림자가 선택을 직접 일으켰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② 오답 — (다)의 인식 변화는 어두운 집 앞에 사람들이 모인 실제 상황에서 비롯됐다. 창이 말을 걸었다는 의인화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③ 오답 — 두 대상이 시간의 흔적과 관련되는 해석은 가능해도, 어느 것도 과거 사람의 이름을 실제로 알려 주지는 않는다.
- ④ 오답 — (다)에서는 어두운 집의 창 앞에 사람들이 모인 사실이 기존 믿음을 흔든다. 창이 밝아졌다는 사건은 없다.
- ⑤ 오답 — (나)에는 풀이 답하거나 첫째 수의 질문이 해결되는 장면이 없다. 질문과 해결된 사실을 혼동했다.

[28~31번 해설] 고전소설 원문 기반: 박지원 「허생전」 (독자 번역·재구성)

28번 정답 ①

- ① 정답 — 결사들은 이름도 모르는 낯선 이에게 거액을 내준 일을 놀라워한다. 변씨는 남루한 외양만 보지 않고 간결한 말과 위촉되지 않은 태도를 해석해 행동한다.
- ② 오답 — 허생이 신분을 증명하거나 증명서가 제시되었다는 내용은 없다. 결사들의 의문은 그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이다.
- ③ 오답 — 허생은 자신의 계획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변씨가 구체적인 거래 물품이나 시세 정보를 듣고 돈을 내준 것이 아니다.
- ④ 오답 — 변씨가 주목한 것은 남루함 그 자체가 아니라 남루한 처지와 대조되는 간결하고 당당한 태도다. 값을 능력을 확정한 것도 아니다.
- ⑤ 오답 — 결사들이 먼저 놀라고 변씨가 판단을 설명한다. 변씨는 돈을 즉시 내주었으므로 금액을 줄이려 했다는 추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29번 정답 ③

- ① 오답 — A의 핵심인 재산·신분 확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B는 허생에게 돈을 내준 행위 자체를 변씨의 시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오답 — 허생은 계획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변씨는 거액을 내주는 시점에 아직 그의 성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 ③ 정답 — 본문에는 신분이나 자산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다. 변씨는 허생의 태도로 큰 뜻을 추측하고 빌려주는 행위로 그 가능성을 시험한다고 직접 말한다.
- ④ 오답 — 거래 성과는 변씨가 대여한 뒤 (나)에서 발생한다. 두 해석 모두 이미 관찰된 성과에 근거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오답 — B는 사후에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 대여 당시의 예상과 시험을 말한다. A와 B 모두를 시점 오류로 묶을 수 없다.

30번 정답 ⑤

- ① 오답 — 과일을 쓸어 담은 뒤 제사와 잔치를 치를 사람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개인의 구매가 다른 사람들의 이용에 영향을 준다.
- ② 오답 — 물품 자체가 나라에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허생의 손에 집중되어 원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 ③ 오답 — 과일을 허생에게 넘겼던 상인들이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들이는 서술이 있어 역할의 역전이 드러난다.
- ④ 오답 — ㉠은 시장을 흔들기 쉬웠다는 점을 나라의 경제 기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연결한다. 이윤을 곧 국가 경제의 건전성으로 등치하지 않는다.
- ⑤ 정답 — 앞서 팔았던 상인들이 뒤에는 웃돈을 주는 구매자가 되었다. 이 사실은 그들이 되사는 가격을 주도했다고 보기 보다 허생에게 물품이 집중되어 거래상의 선택권이 줄었음을 보여 준다.

31번 정답 ③

- ① 오답 — 첫째 부분은 가능하지만, 과일 매점은 수요를 충족한 사례가 아니라 유통 취약성을 드러낸다.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찬양하는 해석은 ㉠의 탄식과 어긋난다.
- ② 오답 — 변씨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허생은 작은 돈으로 유통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제적 취약성으로 해석했다.
- ③ 정답 — 변씨는 허생의 남루한 외양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허생은 거래 성공에서 오히려 경제의 취약성을 발견한다. 두 장면 모두 외적 결과와 인물의 평가가 어긋나는 데 의미가 있다.
- ④ 오답 — 변씨는 이름을 묻지 않았고, 허생은 자신의 이익만을 기뻐하기보다 나라 경제의 취약함을 탄식했다.
- ⑤ 오답 — 앞부분의 판단 차이는 맞다. 다만 ㉠은 시장의 취약성을 탄식한 말이어서 긍정적 확신으로 해석할 수 없다.

[32~34번 해설] 고전시가 원전 복합: 윤선도·황진이와 현대시

32번 정답 ④

- ① 오답 — 구름은 검어질 수 있고 바람 소리는 멎기도 한다. 화자는 감각적 아름다움과 시간에 걸친 지속성을 구분해 물을 선택한다.
- ② 오답 — 이별의 긴 밤을 줄이고 임과 함께할 밤을 늘이려는 소망을 시간의 절단·보관·펼침으로 형상화했다.
- ③ 오답 — 같아 보이는 기와라도 바람과 비를 견딘 역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마지막에 숫자 대신 물자국을 본다.
- ④ 정답 — (가)의 지속성 평가는 맞지만, (다)의 화자는 기와 수를 세던 방식에서 벗어나 남은 물자국을 살피기로 한다. 판단 기준의 전환 방향을 뒤집은 선지다.

- ⑤ 오답 — 「동짓달 지나긴 밤을」의 만남은 아직 소망의 차원이며, 창작 시의 물자국은 현재의 관찰을 통해 지난 시간을 생각하게 한다.

33번 정답 ③

- ① 오답 — 바람 소리는 좋지만 그칠 때가 많다고 직접 말한다. (나)의 재회도 완료된 과거가 아니라 “오신 날 밤이든 ... 퍼리라”라는 희망이다.
- ② 오답 — 구름의 번덕과 물의 지속을 대비하며, 밤을 베는 것은 실제 사건이 아닌 비유적 상상이다.
- ③ 정답 — 물은 ‘그칠 때 없음’이 가치의 근거이고, 베어 낸 밤을 임이 오신 날 펼친다는 것은 시간을 마음대로 다루고 싶은 소망이다. <보기>의 두 표현 방식에 각각 대응한다.
- ④ 오답 — 화자는 물의 지속성을 긍정한다. 임과의 만남도 체념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제시한다.
- ⑤ 오답 — (가)는 실제 감각과 지속성의 대비를 통해 평가한다. (나)의 동기는 추위 일반이 아니라 임과 함께 있을 시간을 늘리려는 마음이다.

34번 정답 ⑤

- ① 오답 — 바람의 소리는 중단되지만 물은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자연물 속성을 대비한다.
- ② 오답 — 보관과 펼침의 행위를 밤이라는 시간에 적용한 표현이다. 실제 행동이 아닌 상상 속 행위임을 확인한다.
- ③ 오답 — 화자는 지붕이 어제와 같아 보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와의 수보다 물자국을 살핀다. 개수를 안다는 것이 곧 기와가 겪은 날씨를 안다는 뜻은 아니다.
- ④ 오답 — (가)의 관찰과 (나)의 미래 희망을 섞지 않은 독해다. 작품의 발화 시점과 서법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 ⑤ 정답 — (다)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나)에서 밤을 베어 보관하는 것은 실제 겪은 사건의 회상이 아니라 앞으로 임과 함께할 밤을 길게 만들고 싶은 상상이다.

[35~37번 해설] 교내 발표: 도서관 열람 공간을 바꾸는 제안

35번 정답 ③

- ① 오답 — (나)는 시범 운영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계획을 생략하고 영구 변경을 단정하므로 충돌한다.
- ② 오답 — 청중의 경험을 묻는 도입과 조사 범위가 명시된 통계 제시는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반드시 근거보다 개인 경험을 우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정답 — (가)는 경험 환기와 자료의 조사 시점·기간을 결합한다. (나)의 “늘”, “영구적인 변경”은 점심 사흘 조사와 2주 시범 운영 계획의 범위를 넘는다.
- ④ 오답 — (가)는 해결안 논의를 요청할 뿐 결론을 확정하지 않는다. 방음·관리 인력 확인과 시범 운영은 여전히 필요한 판단 단계다.
- ⑤ 오답 — (나)에는 시범 운영이나 결과 공개 계획이 없다. 단정적 결론을 서둘러 제시했다.

36번 정답 ②

- ① 오답 — 발표는 예약 수, 실제 이용, 민원, 만족도 등을 함께 비교하겠다고 했다. 예약만으로 지속을 확정할 수 없다.
- ② 정답 — 예약 30팀 중 실제 이용은 18팀으로 60%이다. 소음 민원 3건은 소음 관리와 방음 상태를 점검할 근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원인이 방음 불량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설문 응답자 수도 없으므로 지속 여부는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 ③ 오답 — 3건은 접수된 소음 민원의 종류이지, 이용하지 않은 12팀의 사유를 조사한 결과가 아니다.
- ④ 오답 — 설문 자료에 한계가 있어도 예약 30팀과 실제 이용 18팀이라는 운영 기록의 산술 비교는 가능하다.
- ⑤ 오답 — 실제 운영 중 제기된 소음 민원은 운영의 적합성을 판단할 자료다. 예약과 이용 수의 차이만으로 민원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37번 정답 ②

- ① 오답 — 관찰 기간의 평균 점유량은 향후 예약자가 반드시 방문한다는 예측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예약과 실제 이용도 구별해야 한다.
- ② 정답 — 평균 점유 좌석 수는 대기한 학생이나 포기한 학생의 수를 직접 보여 주지 않는다. 새로운 공간에 대한 필요는 대기 수요와 이용 목적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 ③ 오답 — 발표자는 점심시간 사흘이라는 표본 한계를 명시했고 시범 운영 자료도 추가로 수집하려 했다.
- ④ 오답 — 기존 자료만으로 필요성을 확정할 수 없다는 말은 계획을 곧바로 철회해야 한다는 말과 다르다.
- ⑤ 오답 — 개인석 평균 잔여 12석과 모둠석 평균 잔여 1석을 더해 평균 13석이라고 계산할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가 동시에 비었다거나 모둠 활동에 모두 적합하다는 근거는 없다.

[38~41번 해설] 학생회 대화와 공지문

38번 정답 ③

- ① 오답 — 현장 접수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학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제거하면 그 목적을 해친다.
- ② 오답 — 잠정 합계 100명은 수용 정원 70명을 넘으므로 안전 점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③ 정답 — 협의는 접근성과 인원 관리의 양립을 추구하며, 안전 점검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 ④ 오답 — 온라인 신청을 먼저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온라인 80명에게 최종 입장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오답 — 접수 인원이 늘 수 있다는 사실과 수용 가능한 인원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은 다르다.

39번 정답 ⑤

- ① 오답 — 수정 전 안내문에는 온라인 신청만 있고 합의된 현장 접수 경로가 빠졌다.
- ② 오답 — 공연 시작과 온라인 신청 마감이 모두 금요일 15시로 되어 있다.
- ③ 오답 — 수정 전에는 운동장 공연이라고만 하고, 협의 중인 우천 대체 장소가 누락됐다.
- ④ 오답 — 인원 100명은 잠정 수치이며 안전 점검으로 달라질 수 있다.
- ⑤ 정답 — 경로별 마감 시각을 올바르게 옮겨 놓았지만 80명·20명은 안전 점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잠정 배분이다. ‘확정 입장 인원’이라고 공지할 수 없다.

40번 정답 ②

- ① 오답 — 온라인 마감은 전날 18시이며, 전체 100명의 입장 보장도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 ② 정답 — 온라인·현장의 접수 마감 시각, 80·20명 잠정 배분, 안전 점검에 따른 인원 조정 가능성을 정확히 반영한다. 우천 시 장소 변경과 추첨 공지는 별도의 미확정 안내 사항이다.
- ③ 오답 — 잠정 배분은 확정 입장 자격과 다르다. 안전 점검 뒤 최종 수용 인원이 줄면 신청자 선정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 ④ 오답 — 우천 시 대체 장소는 협의됐지만 추첨 실시 여부와 결과 공지 시각은 정해야 할 미확정 정보다.
- ⑤ 오답 — 신청 경로와 기한은 이미 합의되었으므로 미정인 정원과 구분해 현재 가능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41번 정답 ②

- ① 오답 — 강당 정원은 강당을 쓸 경우의 제한이다. 야외 개최 시에도 정원이 70명이라는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정답 — 확정된 강당 정원과 미정인 개최 장소·선정 절차의 조건 관계를 구별한 안내다.
- ③ 오답 — 예보나 가능성만으로 우천 이전을 확정할 수 없고 온라인 신청자 우선권도 합의되지 않았다.
- ④ 오답 — 오전 9시 발표는 확정된 사실이다. 추첨 절차가 미정이라는 사실과 구별해야 한다.
- ⑤ 오답 — 장소·정원 조건에 변화가 생겼어도 기존에 합의된 두 방식의 신청 마감 시각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42~45번 해설] 정보 제공 글쓰기 계획과 고쳐쓰기

42번 정답 ①

- ① 정답 — 글의 목적은 1학년 학생이 새 수업 장소에 도착하도록 돕는 것이다. 장소→위치→문의 방법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② 오답 — 안내 데스크가 있어도 학생이 스스로 이동하려면 목적지의 위치 정보가 유용하다. 하나를 이유로 다른 하나를 삭제할 근거가 없다.
- ③ 오답 — 설치 예정인 표지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따라가라”고 하면 미설치 상황에서 실행이 불가능하다.
- ④ 오답 — 독자에게 필요한 핵심은 수업 장소와 접근 경로다. 아직 설치 중인 시설의 일정을 항상 먼저 내세워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 ⑤ 오답 — (가)와 (나) 모두 장소 자체는 알려 주며, (가)는 표지 완료 확인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43번 정답 ①

- ① 정답 — 월요일 오전 첫 수업 이전에는 금요일 설치 예정이 실현되지 않았고 최신 예정 시점도 월요일 오후다. 따라서 장소 정보와 대체 문의·평면도를 병행해 안내해야 한다.
- ② 오답 — 이미 변경된 과거 일정을 우선 안내하면 월요일 오전 학생이 아직 없는 표지를 찾게 될 수 있다. 최신 공지로 교체해야 한다.
- ③ 오답 — 안내 표지는 미설치일 수 있어도 실험실 A의 위치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위치 설명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
- ④ 오답 — 표지는 찾기 위한 수단이므로 설치 지연은 첫 이동 수업 학생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⑤ 오답 — 최신 공지는 설치 지연을 명시한다. 보조 경로를 안내하면서도 이미 완료됐다고 적으면 상충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44번 정답 ③

- ① 오답 — 전체 10명의 합계는 45분으로 평균 4.5분이 맞지만, 표본 평균으로 모든 학생의 최대 소요 시간을 확정할 수는 없다.
- ② 오답 — 서로 다른 이동 환경에서 평균이 다르게 관찰됐을 뿐 어느 한쪽이 옳기라고 판정할 근거가 없다.
- ③ 정답 — 방과 후 합계 $15/5=3$ 분, 점심시간 $30/5=6$ 분이다. 자료의 범위를 유지하고 학급의 권장과 학교 의무를 구별한다.
- ④ 오답 — 평균값으로 개별 학생의 최대 이동 시간을 보증할 수 없다. 점심시간 표본에는 6·7·8분의 사례가 실제 있다.
- ⑤ 오답 — 평균 6분은 관찰된 다섯 명의 산술 평균이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최소 시간이 아니다.

45번 정답 ④

- ① 오답 — 제안 A는 3층 목적지 주변만 보여 주고 1층 출발 경로와 안내 데스크 위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 ② 오답 — 도면의 위치 표시가 안내 데스크의 운영 시간까지 알려 주지는 않는다. 시간 정보는 별도로 확인해 제공해야 한다.
- ③ 오답 — 수정 공지상 표지 설치 완료는 월요일 오후 예정이다. 첫 이동 수업은 그보다 이른 월요일 오전이므로 설치 예정 위치를 실제로 이용 가능한 경로처럼 안내할 수 없다.
- ④ 정답 — 제안 B는 1층 출발점·안내 데스크·3층 목적지·계단 연결을 함께 보여 준다. 월요일 오전 첫 이동 때 표지 설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대체 경로로 유용하며, 운영 시각은 별도 글로 안내해야 한다.
- ⑤ 오답 — 각 자료가 일부 위치를 보여 준다고 해서 두 제안이 각각 층간 이동과 문의 장소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